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한국 다큐멘터리의 제작에 관한 연구
-역대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1973-2017)-

A Study on the Making of Korean Documentary
-Focused on the works that awarded 'Korea Broadcasting Prizes' (1973-2017)-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梁元洪

2018年 12月

한국 다큐멘터리의 제작에 관한 연구
-역대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1973-2017)-






指導教授 朴 景 淑

梁 元 洪

이 論文을 言論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2月

梁元洪의 言論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조 성 호	
委 員	백 정 동	
委 員	김 도 연	
委 員	김 경 호	
委 員	최 낙 진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12月

A Study on the Making of Korean Documentary
-Focused on the works that awarded 'Korea Broadcasting Prizes'
(1973-2017)-

Yang, Won-Hong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Kyong Suk)

A dissertat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Ph.D. of journalism

2018. 12.

This dissertation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다큐멘터리는 인간의 삶의 질과 사회 변화를 위한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방송사마다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오고 있다. 한국방송대상은 1973년 이후 매년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우수작을 선정하여 수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267편의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다큐멘터리의 기능과 장르, 주제별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15명의 PD들을 심층 인터뷰 하여 프로그램 제작과정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제작 전략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다큐멘터리의 기능적 관점에서 한국 다큐멘터리는 초창기의 선전적 기능을 거쳐 탐사적 기능과 관찰적 기능이 주류를 이루다, 최근에는 대안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 변화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에 따른 다큐멘터리의 기능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책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모든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탐사보도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시사 다큐멘터리와 역사 및 문화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다큐멘터리 장르에서는 대안적 기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선전기능만 확인되었다.

장르별 세부주제를 분석한 결과, 시사 다큐멘터리에서는 사회 관련 주제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이어 시사종합, 국제,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휴먼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장애인,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특수대상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이 등장했고, 이어 일반인 중심, 영웅 중심, 휴먼종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에서는 환경 중심 주제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연 중심, 인간 중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학 다큐멘터리에서는 의학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간, 동식물, 첨단기술, 지구천문학 순으로 많이 등장했다. 역사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유물/유적 중심, 사건 중심 주제를 다룬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영웅 중심, 일반인 중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 다큐멘터리에서는 전통문화를 다룬 수상작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행, 음악, 대중문화, 미술, 종교 순으로 많이 등장했다. 정책 다큐멘터리에서는 반공 주제가 가장 많이 다뤄졌으며, 이어 새마을, 정책 홍보, 정권 홍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5명의 PD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다큐멘터리들은 주로 정부의 홍보 차원의 주제인 반공, 새마을, 국가 정책 홍보에 관한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휴먼 다큐멘터리는 당시 보통사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던 사회적 분위기와 ENG 카메라의 등장으로 지극히 사적인 개인의 영역을 가장 내밀하게 휴머니즘의 진수를 표현해 낼 수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자연 다큐멘터

리의 경우에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편집 단계의 구성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즉, 주입식 구성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궁금증이나 지적 호기심을 자아내도록 유도하여 몰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사 다큐멘터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PD가 세상에 던지는 화두가 뚜렷한 주제를 기반으로 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어려운 주제를 쉽고 감성적이면서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편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화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현장에 강한 전문가들로 연출자와 스태프들을 보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다큐멘터리를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제작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과학 다큐멘터리는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과 갈증을 해소시켜줌으로써 로고스적 욕망을 채워주는 즐거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주제적인 측면이나 구성적인 측면에서 방송사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다큐멘터리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에 대한 내용분석과 다큐멘터리 장르별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제작 PD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국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통시적으로 파악하고, 각 장르별 제작 전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제어: 한국 다큐멘터리, 기능, 장르, 주제, 제작 전략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목적	3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1절 다큐멘터리의 개념과 장르	5
1. 다큐멘터리의 개념	5
2. 다큐멘터리의 장르	8
제2절 다큐멘터리의 기능	12
1. 다큐멘터리의 선전기능	13
2. 다큐멘터리의 탐사보도기능	14
3. 다큐멘터리의 관찰기능	16
4. 다큐멘터리의 대안적 기능	17
제3절 다큐멘터리의 공공성과 제작 전략	18
1. 다큐멘터리의 공공성	18
2. 다큐멘터리의 프로그램 제작 전략	20
제4절 한국 다큐멘터리 관련 선행연구	26
1. 한국 다큐멘터리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26
2. 한국 다큐멘터리의 제작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26
3. 한국 다큐멘터리의 질적 분석의 중요성과 선행연구	27
4. 한국 다큐멘터리의 통시적 연구 흐름과 과제	29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제1절 연구문제	31
제2절 연구방법	31
1. 연구대상	33
2. 연구방법의 설계	34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5

제3절 분석유목 및 측정	41
1. 한국 다큐멘터리의 시대 구분	41
2. 다큐멘터리의 기능	42
3. 다큐멘터리의 장르	43
3. 다큐멘터리의 장르별 세부주제	44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45
제1절 한국 다큐멘터리의 내용분석 결과	45
1.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작 현황	45
2. 시대별 다큐멘터리의 기능과 장르	48
3. 시대별 장르별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54
제2절 한국 다큐멘터리 수상작 제작 PD 심층 인터뷰 결과	64
1. 정책 및 역사 다큐멘터리의 태동과 제작 전략	65
2. 휴먼 다큐멘터리의 발전과 제작 전략	70
3. 자연 다큐멘터리의 도전과 제작 전략	73
4. 시사 다큐멘터리의 제작 전략과 VJ의 탄생	79
5. 문화 다큐멘터리의 대형화 및 제작 전략	85
6. 과학 다큐멘터리의 성장과 제작 전략	91
제5장 결론	96
제1절 분석결과	96
1. 한국 다큐멘터리 내용 분석 결과	96
2. 한국 다큐멘터리 질적 분석 결과	10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04
참고문헌	106
Abstract	113
부록 1. 한국 다큐멘터리 특성 연구 코딩시트	115
부록 2. 한국방송대상 다큐멘터리 수상작 현황	117
부록 3. MBC 휴먼 다큐멘터리 <인간시대> 200회 편람	127

표 목차

표 1. 다큐멘터리 수상작 분석대상	35
표 2. 심층 인터뷰 대상	36
표 3. 한국 다큐멘터리의 시대 구분	42
표 4.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작	45
표 5.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내역	46
표 6.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 언론사	48
표 7. 시대별 다큐멘터리의 기능	49
표 8. 시대별 다큐멘터리의 장르	50
표 9. 다큐멘터리 장르에 따른 다큐멘터리의 기능	54
표 10. 시대별 정책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55
표 11. 시대별 휴먼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56
표 12. 시대별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58
표 13. 시대별 시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59
표 14. 시대별 역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61
표 15. 시대별 문화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62
표 16. 시대별 과학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64

그림 목차

그림 1. <Nanook of the North>와 <Moana>	5
그림 2. <의지의 승리>와 <카메라를 든 사나이>	14
그림 3. <See It Now>과 <60 Minutes>, <Nightline>	15
그림 4. <제인, 1962>와 <밥 딜런, 1967>	16
그림 5. <한반도의 공룡>과 <한반도의 매머드>	18
그림 6. 심층 인터뷰 대상 PD	40
그림 7.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장면 캡처	70
그림 8. MBC <인간시대> 장면 캡처	71
그림 9.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 장면 캡처	73
그림 10. <어미새의 사랑> 장면 캡처	75
그림 11. <갯벌은 살아있다> 장면 캡처	77
그림 12. <최후의 제국> 포스터	81
그림 13. <다큐멘터리 재앙> 장면 캡처	82
그림 14. <리얼TV> 관련 사진	84
그림 15. <다큐멘터리 양자강> 촬영 현장	87
그림 16.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장면 캡처	88
그림 17.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장면 캡처	89
그림 18.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 장면 캡처	92
그림 19. <다큐멘터리 넘버스> 장면 캡처	94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방송은 ‘교육적 혹은 계몽적 기능’과 ‘오락적 기능’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역할을 요구받는다. 방송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 역시 바로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계몽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시청률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오락적 기능을 지나치게 견지하면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방송사는 ‘공익성’과 ‘상업성’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내재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리얼리티를 담보로 방송사의 공익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방송의 상업성에 대한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즉, 방송사가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경우, 이것이 자사의 공익적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의 성격상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논할 때 가장 우선되는 장르이자, 치열한 상업적 경쟁 속에서도 다른 장르에 비해 시청률의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에 방송사들은 자사의 공익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1년에 최소 한 두 편 이상의 대형 다큐멘터리를 기획한다. 특히 각 방송사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는 ‘창사 특집 프로그램’ 목록에 한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포함하는 것은 주요 편성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다큐멘터리는 교양 부문의 주요한 축을 이루면서 최근에는 보도와 오락 부문에서도 널리 차용되고 있는 핵심 장르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이처럼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방송 장르 중에서도 공적 성격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사안에 대한 해석의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간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이 자주 변화해왔다. 국가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큐멘터리 생산을 주도하기도 했고, 국민 교양을 위한 텍스트로 삼아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는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에 따른 방송 제도의 변화 이면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큐멘터리의 성격 또한 변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강대인, 1993).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다큐멘터리의 경우, 방송에 공공성 개념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끊임없이 다큐멘터리를 자신들의 ‘신성한 장르’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박성일, 2003).

흔히 다큐멘터리는 ‘방송 프로그램의 꽃’으로 불리어 왔다. 그만큼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장기간에 걸친 제작, 다양한 기법의 활용,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등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동원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큐멘터리 분야는 개별 방송사마다 핵심적인 인력과 장비, 예산을 총망라하여 제작되는 분야로, 다른 방송사들과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다큐멘터리에 대한 연구들(강승엽, 2002; 박성일, 2002; 김예란, 2003; 이오현, 2005; 박덕춘, 2005; 나미수, 2006; 최현주, 2006; 민병헌, 2007; 김미라, 2007; 신철하, 2011 외 다수)은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다큐멘터리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2000년 이전까지의 다큐멘터리의 사회·문화·정치적 의미를 조명한 김균과 전규찬(2003)과 휴먼 다큐멘터리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이종수(2002), 그리고 시대별 다큐멘터리 장르별 특성을 연구한 강승엽(2004) 정도였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텍스트 분석에 주목하였고, 2000년 이후 다큐멘터리에 관한 통시적 연구는 맥이 끊어져 찾아보기 어려웠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고 있는지, 이러한 다큐멘터리들은 어떤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의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발전해 온 다큐멘터리들이 시대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의 입장에서 다큐멘터리의 재현 과정은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떠나 진실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생산자의 노동이자 의미 실천의 생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큐멘터리의 생산은 계급 내에서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생산 주체의 의미화 실천행위를 의미한다(Newcomb & Lotz, 2002; 이규정, 2009). TV 다큐멘터리를 하나의 역동적인 장으로 볼 때, 다큐멘터리는 제작 주체인 PD와 수용자 및 국가권력의 관계 속에서 투쟁하며 다양한 위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 생산의 장은 역사적 국면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층위들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부르디외(Bourdieu, 1993; 이오현, 2004 재인용)는 사회를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등 수많은 장(Field)들이 위계적으로 결합된 다차원의 위치 공간이라 설명한다. 여기서 각 장은 마치 움직이는 조각처럼 그 자체로 독립적인 동시에,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받는다. 즉, 각 장은 독자적인 논리를 가지면서도 다른 장들과 구조적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다. 자율적인 개별 장들의 프리즘에 의해 굴절되고 재해석되면서 각

장들의 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또한 ‘제작자들의 방송’이라는 장에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과 조직 속에서 형성된 일정한 방식의 인지와 판단의 성향 체계인 아비투스(habitus)에 따라 구조적 압력과 제약, 그리고 가능성이 각기 다르게 반영된다. 즉, 매체생산은 정치적 장이나 경제적 장의 논리와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장이 가진 고유한 논리와 구조, 그리고 제작자들의 아비투스에 의해 매개되어 전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간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PD들이 단순히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전달자 혹은 희생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능동적인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절 연구목적

그동안 TV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공익’의 성격을 담아내야 하는 다큐멘터리의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소재는 물론 주제 면에서도 교훈과 계몽, 교육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다큐멘터리의 다양한 기능 중 다수의 수용자를 계몽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특화시킴으로써 다큐멘터리를 규범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이런 다큐멘터리의 전통적 역할론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에 따라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큐멘터리의 대중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방송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 산업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어 왔으며, 공공재인 다큐멘터리의 공익성도 논리적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좋은 다큐멘터리는 똑같은 공익이라는 기능 하에서도 창의적인 구성과 내용으로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부르디외(Bourdieu)의 장(Field) 이론에 따르면, 매체생산자들은 사회적, 조직적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실천하는 능동적인 사회적 행위자이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들의 주관성 속에 내면화된 사회질서인 아비투스(habitus)를 통해 다큐멘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정치·경제·방송 산업의 변화, 수용자들의 감성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연쇄적으로 다큐멘터리의 다양한 역할 변화를 유도한다. 다큐멘터리의 공익성과 상업성을 연구한 김희경(2004)은 다큐멘터리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기능이 높은 장르이기 때문에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오히려 장기적인 시각에서 진정한 상업화를 이루는 최적의 요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적 맥락과 제작자들의 미디어 지식생산의 정체성 형성과 헤게모니(hegemony) 투쟁의 경험 속에서 배태된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내용분석과 제작자들의 아비투스(habitus)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대별 정치적·경제적 변화 속에서 다큐멘터리가 기능별, 장르별, 주제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며,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어떤 제작 전략을 활용했는지 파악함으로써 한국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방송대상 시상을 시작한 1973년 이후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다큐멘터리의 기능과 장르, 주제별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해당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PD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다큐멘터리의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시대별로 생산과정에 개입되는 힘들과 그 힘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을 제작한 PD들이 어떠한 개인적 역량과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제작 전략 속에서 다큐멘터리를 구성했고 작품의 완성도를 추구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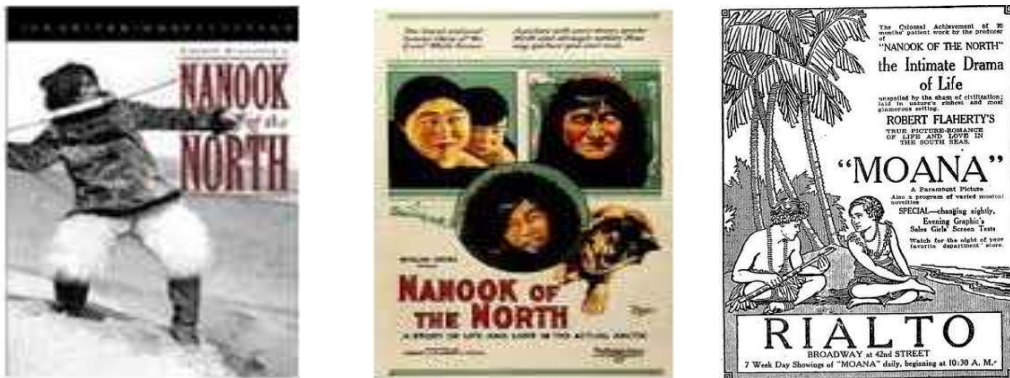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다큐멘터리의 개념과 장르

1. 다큐멘터리의 개념

다큐멘터리(documentary)는 ‘가르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원은 document이다. 또한 19C 후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documentary라는 용어는 교육(lesson), 훈계(admonition), 경고(warning)를 뜻한다. 이에 따라 다큐멘터리는 교육, 훈계, 경고를 위해서 사실에 대한 기록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서술적 방식을 통해 현실의 다양한 모습들을 영상으로 재현하는 텍스트로 알려져 있다(박덕춘, 2004). 즉, 역사적 사실성과 창조적 예술성을 이룬 혼합을 통해 한 사회와 역사의 사실을 기록하고 재구성하는 문화적 텍스트이자, 의미생산의 사회담화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그림 1. <Nanook of the North>와 <Moana>¹⁾



1922년 플레허티(Robert Flaherty)가 제작한 <북극의 나누크, Nanook of the North>는 세계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알려져 있다. 당시 플레허티는 생존을 위해 척박한 북극의 자연환경에서 싸우는 에스키모의 독특한 생활상을 보여주기 위해 북극의 생태계와 나누크 가족들을 필름 카메라에 담았다. 두 번째 작품에서도 플레허티는 전작과 비슷한 구성으로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인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상을 담은 <모아나, Moana>를 제작했다. 이 작품을 본 존 그리어슨(John Grierson)은 ‘뉴욕선(New York Sun)’지에 <Moana>가 사실적이고 근거가 있기 때

1) 출처 : <https://www.google.co.kr/search>

문에 기록할 만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리어슨은 다큐멘터리를 ‘현실의 창조적 가공(creative treatment of actuality)’이라 정의했다. 다큐멘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가공을 통해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는 이미 그 자체로부터 다큐멘터리의 논리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실재’와 ‘창조적 처리’라는 개념은 ‘사실’과 ‘허구’라는 상반적인 개념으로 대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다큐멘터리의 정의는 개념적 모순을 담고 있어 이후 다큐멘터리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그리어슨은 여행 영화를 가리키는 프랑스어 Documentaire에 착안하여 ‘인간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개념과 관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김균·전규찬, 2003).

한편, 이들과 동시대 인물인 로사(Paul Rotha)는 다큐멘터리가 인간의 삶을 창조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의미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현석, 2007). 그는 다큐멘터리의 정의를 의도, 기능, 효과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시켰다. 또한 제작자의 의도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를 개량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주제에 대한 표현을 현실 세계에 국한시키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배우와 스튜디오의 사용 또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리얼 TV나 다큐드라마 같은 프로그램 또한 다큐멘터리 영역에 포함시키는 진일보한 관점에서 다큐멘터리를 해석했다.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세계다큐멘터리 연맹(World Union of Documentary)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란 경제, 문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그 욕구를 자극시키며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사실의 촬영이나 진지하고 이치에 맞는 재구성을 통해 해석되는 사실의 모든 면을 영화에 기록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최양목, 2003). 이러한 정의는 영화에 관한 것이지만 TV다큐멘터리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플랫폼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970년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다큐멘터리를 ‘뉴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정치·경제문제 등을 과거의 사진을 자료로 삼아 극화하지 않고 다루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필름과 테이프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설명했다(강현두·김우룡, 1989; 이규정, 2009 재인용). 비버(Beaver)는 ‘다큐멘터리는 현장에서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역사·과학·사회적 환경을 다루면서 주된 목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시

각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설득·교육·계몽하는데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큐멘터리의 영역을 확대시켰다(조재홍, 1996). 또한 마이클 레비거(M. Rabiger, 1997)는 보다 정확하게 다큐멘터리를 있는 삶 그대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요소가 잘 통제된 계획적인 에세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공감하는 현실 세계를 풍부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힘 있는 장르로서 주변의 익숙한 사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보다 깊숙하게 보여줌으로써 현실을 성찰적으로 파고들게 하는 계기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플랜팅가(Carl Plantinga, 2005; 문원립, 2010 재인용)는 다큐멘터리를 현대적으로 분석하면서 '주장(assertion)으로서의 다큐멘터리'와 '인덱스적(indexical) 기록으로서의 다큐멘터리'로 분류하였다. '주장으로서의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가 반드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을 말하고자, 혹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 초점을 두는 입장이다. 반면, '인덱스적 다큐멘터리'는 대체로 현실을 사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조작되지 않은 리얼리티에 대한 믿음, 삶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자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니콜스(Nichols, 1991; 이종수, 2000 재인용)는 제작자, 텍스트, 그리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다큐멘터리를 정의하였다. 제작자의 입장에서 다큐멘터리는 극영화에 비해 대상자나 대상물에 대해 통제가 비교적 덜 가해지는 영화에 해당한다. 특히 역사와 같은 기본적인 소재는 통제할 수 없다. 텍스트 측면에서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논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회적 문제해결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며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큐멘터리의 구조는 극영화의 전통적인 편집이 아닌 사실 중심적인 편집이 중요하며, 시각적 이미지보다는 청각적 언어의 흐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한편, 시청자 입장에서 다큐멘터리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미지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극영화와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재현을 통해 세 가지 방식으로 세상에 개입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다큐멘터리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익숙한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거나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 및 사건을 상당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사람, 장소, 사물의 모습을 사실로서 인지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개입한다는 점이다. 즉, 다큐멘터리 재현을 통해 제작자나 제작을 지원하는 단체 혹은 기관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처럼 세상을 재현한다는 점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특정한 시각이나 해석에 맞는 사례를 제시해서 사

람들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다.

다큐멘터리가 본질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재 혹은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블루엄(William A. Bluem)은 다큐멘터리가 가장 감동적인 사건과 환경의 기록이고, 사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허구적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 설명했다. 다큐멘터리에서 사회적인 의식과 예술적 의도가 결합될 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김우룡, 1989). 또한 실버스톤(R. Silverstone)은 ‘현실에 대한 보고가 단순한 사실 그 자체만이라면 뉴스다. 어떤 사실보다 감정이나 스토리를 호소하면 드라마다. 그냥 감정에만 호소하면 오락이다. 이에 비해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성에 호소하면 다큐멘터리다’라고 설명했다(남성우, 1992 재인용).

국내에서도 처음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등장했을 당시 다큐멘터리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논의가 방송 산업계와 학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 다큐멘터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졌다. 1993년, 한국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현실적인 사건이나 사실 등을 기초로 영상과 내레이션을 통해 논픽션의 형식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라 정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한국방송위원회, 199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사회적·문화적인 환경과 기술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가 사실을 기록한다고 해도 가공될 수밖에 없는 한 더욱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과 개념에 따라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사실과 허구, 객관성과 주관성, 공정성과 불공정성 등 많은 논란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진실을 추구하며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는 다큐멘터리의 제작 목적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2. 다큐멘터리의 장르

1950년대 이후, TV가 대중화되면서 다큐멘터리의 제작과 형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TV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다큐멘터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인 환경도 발전되었다. 소형 핸드 카메라, 휴대용 녹음기, 고감도 필름 등 영상 매체 기술의 발전으로 TV다큐멘터리는 더욱 확산되었다. 레비거(Michael Rabiger)는 1950년대 두 가지 중요한 기술적 발전으로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즉, 자기테이프 녹음(magnetic recording)²⁾

2) 많은 양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테이프 형식의 외부기억장치. 플라스틱 테이프 표면에 산화철 등의 자성체를

과 연식 엑클레어(eclair)³⁾ 카메라의 등장으로 현장 녹음이 가능해지고 기록이 훨씬 수월해졌으며, 줌렌즈의 개발로 촬영이 한층 편리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1960년대 초반부터 다큐멘터리의 제작 형태는 크게 바뀌었다(이규정, 2009).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객관적인 관찰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외적 진실을 포착하려는 다이렉트 시네마(Direct Cinema), 유럽에서는 사람들의 내적 진실을 포착하려는 시네마 베리떼(Cinema Verite) 형태로 다큐멘터리 영역이 확장되었다. 니콜스(Nichols, 1991)는 이 두 가지의 다큐멘터리 운동을 각각 다이렉트 시네마를 중심으로 한 관찰적(observational) 양식과 시네마 베리떼 중심의 상호작용적(interactive) 양식으로 구분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편리해진 ENG 카메라의 발달과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사실을 드라마의 극적 내러티브로 재연하는 다큐드라마(docu-drama),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일상을 관찰하는 다큐쇼(docu-soap), 다큐의 관습을 따르지만 꾸민 이야기인 모큐멘터리(mocumentary), 리얼리티 쇼(reality show) 등과 같이 사실과 허구가 혼합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사교양,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다큐멘터리의 형식적 관습들을 차용하는 등 기존의 정보 전달 위주 프로그램에 다양한 오락적 요소가 가미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큐멘터리 장르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김선진, 2013). 결국 이러한 변화는 다큐멘터리의 명확한 장르 구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다큐멘터리 장르 분류에 대한 연구자 간의 합의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내용, 기능, 양식 등의 분석에서 연구자의 자의적, 편의적 관점에 따라 다큐멘터리 장르를 다양하게 구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균과 전규찬(2003)은 다큐멘터리의 하부 장르를 세분화하기 이전에 다큐멘터리를 장르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개념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TV다큐멘터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에 따라 초창기 다큐멘터리의 개척자들인 플래허티(Robert Flaherty)나 그리어슨(John Grierson) 등이 규정한 개념을 인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후에도 다큐멘터리에 대한 연구자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TV다큐멘터리라는 것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기술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큐멘터리라는 용어가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되다 보니,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하부 장르의 경계선

발라서 제작함.

3) 영화 카메라 제조회사인 Eclair에서 개발한 필름 카메라. 나중에 1960 Eclair NPR (일명 "Eclair 16" 또는 "Eclair Coutant") 및 1971 Eclair ACL과 같은 16mm 무소음 모델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에게 인기를 얻음.

이 점점 불투명해지면서 내용에 따른 구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실제로 해외 방송사의 장르 분류 방법과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전통적인 분류방법을 찾아보고, 본 연구에 유용한 장르 분류로 삼고자 한다. 우선 해외 방송사로 다큐멘터리 명가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 국장을 지낸 윌 와이어트(Will Wyatt)는 다큐멘터리의 장르를 크게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⁴⁾

먼저 정보성 다큐멘터리이다. 이러한 유형의 다큐멘터리는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의 비중을 가급적 높인다. 주로 과학 다큐멘터리나 테크놀로지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도 이 경우에 해당되며, 화면은 해설을 위한 단순한 보조 자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보제공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실(verite) 다큐멘터리로 현장의 살아있는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때문에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제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조작도 용납되지 않는다. 상황이 진행되는 모습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화면에 담아야 한다.

세 번째 퍼스널리티(personality) 다큐멘터리는 특정한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 진행자를 등장시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다큐멘터리다. 다른 유형의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프로그램의 해설을 맡은 진행자가 화면에 등장한다. 진행자의 인터뷰, 해설 등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프로그램의 주제도 진행자의 시각이나 주관, 개성, 반응 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네 번째는 탐사 다큐멘터리이다. 이는 주로 뉴스의 뒤나 밑을 찾아서 사건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대안 방안 등을 제시하는 조사연구 중심의 다큐멘터리를 말한다. 새로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영상의 질이나 화면구성의 완성도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발굴, 발견 또는 증언 등의 확보에 주력한다.

다섯째는 오락 다큐멘터리로 일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되 시청자가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오락 프로그램의 제작방법을 동원한다.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지만 실제 상황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때로는 리포터를 훈련시켜 실제상황에 투입시키기도 한다.

여섯째는 역사 다큐멘터리이다. 아카이브나 기록을 바탕으로 생존자들 혹은 증인들의 증언을 덧붙여 과거의 사건이나 현실을 재구성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역사 다큐멘터리는 충분한 영상 아카이브 또는 기록사진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

4) 김사승(숭실대 언론홍보학교 교수)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제작 특강 요약본. <https://blog.naver.com/poong29/90182659832>

BBC가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역사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작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BBC의 풍부한 아카이브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일곱 번째는 인물다큐멘터리로 특정 인물의 생애를 보여준다.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기구나 조직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기본적으로 같은 범주에 해당된다. 드라마적 표현방법을 비롯해 다양한 제작기법을 구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있다. 이는 배우들을 등장시켜 드라마 형태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로서 역사적 사건은 물론 동시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법원재판기록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말했는지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어 이를 토대로 실제 사건을 한편의 이야기 구조를 갖는 드라마로 만들기도 한다. 또한 기록이나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제작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한국의 방송 실정에 따른 다큐멘터리 장르를 분류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3년 한국방송위원회에서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그 형식에 따라 내레이터의 해설을 통해 주제를 전개시키는 내레이션 형식과 사건의 재현, 인터뷰, 심층취재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종합구성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가 다루는 내용에 따라 시사, 휴먼, 역사, 기행, 문예, 자연/과학, 종교 다큐멘터리 등으로 구분하였다.

김균과 전규찬(2003), 그리고 강승엽(2004)은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되고 있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여섯 가지 장르로 분류하였다. 먼저 시사 다큐멘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사건이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화 다큐멘터리는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문화 현상들을 대상으로 하며, 휴먼 다큐멘터리는 특별한 메시지의 전달보다는 인간들의 삶을 소재로 하여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다큐멘터리이다. 자연 다큐멘터리는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거나 자연 보존의 메시지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말하며, 과학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과학상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최첨단 과학기술이나 우주의 모습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주는 다큐멘터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역사 다큐멘터리는 과거 역사적인 사건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여 그 의미를 발췌하는 다큐멘터리를 말한다.

이처럼 다큐멘터리 분류가 다소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방송사 내부에서나 연구자 사이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분석하고 있는 만큼 BBC 장르 분류보다 김균과 전규찬(2003)이 제시한 내용에 따른 다큐멘터리의 구분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이 제시한 여섯 가지 다큐멘터리 분류에 정책 다큐멘터리를 추가하여 정책, 시사,

휴먼, 자연, 역사, 문화, 과학 등 전체 일곱 개의 다큐멘터리의 하부 장르로 분류했다.

제2절 다큐멘터리의 기능

다큐멘터리는 제작 의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 제작자들은 다큐멘터리의 기능을 염두에 두어 기획, 촬영, 종합편집 등 전 과정에 걸쳐 최종 제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결정한다.

그리어슨(John Grierson)은 다큐멘터리를 교육적 도구로 보고 미래사회를 건설하는 사회개혁의 대행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생활의 실제기록 이상의 무엇,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몽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제공하면서 지역, 계층 간에 상호의존과 신뢰를 확대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천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마이클 레노프(Michael Renov)는 이런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능을 더욱 세분화시켜서 다큐멘터리가 기록하고 폭로하거나 유지하는 기능, 설득하거나 촉진하는 기능, 분석하거나 질문하는 기능, 표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제시한다(최양목, 2003).

최양목은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기능과 정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다큐멘터리의 '10개 key word'를 핵심적인 요소로 선정했다.

- ①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대중설득을 통한 교정적 행동을 이끌어낸다.
- ③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 ④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그 욕구를 자극한다.
- ⑤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 ⑥ 진지하고 이치에 맞는 재구성을 통해 해석되는 모든 면을 필름에 기록한다.
- ⑦ 명쾌한 견해에 비중을 둔다.
- ⑧ 뉴스의 뒤나 밑을 캔다.
- ⑨ 그 사건의 원인,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전문가의 해석, 시민의 반응, 개인과 사회에 줄 의미를 중시한다.
- ⑩ 기록 TV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함의를 모두 담아 프로그램을 만

든다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진정 작품성이 뛰어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TV다큐멘터리는 제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며, 또한 대충 만들 경우, 다큐멘터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로 인해 다큐멘터리란 외형만 갖춘 사이버 다큐멘터리가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다큐멘터리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유현석(2007)은 역사와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큐멘터리의 기능을 코너(Corner, 2002)의 유형을 인용하여 선전(propaganda), 탐사보도(investigative Journalism), 관찰(observation), 그리고 대안적 기능(alternative Function)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나라의 정서적, 문화적 특성을 잘 수렴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유목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다음에서는 해당 기능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다큐멘터리의 선전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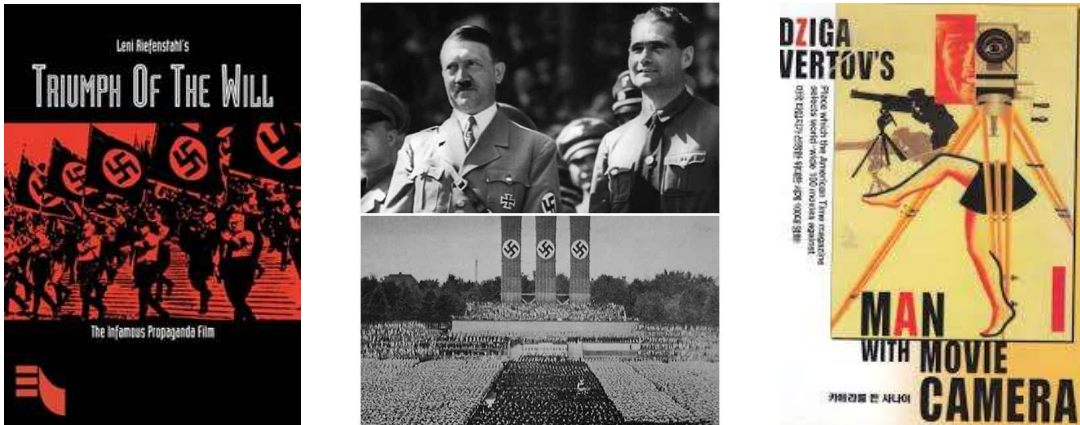
근대국가의 형성기에 있어서 국가 정체성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나치 정권에서 선전문화부 장관이었던 조세프 괴벨스(Joseph Goebbels)는 선전의 본질에 대해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어떤 지향점으로 유인하여 그 속에서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나 상황에 이르는 것”이라 주장했다. 초창기에는 뉴스 영화를 통한 직접적 선전으로, 중반 이후에는 장편 영화를 이용한 간접적 선전을 통해 독일 국민에게 영향을 끼쳤다. 1935년 독일 감독 레니 리펜슈탈(Leni Riefenstahl)이 만든 <의지의 승리>는 다큐멘터리가 선전에 이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 작품은 1934년 당시 규모로는 가장 성대하게 열렸던 뉴렘버그 전당 대회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독일의 부활을 과시하기 위해 히틀러가 리펜슈탈에게 명령하여 만든 다큐멘터리다. 히틀러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육성 연설, 나치 깃발과 전통적인 독일 민요를 적절히 혼합해서 만든 이 작품은 관객의 감성을 크게 자극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유현석, 2007).

그리어슨(John Grierson)이 주도한 다큐멘터리 운동은 시작부터 교육적,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치적, 프로파간다적 성향이 분명한 것처럼 베르토프도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전파하고자 하는 선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삶 자체를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포착하고자 했다. 정치적 교화 수단으로서의 소비에트 다큐멘터리 제작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니콜스(1991)에 의하면, 베르토프는 ‘키노프라우다(kinopravda, 진실)’를 통해 연극적, 문학적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각적 리얼리티의 구축을 통해 새

로운 사회의 리얼리티를 건설할 수 있는 영화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었다. 1918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삶을 전하는 <키노프라우다, 1923~1925> 시리즈, 첫 장편영화 <키노글라즈, 1925>, 가장 잘 알려진 영화 <카메라를 든 사나이, 1929> 등과 같은 작품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고, 그러한 세계를 존재하게 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기치로 제작되었다.

그림 2. <의지의 승리>와 <카메라를 든 사나이>5)



2. 다큐멘터리의 탐사보도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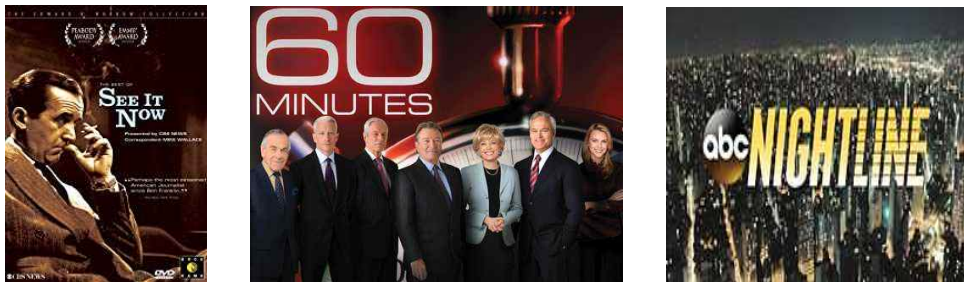
탐사보도기능은 일반적인 사실 자체를 보도하는 뉴스의 전체적인 맥락을 찾아 다큐멘터리적인 재현과 구성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서 사건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탐사보도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일차적 목적으로 삼는 것으로, 상당 기간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가려졌던 사실들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을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공공이슈의 참여자로 상징한다는 점, 그리고 심각한 병폐가 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공공저널리즘의 기본 정신과 부분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김민하, 2008). 탐사보도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한 걸음 나아가 진실을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개입의 태도와 사실을 창조적·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나름대로의 관점(view point)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탐사보도를 위한 다큐멘터리는 뉴스보다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사회적 부정부패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사회 고발 프로그램의 특성을 보다 많이 갖고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주

5) 출처 : <https://www.google.co.kr/search?biw=1536&bih=770&tbm=isch&sa=1&ei>

제를 시의 적절하게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제설정(agenda setting)의 효과를 추구할 수 있고, 특정 주제에 대해 사실에 충실한 기록과 창조적인 해석을 결합시켜 수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김균·전규찬, 2003).

본격적으로 탐사보도기능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51년 미국 CBS의 <See It Now>가 발단이 되었다. 당시 뉴스 프로그램의 피상성과 연출된 사건들에 대한 불만이 크게 고조되었다. 이러한 뉴스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TV매체의 저널리즘적 잠재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바로 <See It Now>이다. CBS는 이 프로그램을 두고 ‘텔레비전을 위한 다큐멘터리’라고 소개함으로써 최초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임을 알렸다. 이 프로그램은 저널리즘의 오랜 탐사보도의 비판적 전통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앵커 시스템과 풍부하고 효율적인 인터뷰 자료의 활용 등을 통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전통적인 포맷을 제시하였다(이종수, 1996). 1960년대에 들어 베트남 전쟁, 흑인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See It Now> 프로그램의 수요 증대로 이어졌으며, 이 프로그램은 각종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 CBS의 <60 Minutes>와 <48 Hours>, 그리고 ABC의 <Nightline> 등이 등장했으며, PD와 기자들에 의한 공동 제작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영국의 BBC는 <Panorama>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PD들은 연출과 제작을 맡고, 기자는 취재와 보도를 담당함으로써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독일 공영방송 ARD도 영국 BBC와 마찬가지로 PD들과 기자를 활용해서 <벨트 슈피겔>을 제작하였다(김택환, 2005).

그림 3. <See It Now>과 <60 Minutes>, <Nightline> 6)



한국에서는 1964년 TBC의 15분짜리 <카메라의 눈>이 탐사보도기능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효시이며, 1981년 MBC에서 <레이다11>을 시작으로 새로운 차원의 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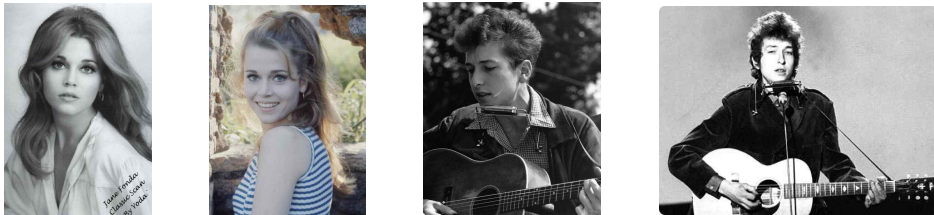
6) 출처 : <https://www.google.co.kr/search?biw=1536&bih=770&tbn>

사보도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983년 KBS는 <추적 60분>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열게 되었다(최양목, 2003).

3. 다큐멘터리의 관찰기능

다큐멘터리 관찰기능은 어떤 대상에 대한 규명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보여 준다. 이러한 기능에 따라 대상을 영상화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요구되며, 그 대상에 대한 해석은 관객들의 몫이다. 즉, 관찰은 사회문화적 연구의 기본적인 은유를 바탕으로 성찰적인 요소가 배제된 시각적 접근 방법으로 인간사회의 행위와 실천을 이해하는 도구인 셈이다.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알려진 <북극의 나누크>도 결국은 플레허티가 에스키모인 나누크가 험난한 자연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록함으로써 관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림 4. <제인, 1962>와 <밥 딜런, 1967>⁷⁾



다큐멘터리에서 관찰적 기능을 자주 표현한 대표적 작품으로는 1960년대의 미국 다큐멘터리 시네마(Direct Cinema) 운동을 들 수 있다(유현석, 2007). 그들은 말의 논리를 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그림의 논리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내레이션과 인터뷰를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에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관객 스스로가 진실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 사람이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경량화된 아리플렉스(Ariflex)나 오리콘(Auricon)과 같은 다양한 16mm카메라와 나그라(Nagra)와 같은 녹음기의 등장으로 이동이 수월해지고, 현장을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삶을 오롯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촬영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포스트 프로덕션 중의 편집과정에서도 이러한 관찰의 정신을 존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이스 오버 해설이나 부가적인 음악 및 음향 효과, 중간 자막, 역사적 사건의 재연, 카메라를 향한 행동의 반복, 심지어는 인터뷰도 전혀 없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눈 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있는 <설피 축제, 1958>, 파리의 몇몇 개개인의 삶을 담은 <어느 여름의 연대기, 1961>, 사형선고를 받은

7) 출처 : <https://www.google.co.kr/search?biw=1536&bih=770&tbm>

한 남자의 마지막 나날에 대한 <전기 의자, 1962>, 밥 딜런의 영국 투어콘서트를 담은 <뒤돌아보지 마라, 1967>, 브로드웨이 연극 공연을 준비하는 제인 폰다의 모습을 그린 <제인, 1962> 등이 관찰적 시각으로 제작되었다(니콜스, 1991).

4. 다큐멘터리의 대안적 기능

대안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큐멘터리는 앞서 전술한 주류 다큐멘터리와는 다른 방식을 강조한다. 대안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예술적 움직임의 영향 속에서 발전했다. 1920년대 베를린과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다다이즘(dadaism)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제작자들은 시적(poetic)인 다큐멘터리 장르를 개척했다. ‘무의미의 의미’를 주장하는 다다이즘은 전통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관습을 파괴하는 것에 뿌리를 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무시하고 비합리성, 비심미성, 반도덕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어린아이의 천진함과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며, 합리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줄거리와 구성을 비판하고 기승구조를 탈피한 비서술구조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일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시에서 언어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다큐멘터리에서 사용되는 시적 의미는 기호학적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작품 속의 이미지는 본래 이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뜻보다 더 깊고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텍스트 속에 숨어 있는 부수적 의미는 ‘시적’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작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이런 시적 요소들은 하나의 그림이나 음성 표현으로 의미를 보여주기보다는 집합적으로 특정 순간에 관객에게 특정 의미로 전달된다는 것이다(Madge, 1982; 유현석, 2007 재인용). 이런 작품들은 제작자의 주관적 방법으로 주제 자체가 변형되어 시적이며 서정적으로 묘사되며 작품마다 매우 강한 사회의식을 표현한다.

또 다른 형태의 다큐멘터리는 사회저항과 주관적 관점으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이야기를 그들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제작방식을 취하고, 주제 측면에서도 여성의 인권문제, 인종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다. 휴대용 영상장비의 기술적 발달과 인터넷, 그리고 UCC(user created contents)의 보편적 사용으로 다큐멘터리의 대안적 기능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동성연애자나 AIDS 환자, 혹은 진보적인 페미니스트나 사회운동가 가운데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개인사를 카메라에 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홍지아, 2002), 이렇듯 1인칭 시점으로 제작되는 ‘First Person Documentary’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대안적 기능을 제시하는 다큐멘터리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선전적, 관찰적, 탐사보도적 등과 같은 기존의 다큐멘터리 기능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들, 특히 다다이즘과 시적 다큐멘터리 그리고 사회 저항과 주관적 다큐멘터리를 코너(Corner, 2002)는 대안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큐멘터리로 분류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치·사회적 변화와 방송기술의 변화로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영역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즉,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유도하는 과학, 자연사 다큐멘터리가 그것이다. 다양한 기술의 개발로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생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가시화하고 이들을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디지털 표현기법들은 실사촬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최현주, 2013). 가령 EBS 다큐프라임 <한반도의 공룡, 2008>, <한반도의 매머드, 2010> 등은 영상 전체를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처리하면서 드라마적 서사 구조를 보여주었다. 영상 그래픽으로 처리한 프로그램을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다큐멘터리 장르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의 관습인 설명적 양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가상의 영상제작 방법으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의 기능은 기존의 분류로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너(Corner)의 기능 분류에 기반을 두고, 대안적 기능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5. <한반도의 공룡>과 <한반도의 매머드>8)



제3절 다큐멘터리의 공공성과 제작 전략

1. 다큐멘터리의 공공성

전통적으로 공익(public interest, general interest, common good)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 즉 보편화된 가치, 공동체의 권익, 재화와 용역의 사회적 효용가치 극대

8) 출처 : <http://home.ebs.co.kr/koreanosaurus/main>

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다수의 이익,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백완기, 1981). 방송의 공익 이론에 대한 가장 명확한 근거는 미국에서 발전한 방송의 공공재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전파의 희소성과 이에 따른 전파의 공동소유의 문제로 방송의 경우 공공재 산업 즉, 공익산업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김희경, 2004).

다큐멘터리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생산물이라 할 수 있다. 낮은 시청률로 인해 비록 상품으로서 매력은 적지만 다큐멘터리의 진실과 객관성이라는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공공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다큐멘터리에 부가된 무거운 공공성의 논리를 당연한 장르적 특징으로 여기며 하나의 원칙으로 인식해 왔다.

니콜스(Nichols, 2001)는 공공성을 지닌 다큐멘터리가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다큐멘터리의 개척자로 불리는 그리어슨의 예를 들면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영국 정부가 국가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1930년에 대영제국통상위원회(Empire Marketing Board), 1933년에 체신부(Government Post Office)에 영화 부서를 신설,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제작자 집단을 양성하였다. 또한 그리어슨은 자신이 이룩한 선례를 캐나다로 확장시켜 1939년에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National Film Board of Canada)의 초대위원장을 맡았으며, 1947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유네스코의 매스미디어 담당자로 활동하였다.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다큐멘터리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다큐멘터리의 명가인 BBC는 방송의 공적 목표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⁹⁾ 첫째,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공적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둘째,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학습을 돕는 것. 셋째, 가장 창의적인 고품질의 내용과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 넷째, 영국의 모든 민족과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영국 전체의 창의적 경제를 지원하는 것. 다섯째, 영국의 문화, 그리고 그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 등이다. 이처럼 BBC는 방송의 공적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방송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익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방송의 공익성 개념이 공간적·시간적으로 그 의미를 달리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9) 출처 : www.bbc.co.uk/aboutthebbc/insidethebbc/whoweare/publicpurposes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¹⁰⁾ 외국의 초창기 방송 도입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국가의 공공재로서 TV다큐멘터리가 국가이데올로기의 전파 도구로 활용되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장르로 다큐멘터리를 선택하여 국민들이 시청할 교양 프로그램으로 규정했다. 또한 사회의 음란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가부장적 국가주의 하에서 교양 다큐멘터리 장르를 선호하고 육성하는 방송 정책을 시행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3년 방송법을 통해 주당 방송시간 비율¹¹⁾을 임의로 지정했으며, 1976년에는 편성지침을 통해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을 줄이고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비율을 40%에 이를 정도로 증가시켰다(최창봉, 2001). 여기에는 국민의 삶의 환경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고자 했던 가부장적 국가권력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1980년대, 신군부의 이른바 사이버언론 및 언론 기관 정화 사업¹²⁾ 또한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이다. 결국, 1980년대 국가에 의한 방송의 공공성 강조는 지배이데올로기의 도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도 다큐멘터리를 통한 국가의 개입 시도는 여전했지만, 국가권력을 증식시키는 공공성 개념은 점점 퇴색되면서 보다 자연스러운 공공성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국가 주도의 공공성 확보에 주목했던 이전과는 달리, 방송 제작자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의미투쟁에 뛰어들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방송제작자들이 벌였던 방송 민주화운동의 핵심과제는 자율성 확보와 상업화 저지였다. 이들은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당위성을 방송의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후 방송제작자들은 더 이상 국가이데올로기의 전달자나 값싼 오락물의 생산자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공공성 개념을 제작 현장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주도적인 생산자로서 담론 생산의 정당성과 헤게모니를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2. 다큐멘터리의 프로그램 제작 전략

다큐멘터리의 제작은 크게 기획단계, 촬영단계, 편집단계를 거치게 된다. 기획단

10) 1961년 12월 전파관리법, 1962년 6월 방송 윤리 위원회의 구성, 1962년 12월 국영 텔레비전 방송사업 임시 조치법, 1963년 12월 방송법, 1972년 10월 방송 가이드라인(자율 규제안) 제시, 1973년 2월 방송법 개정(문공부의 관리강화, 교양방송 증대, 방송 심의 규정 강화 등), 1975년 5월 방송 정화 실천 요강 제정, 1976년 시간대별 편성지침(가족시간대 개념 도입), 1979년 전파관리법 시행령 개정(1년 마다 방송 허가 갱신)

11) 1973년 2월 방송법개정 방송비율(보도방송 10%, 교양방송 30%, 오락방송 20%)

12)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전국 63개(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6개) 언론매체 가운데 44개(신문 11개, 방송 27개, 통신 6개)가 통합이나 폐업조치를 당한다.

계에서는 우선 주제와 소재를 설정하여 내용을 확정시키고, 어떤 구성을 통해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촬영단계에서는 구성된 콘티를 바탕으로 촬영하면서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 등 전반적인 영상촬영 작업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편집단계에서는 최종 편집 큐시트에 따라 촬영된 영상들이 이어 붙이면서 CG 자막, 내레이션 더빙과 배경 음악 등 오디오를 입혀 프로그램이 완성된다.

다큐멘터리의 품질은 이러한 일련의 작업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이는 방송품질 평가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방송품질평가는 공영방송의 선두격인 영국에서 개발되고, 유럽과 일본 등에서 논의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다.¹³⁾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각 방송사별로 개발, 활용되고 있다. KBS는 1995년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공영성지수 PSI(Public Service Index)를 개발하여, 1996년 개선된 평가척도를 확정한 후 사용해오고 있으며, EBS도 2001년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품질평가지수 EPEI(EBS Program Evaluation Index)를 개발, MBC는 2002년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품질지수 QI(Quality Index)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SBS 또한 2003년 자체적으로 ‘시청자만족지수 연구개발’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평가지수 ASI(Audienc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각 방송사들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각 방송사의 고유한 방송이념과 경영원칙을 최대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있다. 즉,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주의에 입각, EBS는 고유한 편성이념에 입각해 각각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MBC는 KBS, SBS와는 다른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고, SBS는 민영방송으로서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에 각각 독자적인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KBS의 PSI는 정보지향과 감성지향, 제작 완성도 등 세 가지 차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EBS의 EPEI개발 과정에서 실시한 집단 토론(FGI: Focus Group Interview)에 의하면 ‘유익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감동을 주고 태도를 변화하게 하는 프로그램’, ‘대상 시청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MBC의 QI는 개발평가과정에서 실시한 집단토론결과 좋은 프로그램의 요건으로

13) 1980년 BBC와 IBA(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가 공동으로 설립한 방송수용자 조사연구소에서 방송수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용자 감상지수(AI: Audience Appreciation Index)를 개발했다. AI는 주관적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흥미롭거나 재미있다(interesting and/or enjoyable)”라는 단일복합척도로 측정한다. 이 조사는 2005년 이후 기존 우편조사 방식을 인터넷 조사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NHK 프로그램 평가지수, TV아사히의 리서치Q, 후지TV의 시청자 만족도조사(FASS) 등이 있으며 네덜란드와 프랑스 역시 각각의 프로그램 품질 평가지수를 개발, 시행하고 있다(전혜선, 2009)

는 ‘감동을 주며, 선정/폭력 등 유해한 요소가 없어야한다’, ‘즐거움과 감동, 재미와 유익이 겸비된 프로그램’, ‘창의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MBC는 다른 프로그램 평가척도들이 프로그램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의 품질을 하나의 척도로 측정하는데 반해 프로그램의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평가척도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가장 늦게 평가척도를 개발한 SBS의 ASI는 민영방송인 SBS의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품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특히 ASI는 제작진의 평가차원과 항목구성에 대한 의견에 기존의 품질 평가척도 개발 결과를 보완하고, 이를 내·외부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ASI의 프로그램 평가는 보도 장르의 경우, ‘객관성/공정성/신뢰도’, ‘완성도’, ‘기여도’ 등으로 구성되며, 교양·드라마·예능 장르의 경우에는 ‘완성도’, ‘창의성’, ‘즐거움/재미’, ‘기여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SI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학술 차원의 접근보다는 제작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사결과를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이종탁, 2010).

각 방송사의 품질평가지수를 종합하여 보면 ‘즐거움과 감동, 재미와 유익이 겸비된 프로그램’, ‘창의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대상 시청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프로그램의 방송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제작 전략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제작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전략은 PD들에게 핵심적인 고민으로 제작 기간 내내 지속된다.

이러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완성도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자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단계를 통해 나타나는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서로 경합하거나 타협하면서 동시에 조화를 이뤄야 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

① 주제적인 측면

프로그램 완성도에서 주제적인 측면은 소재적인 측면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아이템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아이템 창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지식을 포함시켜 기존의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형태의 지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Henderson & Clark, 1990; 양원홍·박경숙, 2011 재인용). 전자의 경우, PD의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에 축적된 지식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종 구성원의 지식과 정보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후자의 경우는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 내부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을 공유·통합하고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을 획득해 조직의 개별 능력을 확장시킴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경우이다. 이런 창출과정을 거쳐 결정된 아이템들은 다큐멘터리 주제가 된다.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주제적인 측면은 아이템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중설득을 통해서 교정적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있는가라는 차원, 또는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지향하거나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그 욕구를 얼마나 자극시키고 있는가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최양목, 2003).

② 구성적인 측면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에 따라 재해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재구성을 통해 전달된다. 따라서 구성적인 측면은 아이템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전개를 거쳐 종결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구성은 아이템들의 시간적 순서, 인과관계, 기승전결의 구조 등 시퀀스(sequence)의 배열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서사(narrative)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서사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현실 혹은 허구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하나의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통해 표현한 것’, 혹은 ‘시간과 공간에서 인과관계로 엮어진 사건의 연쇄’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와도 혼용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서, ‘스토리’란 사건에 대한 진술을 의미하며, ‘텔링’이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진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담화의 양식을 말한다.

최현주(2013)는 다큐멘터리의 스토리텔링 방식 연구를 위해 빌 니콜스(Bill Nichols, 1991 & 1995)가 제시한 기준에 한 가지를 보완하여 여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설명적 양식으로, 이는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 내레이션을 통해 관객에게 직접 소구하는 것이다. 주로 내레이션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며, 영상 이미지는

내레이션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관찰자적 양식은 제작자의 개입 행위 없이 카메라 앞에서 발생하는 일을 단순히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보이스 오버 해설이나 자막, 연출된 재연, 그리고 인터뷰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상호작용적 양식은 주어진 상황을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카메라 앞에 등장하여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진실’을 포착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독과 출연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주가 되는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성찰적 양식은 패러디, 허구의 사용, 작가의 개입(목소리, 직접 등장) 등의 기법을 통해 작가의 주관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방식이다. 다섯째, 수행적 양식은 즉흥적인 상황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구성된 상황에서 기획된 행위를 제작자 자신이 수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참여관찰자적 양식은 관찰이 주가 되지만, 제작진의 인터뷰 상황만 다큐멘터리에 직접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는 최근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③ 영상미학적인 측면

TV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다큐멘터리가 사실(facts)에 근거한다는 장르적 특성이 크게 작용되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TV 매체에 재현되는(represented) 현실들이 사실을 소재로 한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는 현실감 넘치는 영상을 통해 충족된다. 즉, 다큐멘터리는 상상이 아닌 실존하는 사람, 행동, 장소 그리고 사건 속에 담겨진 가치를 탐구하여 영상언어로 전달하는 진실의 형상화 작업이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예술적인 거짓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빙성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진실에 도달하려고 한다(전평국, 1995).

이러한 특성에 따라 다큐멘터리는 영상을 제외해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영상은 크게 진행자, 기록필름, 현장 인터뷰, 현장화면, 자료화면, 컴퓨터 그래픽, 재연, 특수영상 등으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현장 촬영은 영상미학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의 영상미는 명도와 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조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카메라 촬영기법으로는 피사체의 크기¹⁴⁾와 카메라의 움직임¹⁵⁾에 따라 다양한 슛

14) long shot:거리가 멀리 떨어짐, full shot:발끝까지 전신상, medium shot:무릎 위의 칠분신, waist shot:반신상, closed shot: 가슴 이상의 화면.

15) 팬(pan):카메라 좌우 이동, 트랙(track):움직이면서 촬영, 틸트(tilt):카메라 헤드부의 상하 회전, 붐(boom):카메라 전체의 상하이동, 줌(zoom):카메라 렌즈의 초점거리 이동, 달리(dolly):카메라 전체의 전후 이동, 팔로우(following):피사체를 따라 움직이는 복합 카메라 워크, 픽스슛(fix shot): 움직임이 없는 카메라 워크.

(shot)이 있다. 또한 카메라 촬영기법 뿐만 아니라 피사체의 움직임, 특수촬영 장비에 의한 숏, 그리고 숏의 지속시간이나 현장 음들도 영상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영상미에 관여하는 기법들은 다큐멘터리 장르, 제작자의 선호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의 미적 영역은 다큐멘터리의 주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

④ 편집적인 측면

영상편집은 모든 제작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사실을 근거로 있는 그대로의 화면을 나름대로의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열의 과정을 거쳐 영상을 편집한다. 현실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영상 제작자는 사건을 압축하여 묘사하고, 영상과 언어적 사건의 유기적 구성을 추구하면서 외적 사실성의 확보보다는 심리적 사실성의 확보를 추구한다.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 주제적인 측면, 영상미학적인 측면과 구성적인 측면 모두의 완성도를 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록된 영상과 음향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에 따라 다큐멘터리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현장 영상과 현장 음, 현장인터뷰, 자연에 가까운 조명, 정교하게 연출된 카메라의 움직임, 후반작업에서 촬영된 영상의 배열순서 등을 적절하게 편집함으로써 다큐멘터리가 현실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시청자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종수(1993)는 다큐멘터리의 영상구성방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영상편집 방식을 제시하였다. 장면전개 방식으로 일반적인 사실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이어가는 ‘연역적 편집’, 어떤 일의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사실로 옮겨가는 ‘귀납적 편집’을 들었다. 몽타주 편집 방식으로는 균등한 시간 간격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일련의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않은 숏을 편집하는 ‘리듬 몽타주(montage)¹⁶⁾ 편집’, 사건의 주요한 전개요소를 압축하고 이를 초기의 원인, 결과의 시퀀스(sequence)로 순차적으로 제시하거나 일반적인 사건의 진행을 멈추고 다양한 시각에서 분리된 순간을 단면적으로 편집하는 ‘분석적 몽타주 편집’, 그리고 주제나 기본 개념을 표현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연관된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편집하거나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상반되는 사건을 선택하여 이들을 병치시키는 ‘주제영상 몽타주 편집’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편집도 다큐멘터리 장르, 제작자의 선호도에 따라 매우 다양

16) 몽타주 : 영화나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일.

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큐멘터리 편집은 주제적인 측면, 구성적인 측면과 영상미학적 측면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제4절 한국 다큐멘터리 관련 선행연구

1. 한국 다큐멘터리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다큐멘터리의 기능, 장르, 주제 등 특성에 관한 연구로 원용진(1999)은 자연 다큐멘터리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다. 그는 자연에 대한 과학의 승리를 구가하는 근대예의 정복을 위한 민속지학적 다큐멘터리 단계를 걸쳐 자연 다큐멘터리로서 자연은 인간의 삶을 즐겁게 보여주는 개체, 재미의 상대로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현석(2007)은 다큐멘터리의 다양성 연구를 통해 다큐멘터리의 정의에 대한 다양성으로부터 기능적 다양성을 연구한 결과, 다큐멘터리를 ‘기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실에 대한 해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또한 하나의 장르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르적 관습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휴먼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관습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강승목(2001)은 서사구조의 틀을 차용,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방송된 대표적인 휴먼 다큐멘터리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방송되고 있는 대표적인 휴먼 다큐멘터리를 비교, 분석하였다.

2. 한국 다큐멘터리의 제작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한국 다큐멘터리의 제작 전략에 관한 연구는 서사 구조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박명진(1991)은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탐사보도들이 일정한 논리 전개 방식과 대립 구조를 갖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오수진(1992)은 보도 다큐멘터리들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현실에 대한 접근방식과 구성요소를 다루는 방식은 분석 대상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건을 텍스트 속에 내러티브 형식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다큐멘터리의 세부장르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이종수(2010)는 한국

의 자연, 환경다큐멘터리의 서사 전략을 분석했으며, 신철하(2011)는 KBS다큐멘터리 <누들로드> 분석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이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내레이션 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류철균과 문아름(2014)도 MBC <남극의 눈물>을 통해 국내 자연 다큐멘터리 에필로그 시스템에 나타난 서사 전략을 분석하였다.

한편, 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는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세부장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다룬 KBS의 환경 다큐멘터리 <환경스페셜>과 탐사 다큐멘터리인 <추적 60분>의 서사구조를 분석한 최현주(2006)에 따르면, <환경스페셜>의 경우, 완결구조를 갖춘 반면, <추적 60분>에서는 대안모색을 추구하는 미완결구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규(2006) 또한 시사 다큐멘터리 <PD수첩>과 휴먼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의 서사구조에서 현실재현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루진 주제들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영상 혹은 편집기법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나미수와 전오열(2006)은 <추적 60분>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서사구조 비교를 통해 트랜스젠더 문제의 심각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었음을 발견했다. 민병현과 백선기(2009)는 <추적 60분>,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등과 같은 시사 다큐멘터리가 다루는 주제의 문제, 영상표현 방식, 편집기법 등을 분석하였다.

다큐멘터리의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덕춘(2004)은 MBC <갯벌은 살아있다>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자연 다큐멘터리의 촬영 기법에 관한 연구로 생물체의 움직임과 촬영기법, 생물체의 크기와 촬영 기법의 상호관계를 분석했다. 강승엽(2005)은 시사 다큐멘터리의 영상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사실적 영상의 의미, 영상 표현의 현실성, 영상 기법의 특성을 분석했다.

3. 한국 다큐멘터리의 질적 분석의 중요성과 선행연구

주로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다큐멘터리 매체생산에 관한 연구는 제작환경과 생산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다양한 내·외적 요소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특히 생산자 연구는 프로그램의 텍스트적 특성을 생산의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프로그램 구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밝혀내고 제작관행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박지훈·류경화, 2010).

특히 이기형(2009)은 생산자 연구의 학문적 함의와 영향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생산자 연구는 그동안 잘 시도되지 않았던 매체산업 내의 조직문화

와 생산자들의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생산자 연구는 매체생산물이 만들어지는 맥락을 제공함과 동시에 매체산업론이나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제공하지 못하는, 생산자들의 활동에 관한 미시적 차원의 통찰력을 제공한다. 셋째, 생산자 연구는 학계의 연구가 해외이론과 사례를 국내의 매체생산과정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탈맥락적 연구라는 매체생산자들의 비판과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은 똑같은 규격과 재료를 사용하여 균일화된 제품을 만드는 공산품과 달리 PD 개인의 주관적인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산자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양원홍·박경숙, 2011).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에서도 다큐멘터리 생산자 연구와 제작관행에 관한 연구들이 다뤄져 왔다.

김예란(2003)은 방송작가 및 프로듀서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텔레비전 이야기 생산과정의 타협적이고 갈등적인 국면에 주목, 방송 공간의 구조 변화와 방송의 규범권력의 맥락에 위치한 PD와 작가들의 주체성과 실천행위, 담론생산, 노동 현실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KBS <인물현대사>의 인물 선정과정을 민속지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이오현(2005)은 매체생산자들이 수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데스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주체임을 밝혀냈다. 또한 노동열(2009)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조직문화 연구를 통해 창의적 지식 창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나 프로젝트 기반조직을 조직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결국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요소의 전문성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직적·환경적 특성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체제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시사 프로그램의 생산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로 박지훈과 류경화(2010)는 제작담당 프로듀서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MBC <W>의 제작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시사 프로그램의 제3세계 중심의 보도와 영상 스펙터클의 추구가 강압적 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의 결과라기보다는, 매체의 특성과 취재조건에 적응하는 관행에 의한 규율의 결과임을 밝혀냈다. 또한 방문지역과 아 이템에 대한 선택권과 취재의 자율성이 PD에게 부여되더라도, 제작비와 관련된 경제적 여건과 짧은 취재 기간, 시청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방송환경으로부터 오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4. 한국 다큐멘터리의 통시적 연구 흐름과 과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다큐멘터리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다. 이종수(2002)는 다큐멘터리의 내용, 형식의 변화와 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 휴먼 다큐멘터리의 시대성과 사회성을 연구하였다. 그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 방송사의 제도적 환경변화,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기존 관습 등이 휴먼 다큐멘터리 텍스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2001년까지 방영된 휴먼 다큐멘터리의 역사적 변천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그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였다. 같은 기간에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분석한 김균과 전규찬(2003)은 이종수의 연구와는 달리 다큐멘터리의 사회·문화·정치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들은 국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매체·문화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을 생산과 텍스트, 그리고 소비의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이해하고, 다큐멘터리 텍스트를 정치·경제·사회적 역사와 결부시킨 시기 구분을 통해 한국 다큐멘터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강승엽(2004)의 경우에는 1962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의 다큐멘터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국내 TV 다큐멘터리를 역사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방송사별 대표 다큐멘터리의 형식과 내용적 특성 고찰을 통해 한국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큐멘터리의 특성별로 기능, 장르, 주제, 제작기법, 생산자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 개별 텍스트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한국 다큐멘터리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2001년 이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제작 전략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0년 이후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비선형 편집(non-linear editing)의 등장으로 촬영순서에 관계없이 편집자의 임의대로 영상을 불러와 편집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영상과 소리를 만들어내는 특수효과 또한 일반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편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1인 제작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더욱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각종 멀티미디어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큐멘터리의 내용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TV 다큐멘터리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통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한국방송대

상> 수상 다큐멘터리는 당시의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며, 다큐멘터리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양적, 질적 분석에 기반을 둔 통시적인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제작자들의 주관성에 내재된 아비투스(habitus)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르별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모델 제시는 물론 제작 환경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작 전략을 연구함으로써 다큐멘터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적 맥락과 제작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제작된 한국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내용분석을 통해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들을 중심으로 근대화 과정으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나타난 다큐멘터리가 갖는 기능적 다양성과 장르, 그리고 주제의 다양성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통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작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시대별 다큐멘터리의 기능과 장르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시대별 장르별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다큐멘터리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제작자의 철학과 관점, 의식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에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의 텍스트적 특성을 생산의 맥락에서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밝혀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큐멘터리의 제작과정에서 제작자들의 어떤 의도와 목적들이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완성도가 높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제작자들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4.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는가?

연구문제 5.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PD들의 제작 전략은 무엇인가?

제2절 연구방법

한국 다큐멘터리를 통시적으로 연구한 학술연구는 김균과 전규찬(2003), 그리고 강승엽(2004)을 들 수 있다. 1962년부터 2000년까지 KBS, MBC, SBS, EBS의 다큐멘터리를 분석한 강승엽(2004)은 전체 2,966편을 대상으로 시대별 장르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균과 전규찬(2003)은 1962년부터 2001년(2001년 EBS 제외)까지의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강승엽의 연구에 비교해 946편이 많은 3,912편을 대상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들은 지역 방송과 TBC를 제외한 수도권 중심의 지상파 방송 연감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를 위해 먼저 2017년 MBC 방송 연감을 살펴보았다. 2017년 7월 하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제작거부 및 파업으로 제작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규 프로그램은 연간 52편 제작이 가능하며, 5개 정규 프로그램¹⁷⁾ 약 260편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지역의 경우, MBC계열사 15개사 가운데 규모면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 광주MBC를 선택하였다. 정규 프로그램 편수를 상세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방송 시간대에서 9개 프로그램¹⁸⁾ 약 470편이 방송되었다고 추산된다. 이를 15개 계열사 단순 대입하면, 한해 약 7,000여 편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계열사 간의 프로그램 교환 혹은 공동 제작을 감안할 때, 순수 다큐멘터리 생산량으로 볼 수는 없다.

MBC와 광주MBC의 경우를 표준으로 삼을 경우,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서울 지상파 1,000편, 지역방송사 3,000편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1962년에서 2000년까지의 다큐멘터리 전체 편수에 맞먹는 수치다. 더욱이 프로그램마다 개별적 특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개인 연구자가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균과 전규찬(2003) 또한 접근 가능한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연구결과가 절대적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수 조사를 통한 연구 방법으로 현재의 방대한 다큐멘터리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보다 객관적이면서 내용 분석이 가능한 다큐멘터리로서 한국방송대상을 주목하였다. 한국방송대상 수상작들은 매해 부문별로 최고의 다큐멘터리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에 비해 그 표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당시의 시대성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선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행연구에 이어 한국의 다큐멘터리 연구를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7) <시사매거진 2580>, <PD수첩>, <세상기록48>, <MBC스페셜>, <사람이 좋다>.

18) <살맛나는 세상>, <테마기행 길>, <다큐 나는 산다>, <다큐에세이 이 사람>, <어영차 바다야>, <두근두근 아시아>, <그레이트 지리산>, <아시아의 전통시장>,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1. 연구대상¹⁹⁾

방송인에게 ‘한국방송대상’의 수상은 최고의 영예로 간주되며, 방송사의 입장에서 당해 최고의 작품을 의미하는 ‘한국방송대상’의 수상을 통해 방송사의 ‘공익적 이미지’의 향상을 기대한다. 이러한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1973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방송대상’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시상제도이다. 제3회까지는 ‘대한민국 방송상’이라는 이름으로 문화공보부가 주최했고, 1976년 9월 이후 한국방송협회로 이관되어 ‘한국방송대상’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한해 방송계를 빛낸 작품과 방송인을 선정하는 ‘한국방송대상’은 지상파 방송사 내부의 경쟁을 통해 출품된 작품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및 수상자가 결정된다. 한국방송대상에는 한 해 동안 회원사²⁰⁾인 지상파에서 방송된 보도, 교양, 예능 등 장르에 관계없이 출품이 가능하다. 한국방송대상은 매년 6월 초에 접수가 이루어지며, 심사는 7월 중에 실시된다. 가장 최근인 2017년 제44회 한국방송대상의 경우, 2016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 사이에 국내 지상파방송을 통해 첫 방송된 프로그램과 해당 기간에 공적이 있는 방송인을 대상으로 각 방송사가 후보작과 후보자를 추천하고, 24인의 심사위원이 추천을 받은 215편의 방송 프로그램과 77인의 방송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수상작과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대상 1편, 작품상 23개 부문에서 24편, 개인상 21개 부문에서 2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작품상 중에서 다큐멘터리는 <휴먼다큐 사랑. 나의 이름은 신성혁>,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진실>, <풍정 라디오>, <독도 DNA>, <시사진단 퀘. 잠입취재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명의. 병이 되는 잠, 밤새 안녕하셨습니다>, <환생 2부작>, <맛갈세상. 100회 특집 강원도 막> 등이 선정되었다. 한국방송대상에서는 대상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0만원, 작품상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방송의 날’인 9월 3일 전후로 이뤄지고, 회장이 맡아 생중계한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윤번제로 녹화를 담당하고, 전국 방송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한국방송대상은 다른 프로그램의 작품상 심사 기준과 비교할 때, 다소 정책

19) 한국방송대상에 대한 내용은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http://www.kba.or.kr/kba2012/award/award_intro.asp

20) 회원사 : KBS, MBC, SBS, EBS, CBS, FEBC, CPBC, BBS, 원음방송, TBS, 경인방송, TBN, 경기방송, KBS부산, MBC경남, 부산MBC, 대구MBC, 대구MBC, 대전MBC, 광주MBC, 울산MBC, MBC강원영동,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MBC충북, 여수MBC, 포항MBC, 목포MBC, 안동MBC, 원주MBC, KNN, TBC, KBC, TJB, OBS, UBC, G1, CJB, JTV, JIBS.

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한국방송협회가 한국방송대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당대의 정권과 정책을 많이 반영한 작품이 선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방송대상에 출품하는 다큐멘터리 작품들은 당해 방송사들이 최고의 작품이라 판단하여 응모한 작품들이다.

2. 연구방법의 설계

본 연구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프로그램 제작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했다.

먼저 한국방송대상 시상이 이루어진 1973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상작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의 기능, 장르, 주제별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한국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은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해당 메시지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용분석만으로는 해당 작품이 어떤 의도와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러한 내용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다큐멘터리의 제작에 어떠한 의도와 의미들이 반영되었으며, 그 생산과정에서 개입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PD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질적 분석을 병행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매체생산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방법론은 네 가지 생산자 연구방법론²¹⁾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의 장점과 한계를 검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앞선 연구들의 연구대상과 본 연구의 대상 및 배경이 매우 다르며, 한국적인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시대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 생산 연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취지를 유의하면서 30여년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에 직접적으로

21) 첫째, 미디어정치학(political economy of media)으로 이 접근방식은 주로 매체생산의 경제적 측면, 특히 매체소유구조, 매체이윤방식 등을 통해 매체생산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매체생산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에서의 주관적, 객관적 양상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이오현, 2005; Johnson, 1986; Schudson, 1991). 둘째, 문화생산이론(production of culture theory)으로 이 연구방법론에서는 사회구조 맥락과 조직 맥락에서 문화생산과정에서 작동하는 실천들과 전략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특히 매체생산물의 범위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관행, 노동분업, 비대칭적 권력관계, 이윤동기, 자원의 분배방식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Crane, 1992; Dimaggio & Hirsch, 1976; Peterson, 1976).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에서는 문화생산물을 단지 유형의 상품으로만 간주할 뿐, 매체생산이 갖는 의미 등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Jensen, 1984; Dornfeld, 1998). 셋째, 관행이론(routine theory)이다. 이 방법론은 주로 매체생산과정에서 조직적, 직업적 관행들이 생산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둔다(Tuchman, 1978). 그러나 이런 관행이론으로는 매체의 조직적 특성과 경제적 구조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변천해가는 매체생산물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Henderson, 1999). 마지막으로 매체생산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 민속지학적 방법, 특히 참여관찰을 들 수 있다. 참여관찰은 매체생산현장의 상황, 매체생산과정에서 개입되는 다양한 힘들과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역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오현, 2005).

참여해 온 연구자에게 축적된 개인적 경험과 관련 자료와²²⁾ 다양한 시대의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내용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분석대상 수집을 위해 한국방송대상을 시상하기 시작한 1973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의 수상작을 전수 조사했다.

표 1. 다큐멘터리 수상작 분석대상

구분	작품수	구분	작품수	구분	작품수	구분	작품수
제1회	없음	제12회	3편	제23회	9편	제34회	5편
제2회	없음	제13회	3편	제24회	15편	제35회	8편
제3회	1편	제14회	3편	제25회	10편	제36회	8편
제4회	2편	제15회	3편	제26회	9편	제37회	7편
제5회	2편	제16회	3편	제27회	11편	제38회	8편
제6회	3편	제17회	5편	제28회	9편	제39회	10편
제7회	2편	제18회	7편	제29회	6편	제40회	10편
제8회	3편	제19회	7편	제30회	9편	제41회	8편
제9회	2편	제20회	9편	제31회	6편	제42회	8편
제10회	3편	제21회	9편	제32회	6편	제43회	8편
제11회	4편	제22회	10편	제33회	5편	제44회	8편
전체 267편							

분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수상작 정보를 검색하여 기본정보를 수집하였고, 한국방송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다큐멘터리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보하였다. 연도별 시상식 때 사용한 리플렛과 방송사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일부 남아 있어 연구 자료로 활용했다. 이러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했다. 이후 정확한 코

22) 양원홍: 제주MBC 제작(1984년~2012년) 한국방송대상 다큐멘터리부문 수상 (제27회 우수작품상 ‘바다를 건너 건국’, 제31회 최우수작품상 ‘섬을 떠난 사람들’ 제36회 작품상 ‘제주의 문화상징 100선’) 이외에 방송문화진흥회 공익프로그램 은상,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이달의 PD상, MBC계열사작품경연대회 은상 등을 수상.

당을 위해 해당 방송사의 확인과정을 거쳤다. 최종 분석대상은 분석대상 기간 중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전체 267편으로 다음의 <표 1>과 같다(자세한 작품명은 <부록 2> 참조).

2) 질적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① 면접대상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들이 어떠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떤 의도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대별, 방송사별로 안배를 해서 다큐멘터리 부문 각 연도별 작품상을 수상한 담당 PD들을 대상으로 <표 2>와 같이 15명을 선정했다.

표 2. 심층 인터뷰 대상

성명	수상작	장르	소속
강대영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10부작	역사	KBS
장윤택	인간만세 어느 북역인의 영광	휴먼	KBS
이궁희	MBC 인간시대	휴먼	MBC
은희현	MBC 다큐스페셜 구원이의 새해소원	휴먼	MBC
진기웅	KBS공사창립특집 양자강 8부작	문화	KBS
장덕수	갯벌은 살아있다	자연	MBC
조한선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	MBC
최삼규	어미새의 사랑	자연	MBC
윤미현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휴먼	MBC
김무관	차마고도	문화	KBS
장경수	최후의 제국	시사	SBS
박진홍	다큐멘터리 재앙	시사	SBS
정성욱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시사	EBS
김형준	다큐프라임 넘버스	과학	EBS
김귀진	한라산의 야생화	자연	제주MBC
전체 15명			

초창기 다큐멘터리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TBC 동양방송에서 <인간만세 어느 북역인의 영광>을 수상한 장윤택 PD를 선택했다. 그는

1980년대 언론 통폐합으로 KBS로 자리를 옮겨 <추적 60분>, <일요스페셜> 등 KBS의 간판 시사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이후 편성과 제작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였다. 초창기 KBS의 다큐멘터리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대영 PD를 선정했다. 그는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10부작>을 제작하여 1990년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중 가장 독보적이고 뛰어난 수작이라 평가한 바 있다. 강대영 PD는 제작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는 KBS 기획제작국 국장과 심의실장을 거쳐 텔레비전 본부장과 부사장을 역임했다.

휴먼 다큐멘터리의 제작에 관한 연구를 위해 <인간시대>를 통해 휴먼다큐의 전성기를 개척한 MBC 이궁희 PD와 은희현 PD를 선정했다. 이궁희 PD는 1970년 MBC에 입사한 이후 교양제작국에서 휴먼 다큐멘터리의 제작과 기획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2003년에는 문화방송 사장과 한국방송협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은희현 PD 또한 <인간시대>제작과 기획자로서 <청계천 철사장>, <섬마을 정선생님>, <부부버스 기사> 등 많은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제작 일선 은퇴 후에는 MBC 교양제작국 국장과 제주MBC 사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연령이 70대 이후로 한국 다큐멘터리의 제작의 초기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으며, 현장 제작을 떠난 이후에도 방송사 부서 내 중추적인 직책을 맡아 기획자로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총괄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나름의 연륜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심층면접 대상자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했다.

작품의 대형화를 통해 다큐멘터리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제작자로 판단되는 KBS 진기웅 PD와 김무관 PD도 섭외하였다. 진기웅 PD는 1981년 KBS 입사 이후 <양자강>과 <몽골리안 루트>를 제작하여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통해 해외 수출의 길을 열었다. 송지나 작가의 남편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는 현재도 다큐멘터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다. 한국 다큐멘터리로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은 <차마고도>이다. 김무관 PD는 차마고도의 모습과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세계 최초로 TV 다큐멘터리에 담아내었다. 이 작품은 2008년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시작으로 당시 에미상 다큐멘터리부문 최종 수상 후보에 올랐으며, 2008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교양작품상을 수상했다.

자연 다큐멘터리에 대한 연구를 위해 MBC의 장덕수 PD와 최삼규 PD를 섭외하였다. 장덕수 PD는 1981년 MBC에 입사해 <인간시대>,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갯벌은 살아있다>, <그린랜드 에스키모와의 100일>, <세계의 교육 그 현장을 가다>, <황사> 등 걸쭉한 대표작품들을 남겼다. 1994년 한국방송대상 최우수작품상

을, 1995년에는 한국방송프로듀서상 TV 대상을 수상했다. 최삼규 PD는 1984년 MBC에 입사해서 <어미새의 사랑>으로 1996년 한국방송대상 최우수작품상, <야생의 초원 세령게티>로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작품상, <DMZ는 살아있다>로 시카고 TV페스티벌 과학 및 자연 다큐멘터리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성기의 MBC 휴먼 다큐멘터리의 계보를 잇는 제작자로 윤미현 PD를 들 수 있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로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뉴욕페스티벌 인간관계부문 금상을 수상했으며, <휴먼다큐 사랑. 돌시인과 어머니>로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상) 다큐멘터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최근 윤미현 PD는 휴먼 다큐멘터리의 제작 노하우를 담아 <크리에이터의 질문법>을 발간하기도 했다.

시사 다큐멘터리 영역 연구를 위해 SBS 장경수 PD와 박진홍 PD를 선정했다. 장경수 PD는 1990년 SBS개국과 함께 입사한 이후 <SBS 스페셜>, <최후의 툰트라>, <최후의 제국>, <최후의 권력> 등 시사 다큐멘터리 전문 PD로 통한다. SBS 다큐멘터리 제작문법을 개척한 그는 2013년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박진홍 PD는 1994년 SBS에 입사한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스페셜 백마디 말보다 소중한 단 한 번의 포옹>, <다큐멘터리 재앙> 등을 제작하였다. 2008년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한 그는 현재 SBS 시사교양본부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한선 PD는 1983년 MBC 교양제작부에 입사해서 1991년에 SBS를 거쳐 1996년 iTV 편성제작국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리얼리티비전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MBC 해외특별기획. 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 20부작>으로 백상예술 대상을 수상, <SBS 그것이 알고 싶다>로 한국방송대상, 독일 푸트라 특별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방송대상에서 가장 많은 수상작을 제작하고 있는 EBS의 다큐멘터리 제작문법을 연구하기 위해 정성욱 PD와 김형준 PD를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정성욱 PD는 <다큐프라임>, <학교란 무엇인가>,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학교의 고백> 등 EBS적 특성을 가장 많이 살린 교육 전문 다큐멘터리 PD이다. 그는 2011 한국방송대상 대상,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작품상, ABU TV다큐멘터리 추천상 등 권위 있는 상들을 수상했다. 또한 김형준 PD는 어려운 과학의 영역을 다큐멘터리의 영역에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EBS 다큐프라임>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생명의 디자인>, <문명과 수학>, <수학의 원리 마테마티카>, <빛의 물리학>, <넘버스> 등 EBS의 과학 다큐멘터리 전성기를 열고 있다. 2016년 한국방송대상 작품상과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국무총리상 이외에 다수의 커다란 상들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김귀진 PD는 주로 지역의 소재를 다큐멘터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였

다. 이는 최근에 들어 지역 소재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들의 수상실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 다큐멘터리로 <바다의 무법자 불가사리>, <한라산의 야생화로>로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현재에는 KCTV 제주방송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② 심층 인터뷰 진행

면접대상으로 선정된 PD들 중에서 MBC출신들은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어서 심층 인터뷰를 위한 시간 및 장소를 편하게 잡을 수 있었다. 다른 방송사 PD들도 사전에 약속을 잡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사전에 약속을 했음에도 부득이하게 제작시간에 쫓겨 만남이 어려웠던 박진홍 PD의 경우에는 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로 대체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2018년 5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14명의 PD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개별 또는 집단(2명) 면접방식이 사용되었다. KBS 본관 및 주변 카페(장유탉, 진기웅, 김무관), MBC 본관 사무실(윤미현), 개인 연구실(최삼규), SBS 본관 휴게실(장경수), EBS 본관 휴게실(김형준), 제작 현장 인근 카페(정성욱), 은퇴한 PD가 거주하는 지역 식당(이공희, 은희현), 여의도 숙소 인근 카페(조한선), 제주영상문화연구원(김귀진)에서 개별 PD당 약 2~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를 거쳐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으며, 기록을 위해 <그림 6>와 같이 사진을 촬영하였다.

면접방식은 ‘면접 안내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면접 안내 접근방식은 일단 연구자가 면접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범주나 주제들을 개발하지만 면접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개진하는 주제들 또한 다루는 방식을 말한다(Rossman & Rally, 1998; 이오현, 2004). 즉, 인터뷰는 사전에 간단히 작성한 개방형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하기 시작했으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방식을 취했다. 이야기가 막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가급적 인터뷰 대상자의 경험과 생각, 판단 등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면접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 주제들은 ① 수상작 기획의도, ② 당시 시대적 상황, ③ 당시 방송 기술 환경, ④ 프로그램 제작 과정, ⑤ 자신만의 프로그램 제작 전략, ⑥ 향후 다큐멘터리 발전 방향 등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큐멘터리 수상작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당시 제작환경 등 다큐멘터리 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림 6. 심층 인터뷰 대상 PD



강대영



김귀진



김무관



김형준



박진홍



윤미현



은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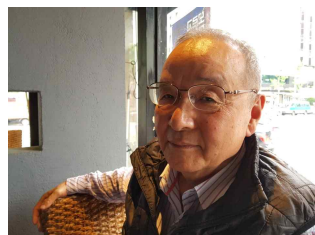
이금희



장경수



장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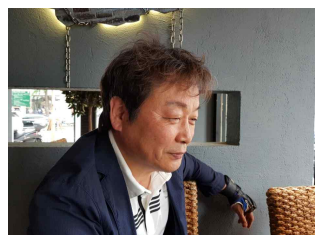
장윤택



정성욱



조한선



진기용



최삼규

제3절 분석유목 및 측정

1. 한국 다큐멘터리의 시대 구분

한국 다큐멘터리의 시대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종수(2002)와 김균·전규찬(2003)이 구분한 시대를 참조하였다. 먼저 이종수(2002)는 제1기로 1964~1979년을 박정희 정권 시대로 국내 TV 다큐멘터리의 개척기와 육성기로 보고, 제2기인 전두환 정권시대인 1980~1987년을 국내 TV 다큐멘터리의 제작경쟁이 본격화 시대, 그리고 제3기로 1987~1997년을 노태우, 김영삼 정권으로 다큐멘터리의 다양화 시대, 그리고 제4기로는 1997~2000년 김대중 정권시대로 다큐멘터리의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그가 이처럼 시대를 정치, 경제적 환경 변화를 근거로 구분한 것은 한국의 방송사가 정치권력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방송역사 연구에서도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정권교체 시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강대인, 1997). 한국의 방송구조가 정치적 변화 시점과 일치하고, 방송영역에 정치권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16 군사쿠데타 이후 TV가 시작되었고, 10월 유신 이후 방송법이 개정되었으며, 전두환 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대대적인 언론 통폐합과 해직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방송의 국가 기구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김균과 전규찬(2003)도 1962년부터 2001년까지의 방송사에 제작한 TV다큐멘터리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전체를 4개 시대로 구분하였다. 그들도 기존의 연구들처럼 방송제도나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요인들이라는 점을 감안, 정치, 경제적 환경 변화를 근거로 구분하였다. 먼저 제1기는 1962년부터 1972년 사이로 다큐멘터리가 텔레비전 장르로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제2기는 1973년에서 1984년으로 방송에서 다큐멘터리가 활성화되고 다큐멘터리의 성격 형성에 기초한 시기이다. 다음 제3기는 1985년부터 1991년으로서 방송이 권력에서 다소 벗어나면서 보다 개방적인 담론의 공간으로서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변모를 준비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구분했다. 그리고 마지막 제4기는 1992년부터 2001년으로 이 시기는 다큐멘터리가 텔레비전의 주요 장르로 자리 잡게 되고, 이에 따른 상업화 경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거듭 나는 시기로 구분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들처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치, 경제적인 변화를 구분할 수 있는 정권 교체 시기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다만 2001년 까지 한정된 연구를 더욱 확장, 2001년 이후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대의 다큐멘터리들을 추가하여 다음의 <표 3>에서와 같이 시대를 구분하였다.

표 3. 한국 다큐멘터리의 시대 구분

시기		정치/경제적 환경	다큐멘터리 제작환경 특징
1기	1964~1979	박정희 정권 새마을 운동	다큐멘터리의 개척기(1964~1976) 다큐멘터리의 육성기(1976~1979) 최초 다큐멘터리 <카메라초점>, 1964
2기	1980~1987	전두환 정권	기술혁신(ENG 도입) KBS, MBC 다큐멘터리 제작경쟁 본격화 본격 사회고발 다큐멘터리 등장 자연 다큐멘터리 등장
3기	1988~1997	노태우, 김영삼 정권	88올림픽 개최, 방송 인력 대규모 유입 방송산업 기술 발전 SBS 방송 개국
4기	1998~2008	김대중, IMF 시대 노무현 정권	국가 위기 극복 방송 역할 강조 제작 방식의 변화(외주 제작 활성화) 케이블, 위성 채널 다양화
5기	2009~2017	이명박, 박근혜 정권	언론기본법 제정, 시장 방송산업 채택 정부의 언론 간섭 조중동 종편 탄생

2. 다큐멘터리의 기능

다큐멘터리의 기능은 다큐멘터리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코너(Corner, 2002)의 분석유목을 참조하였다. 분석유목은 다음과 같다.

1) 선전기능

정치적으로 대중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발시키기 위한 기능

2) 탐사보도기능

사회정의를 위해 사회비리 및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기능

3) 관찰기능

특정 대상의 본질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능

4) 대안적 기능

선전, 탐사보도, 관찰 기능에 속하지 않은 다른 기능

3. 다큐멘터리의 장르

다큐멘터리의 장르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되고 있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가장 포괄적인 분류 기준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여섯 개로 제시한 김균과 전규찬(2003), 강승엽(2004)의 분석유목을 참조했다. 또한 분석에 앞서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다큐멘터리의 선전적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분류하기 위해 정책 다큐멘터리 장르를 포함하였다. 다큐멘터리 장르에 대한 최종 분석유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다큐멘터리

각종 국가 홍보나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2) 휴먼 다큐멘터리

인간들의 삶을 소재로 잔잔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다큐멘터리

3) 자연 다큐멘터리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이나 환경감시의 메시지를 담은 다큐멘터리

4) 시사 다큐멘터리

정치, 경제, 사회적인 사건이나 관련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5) 문화 다큐멘터리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문화현상들에 주목한 다큐멘터리

6)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적인 사건들을 조명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다큐멘터리

7) 과학 다큐멘터리

일반적인 과학상식 혹은 최첨단 과학기술 등을 전달해 주는 다큐멘터리

4. 다큐멘터리의 장르별 세부주제

장르별 주제는 김균과 전규찬(2003)의 분석유목을 참조했으며, 휴먼 다큐멘터리의 주제 유형의 경우에는 이종수(2002)의 주제 유형을 참조했다. 각 장르별 주제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반공, 새마을, 정권 홍보, 정책 홍보, 기타

2) 시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시사종합, 국제(해외, 북한 등), 기타

3) 휴먼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영웅 중심(유명인), 일반인 중심(보통사람), 휴먼 종합(유명인, 보통사람), 특수대상(장애인, 다문화,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기타

4)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인간 중심, 자연 중심, 환경 중심, 기타

5) 과학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인간, 동식물, 첨단기술, 지구천문학, 의학, 물리학, 기타

6) 역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영웅 중심(유명인), 일반인 중심(보통사람), 유물/유적 중심, 사건 중심, 기타

7) 문화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문명사, 음악, 미술, 문학, 전통문화, 스포츠, 대중문화, 기행, 종교, 기타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1절 한국 다큐멘터리의 내용분석 결과

1.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작 현황

1)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작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작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1기 8건(3.0%), 2기 23건(8.6%), 3기 77건(28.8%), 4기 84건(31.5%), 5기 75건(28.1%)으로 전체 267건이었다. 수상작은 후기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에 들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작

1기	2기	3기	4기	5기	전체
8	23	77	84	75	267
3.0%	8.6%	28.8%	31.5%	28.1%	100.0%

2)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 구분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작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작품상(119건, 44.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우수작품상(87건, 32.6%), 대상(12건, 4.5%), 최우수작품상(11건, 4.1%), 작품상(문공부장관상)(10건, 3.7%), 최우수작품상(대통령상)(8건, 3.0%), 특별상(7건, 2.6%), 외부제작상(6건, 2.2%), 최우수작품상(국무총리상)(3건, 1.1%), 우수작품상(국무총리상)(2건, 0.7%), 작품상(국무총리상), 해외방송(각각 1건, 0.4%) 순으로 <표 5>와 같이 높게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기에서는 작품상(4건, 50.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최우수작품상(대통령상)(2건, 25.0%), 최우수작품상(국무총리상), 작품상(문공부장관상)(각각 1건, 12.5%)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다른 수상내역은 없었다. 2기에서는 작품상(문공부장관상)(9건, 29.1%)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최우수작품상(대통령상)(6건, 26.1%), 작품상(3건, 13.0%), 최우수작품상(국무총리상), 우수작품상(국무총리상)(각각 2건, 8.7%), 작품상(국무총리상)(1건, 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외에 다른 수상내역은 없었다. 3기에서는 우수작품상(54건, 70.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였다. 이어 대상, 최우수작품상, 외부제작상(각각 6건, 7.8%), 특별상(3건, 3.9%), 해외방송(1건, 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수상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4기에서는 작품상(39건, 4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수작품상(33건, 39.3%), 최우수작품상(5건, 60.0%), 특별상(4건, 4.8%), 대상(3건, 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수상내역은 없었다. 5기에서는 작품상(72건, 96.0%)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대상(3건, 4.0%)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수상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초기에 비해 후기로 올수록 다양한 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장 최근인 5기에 들어 수상작의 상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내역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전체
최우수작품상 (대통령상)	2	6	0	0	0	8
	25.0%	26.1%	.0%	.0%	.0%	3.0%
대상	0	0	6	3	3	12
	.0%	.0%	7.8%	3.6%	4.0%	4.5%
최우수작품상 (국무총리상)	1	2	0	0	0	3
	12.5%	8.7%	.0%	.0%	.0%	1.1%
최우수작품상	0	0	6	5	0	11
	.0%	.0%	7.8%	6.0%	.0%	4.1%
작품상 (문공부장관상)	1	9	0	0	0	10
	12.5%	39.1%	.0%	.0%	.0%	3.7%
작품상	4	3	1	39	72	119
	50.0%	13.0%	1.3%	46.4%	96.0%	44.6%
우수작품상	0	0	54	33	0	87
	.0%	.0%	70.1%	39.3%	.0%	32.6%
우수작품상 (국무총리상)	0	2	0	0	0	2
	.0%	8.7%	.0%	.0%	.0%	.7%
작품상 (국무총리상)	0	1	0	0	0	1
	.0%	4.3%	.0%	.0%	.0%	.4%
특별상	0	0	3	4	0	7
	.0%	.0%	3.9%	4.8%	.0%	2.6%
외부제작상	0	0	6	0	0	6
	.0%	.0%	7.8%	.0%	.0%	2.2%
해외방송	0	0	1	0	0	1
	.0%	.0%	1.3%	.0%	.0%	.4%
전체	8	23	77	84	75	2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 언론사

시대별로 어떤 언론사가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MBC지역계열사(78건, 29.2%)가 가장 많은 수상실적을 보여주었다. 이어 KBS(55건, 20.6%), MBC(43건, 16.1%), 지역민방(25건, 9.4%), KBS지역총국(23건, 8.6%), SBS(21건, 7.9%), 외부독립제작사(10건, 3.7%), EBS(9건, 3.4%) 순으로 <표 6>과 같이 높게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1기에서는 KBS(5건, 62.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이어 동양방송(2건, 25.0%), MBC(1건, 1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방송사와 기타 방송사의 수상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기에서는 KBS(13건, 56.5%)가 가장 많았고, 이어 MBC(7건, 30.4%), MBC지역계열사(2건, 8.7%), 동양방송(1건, 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다른 방송사의 수상내역은 없었다. 3기에서는 MBC지역계열사(24건, 31.2%)가 가장 많이 수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뒤를 이어 MBC(17건, 22.1%), KBS(11건, 14.3%), SBS(9건, 11.7%), KBS지역총국, 외부독립제작사(각각 7건, 9.1%), 지역민방(2건, 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기에서는 MBC지역계열사(30건, 35.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뒤를 이어 KBS(13건, 15.5%), SBS(10건, 11.9%), MBC, 지역민방(각각 9건, 10.7%), KBS지역총국(8건, 9.5%), 외부독립제작사(3건, 3.6%), EBS(2건, 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기에서는 MBC지역계열사(22건, 29.3%)가 가장 많은 수상작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지역민방(14건, 18.7%), KBS(1건, 17.3%), MBC(9건, 12.0%), KBS지역총국(8건, 10.7%), EBS(7건, 9.3%), SBS(2건, 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대별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언론사를 살펴본 결과, 초기에는 주로 중앙방송이 수상해오다, 후기로 올수록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지역방송사들의 수상실적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방송대상은 1987년부터 작품상 시상 부문을 확대해서 지역 부문을 신설하고 다시 부문을 보도와 교양 부문으로 나눠 시상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는 중앙 지상파 방송의 규모와 프로그램 질적 차원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지역 방송을 안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 다큐멘터리의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표 6.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 언론사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전체
KBS	5	13	11	13	13	55
	62.5%	56.5%	14.3%	15.5%	17.3%	20.6%
MBC	1	7	17	9	9	43
	12.5%	30.4%	22.1%	10.7%	12.0%	16.1%
SBS	0	0	9	10	2	21
	.0%	.0%	11.7%	11.9%	2.7%	7.9%
동양방송	2	1	0	0	0	3
	25.0%	4.3%	.0%	.0%	.0%	1.1%
EBS	0	0	0	2	7	9
	.0%	.0%	.0%	2.4%	9.3%	3.4%
KBS지역총국	0	0	7	8	8	23
	.0%	.0%	9.1%	9.5%	10.7%	8.6%
MBC지역계열사	0	2	24	30	22	78
	.0%	8.7%	31.2%	35.7%	29.3%	29.2%
지역민방	0	0	2	9	14	25
	.0%	.0%	2.6%	10.7%	18.7%	9.4%
외부독립제작사	0	0	7	3	0	10
	.0%	.0%	9.1%	3.6%	.0%	3.7%
전체	8	23	77	84	75	2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시대별 다큐멘터리의 기능과 장르

1) 시대별 다큐멘터리의 기능

한국 다큐멘터리들은 전체적으로 탐사보도기능(175건, 65.5%)을 가장 많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관찰기능(70건, 26.2%), 선전기능(16건, 6.0%), 대안적 기능(6건, 2.2%) 순으로 <표 7>과 같이 높게 나타났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1기에서는 선전기능(7건, 87.5%)이 가장 많았고, 이어 탐사보도기능(1건, 12.5%)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관찰기능과 대안적 기능은 나타나지 않았다. 2기에서도 선전기능(8건, 34.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찰기능(8건, 34.8%)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어 탐사보도기능(7건, 30.4%)이 등장했으나, 대안적 기능은 확인되지 않았다. 3기에서는 관찰기능(50건, 64.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탐사보도기능(26건, 33.8%), 선전기능(1건, 1.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안적 기능은 수행되지 않았다. 4기에서는 탐사보도기능(72건,

85.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관찰기능(12건, 14.3%)이 등장하였으며, 선전기능과 대안적 기능은 확인되지 않았다. 5기에서는 탐사보도기능(69건, 92.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대안적 기능(6건, 8.0%)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선전기능과 관찰기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한국방송대상 시상을 시작한 초기에는 다큐멘터리의 선전기능을 중시한 반면, 후기로 올수록 다큐멘터리의 대안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시대별 다큐멘터리의 기능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전체
선전기능	7	8	1	0	0	16
	87.5%	34.8%	1.3%	.0%	.0%	6.0%
탐사보도기능	1	7	26	72	69	175
	12.5%	30.4%	33.8%	85.7%	92.0%	65.5%
관찰기능	0	8	50	12	0	70
	.0%	34.8%	64.9%	14.3%	.0%	26.2%
대안적 기능	0	0	0	0	6	6
	.0%	.0%	.0%	.0%	8.0%	2.2%
전체	8	23	77	84	75	2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방송대상 시상을 시작한 초기에는 박정희 정권시대이다. 한국의 경우, 텔레비전은 오락성이 매우 강한 매체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부는 정책 홍보와 국민 계도의 선전적 기능을 수행할 매체로 텔레비전을 주목하였다. 이 시기에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과 정책에 대한 공보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이것은 텔레비전의 오락성에 대한 규제와 함께 다큐멘터리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방송대상은 작품상으로 반공, 새마을, 교양, 보도 부문으로 나뉘어 1979년까지 수상하였다. <우리는 증언한다 6·25>, <근대화100년>, <인간만세 어느 복역인의 영광>, <인간만세 백로들의 합창> 등과 같은 수상작들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되었으며 다큐멘터리의 선전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후기로 들어오면서 다큐멘터리의 대안적 기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생겨나는 다양한 장르의 다큐멘터리의 약진에서 비롯된다. 부산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드라마 재연 방식을 도입해서 제작한 <부산 재발견>, 한식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화면을 구성한 <한·영 수교 130주년 특집-코리아인 푸드 메이드 심플>, 200년 전의 책, 의궤에 기록된 8일간의 축제를 3D

영상으로 복원한 <의례 8일간의 축제>, 4·3사건과 관련된 노래들을 인디밴드에 의해 해석하고 당시 분위기에 맞게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한 <4·3 특별기획 음악 다큐멘터리 산, 들, 바다의 노래>, 과거 유행했던 대중가요들을 통해 부관 연락선, 경부선 철도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 장면들을 되새긴 <노래로 보는 한국근대사>,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대중문화예술인을 음성복원 및 UHD 홀로그램 기술 등으로 되살려 제작한 <환생 2부작> 등과 같은 다큐멘터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들은 초창기의 선전적 기능이나 탐사보도 기능, 관찰적 기능과 달리 대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시대별 다큐멘터리의 장르

한국 다큐멘터리의 장르는 전반적으로 시사(78건, 29.2%)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자연(54건, 20.2%), 휴먼(46건, 17.2%), 문화(43건, 16.1%), 역사(22건, 8.2%), 과학(16건, 6.0%), 정책(8건, 3.0%) 순으로 <표 8>과 같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시대별 다큐멘터리의 장르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전체
정책	4	4	0	0	0	8
	50.0%	17.4%	.0%	.0%	.0%	3.0%
시사	1	6	26	18	27	78
	12.5%	26.1%	33.8%	21.4%	36.0%	29.2%
휴먼	0	1	16	18	11	46
	.0%	4.3%	20.8%	21.4%	14.7%	17.2%
자연	0	4	15	26	9	54
	.0%	17.4%	19.5%	31.0%	12.0%	20.2%
과학	0	3	2	4	7	16
	.0%	13.0%	2.6%	4.8%	9.3%	6.0%
역사	0	1	8	8	5	22
	.0%	4.3%	10.4%	9.5%	6.7%	8.2%
문화	3	4	10	10	16	43
	37.5%	17.4%	13.0%	11.9%	21.3%	16.1%
전체	8	23	77	84	75	2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1기에서는 정책(4건, 50.0%), 문화(3건, 37.5%), 시사(1

건, 12.5%)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휴먼, 자연, 과학, 역사 장르의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에서는 시사(6건, 26.1%), 자연, 문화, 정책(각각 4건, 17.4%), 과학(3건, 13.0%), 휴먼, 역사(각각 1건, 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기에서는 시사(26건, 33.8%)가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뒤를 이어 휴먼(16건, 20.8%), 자연(15건, 19.5%), 문화(10건, 13.0%), 역사(8건, 10.4%), 과학(2건, 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다큐멘터리 관련 수상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기에서는 자연(26건, 31.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시사, 휴먼(각각 18건, 21.4%), 문화(10건, 11.9%), 역사(8건, 9.5%), 과학(4건, 4.8%) 순으로 높게 등장했다. 4기에서도 정책 다큐멘터리 관련 수상작은 없었다. 5기에서는 시사(27건, 36.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이어 문화(16건, 21.3%), 휴먼(11건, 14.7%), 자연(9건, 12.0%), 과학(7건, 9.3%), 역사(5건, 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기에서도 정책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대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 다큐멘터리의 장르는 초기에 비해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 시기에 걸쳐 시사 다큐멘터리가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반면, 후기에서 정책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등장하지 않았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시사 다큐멘터리의 양적인 성장이 확인되었다. <어느 재일동포의 죽음>, <다큐멘터리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월요기획 세계는 무역전쟁>, <특별기획 5부작 한국의 국제경쟁력>, <다큐멘터리 2부작 한국탐구>, <연중기획 14부작, 노벨상에 도전한다>, <월요기획 신한강의 기적> 등과 같은 다큐멘터리들은 주로 국가 발전을 위한 한국 사회의 경쟁력과 한국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민족적 자긍심을 부각시키고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3기(1988~1997년)에서는 <연속해외기획 세계의 민주주의 5부작>, <창사특집 웨스트포피아>, <해외취재 농업이 가는 길>, <자본주의 100년, 한국의 선택>, <6·25특집 내가 겪은 공화국>, <푸른일기>, <향토기획 이 땅 사람들>, <어린이날 특집다큐멘터리 요즘 아이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방송 내일을 연다>, <베트남전쟁 그 후 17년>,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XX9716 그랜저>, <카리브해의 고도 쿠바>, <대전환 21>, <선진교통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빨간불 파란불>, <쌀>, <세계는 지금>, <1318 힘을 내>, <PSB 해양특집>, <다큐멘터리 마약, 그 시작과 끝>, <KBS일요스페셜 지금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음주문화, 이대로는 안된다>, <PD수첩 사기피해로 쓰러지는 조선족사회>, <월양개척40년 오대양에 타오르는 불꽃>, <두만강 따라 백삼십리, 아 나의 동포여 우리 산하여>, <KBS일요스페셜 731부대는 살아있다> 등이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하

였으며, 다른 시기에 비해 비교적 많은 시사 다큐멘터리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시기에 시사 다큐멘터리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90년에 MBC <PD수첩>이 당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갈등을 냉정히 점검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김균·전규찬, 2003). 당시의 PD수첩은 범죄 및 비리 관련 소재와 노동 관련 소재 등 주로 사회문제를 다루었다.

4기(1998~2008년)에서 시사 다큐멘터리는 <시사매거진 2580>, <영광굴비>, <1997 한국 농촌 어린왕자>, <시사매거진 2580 사상누각 신공항/고발 후>, <지구촌 자전거시대>, <2000년 한민족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미국 10부작>,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7부작>, <수요기획 정신질환자 8%시대 행복공동체로 가는 길>, <KBS스페셜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 <PD수첩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 <떠날 수 없는 섬>, <시사기획 씬 김앤장을 말한다>, <우리 시대의 기록 0번버스 이야기>, <추적60분 특별기획 스쿨존이 위험하다>, <위험한 질주 전남F1>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시기의 특성은 사회 복지, 교통문제, 환경문제, 아동 및 여성과 같은 소수자 문제 등 이전에는 잘 다루지지 않았던 소재가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문민정부 수립 이후, 사회적 관심이 사람들의 삶의 질 문제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5기(2009~2017년)에 들어오면서 <소비자고발 90회 충격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 검출>,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1편>, <특집4부작 2010지방자치보고서>, <설날 특집 新부자학>, <교육대기획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 <시사매거진 2580 믿기지 않은 구타사건>, <SBS뉴스추적 충격실태 국가시험이 샌다>, <무연고사회>, <특별기획 김정일 3부작>, <바닷가 암마을의 진실은?>, <시사매거진2580 의문의 형집행정지>, <EBS다큐프라임-자본주의>, <대기획 최후의 제국>, <2013차이나리포트>, <부산재발견>, <시사기획 창 고위공직자 재취업 보고서, 공생의 세계>, <시사플러스 어느 AS기사의 죽음>, <시사기획 창 해외부동산 추적보고서>, <농촌탐구생활 뭘니까?>, <시사기획 창 중국, 동해를 삼키다>, <시사기획 창 2016정치개혁>, <세월호 참사2주기 특집다큐-아버지의 목소리>,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가슴기 살균제>,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진실>, <시사진단 캐 잠입취재,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시사매거진 2580>, <시사진단 창>, <시사진단 캐>,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지상파 방송사의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비리 고발, 해외 경제 문제, 소비자 고발, 정치개혁, 대형사건 추적 등이 주요 소재로 다루어졌다. 또한 EBS가 교육과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시사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교육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3) 다큐멘터리의 장르에 따른 다큐멘터리의 기능

다큐멘터리의 기능은 선전적 기능, 탐사보도 기능, 관찰적 기능, 대안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의 <표 9>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장르별로 어떤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시사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탐사보도기능(71건, 92.2%)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관찰기능(4건, 5.2%), 선전기능, 대안적 기능(각각 1건, 1.3%)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휴먼 다큐멘터리에서도 탐사보도기능(26건, 56.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관찰기능(41.3%), 선전기능(1건, 2.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안적 기능을 강조한 다큐멘터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는 탐사보도기능(30건, 55.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관찰기능(24건, 44.4%) 또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선전기능과 대안적 기능의 다큐멘터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학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탐사보도기능(13건, 81.3%)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관찰기능(2건, 12.5%), 선전기능(1건, 6.3%)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 다큐멘터리에서는 탐사보도기능(13건, 56.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관찰기능(7건, 30.4%), 대안적 기능(2건, 8.7%), 선전기능(4.3%)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문화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탐사보도기능(22건, 51.2%)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관찰기능(14건, 32.6%), 선전기능(4건, 9.3%), 대안적 기능(3건, 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 다큐멘터리에서는 선전기능이 유일하게 8건 등장하였으며, 이외에 다른 기능을 강조한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정책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모든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탐사보도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반면, 시사 다큐멘터리와 역사, 문화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대안적 기능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선전기능이 유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에서 많이 나타나는 다큐멘터리의 탐사보도기능은 방송의 공공저널리즘 실현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탐사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다큐멘터리는 주로 시사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시사적인 사건이나 현안의 원인과 배경, 사회적 의미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그 사안의 사회적 의미와 맥락을 밝히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이익과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개혁 내지 변화가 필요한 숨겨져 있는 사건이나 정보를 심층적으로 폭로하는 공공저널리즘의 정신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마다 <추적 60분>, <일요스페셜>, <PD 수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기획 창>, <시사매거진 2580> 등 타이틀은 다르지만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정규적으로 제작해서 편성해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다큐멘터리도 이런 공공저널리즘의 맥락 속에서 탐사보도적 기능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다큐멘터리 장르에 따른 다큐멘터리의 기능

구분	선전기능	탐사보도기능	관찰기능	대안적 기능	전체
정책	8	0	0	0	8
	100.0%	.0%	.0%	.0%	100.0%
시사	1	72	4	1	78
	1.3%	92.3%	5.1%	1.3%	100.0%
휴먼	1	26	19	0	46
	2.2%	56.5%	41.3%	.0%	100.0%
자연	0	30	24	0	54
	.0%	55.6%	44.4%	.0%	100.0%
과학	1	13	2	0	16
	6.3%	81.3%	12.5%	.0%	100.0%
역사	1	12	7	2	22
	4.5%	54.5%	31.8%	9.1%	100.0%
문화	4	22	14	3	43
	9.3%	51.2%	32.6%	7.0%	100.0%
전체	16	175	70	6	267
	6.0%	65.5%	26.2%	2.2%	100.0%

3. 시대별 장르별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1) 시대별 정책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정책 다큐멘터리의 수상작은 전기에서만 등장했고, 후기에는 수상작이 없었다. 정책 다큐멘터리는 반공, 새마을, 정권 홍보, 정책 홍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표 10>과 같이 반공(3건, 37.5%)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이 등장했고, 이어 새마을, 정책 홍보(각각 2건, 25.0%), 정권 홍보(1건, 12.5%) 순으로 많았다.

시대별 정책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살펴본 결과, 1기에서는 <인간만세 어느

북역인의 영광>, <인간만세 백로들의 합창>으로 새마을(2건, 50.0%)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수상작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우리는 증언한다 6·25>, <근대화 100년>으로 반공과 정권 홍보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각각 1편씩 등장했다. 2기에서는 <특별기획 휴전선 155마일>, <다큐멘터리 비록 6·25>, <보도특집 석유 더 아낄 수 없나>, <월요기획 신한강의 기적>으로 반공과 정책 홍보를 다룬 다큐멘터리 각각 2개의 작품(50.0%)이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기에서 정책 다큐멘터리 관련 수상작은 등장하지 않았다.

시대별 정책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초기에 주로 정권을 홍보하거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들이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하였으나, 이후 정책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등장하지 않았다.

표 10. 시대별 정책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구분	1기	2기	전체
반공	1	2	3
	25.0%	50.0%	37.5%
새마을	2	0	2
	50.0%	.0%	25.0%
정권 홍보	1	0	1
	25.0%	.0%	12.5%
정책 홍보	0	2	2
	.0%	50.0%	25.0%
전체	4	4	8
	100.0%	100.0%	100.0%

2) 시대별 휴먼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휴먼 다큐멘터리의 수상작은 후기로 올수록 그 수가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주제들은 유명인이나 영웅, 보통 사람으로 일반인 중심, 유명인과 보통사람들이 함께 출연하는 휴먼 종합, 장애인이나 다문화,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다루는 특수대상으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들 휴먼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특수대상(26건, 56.5%)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그 뒤를 이어 일반인 중심(15건, 32.6%) 다큐멘터리, 영웅 중심(4건, 8.7%), 휴먼종합(1건, 2.2%) 순으로 <표 11>과 같이 높게 나타났다.

시대별로 휴먼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확인한 결과, 1기에서는 단 한건의 수상작도 등장하지 않았다. 2기에서는 영웅 중심의 다큐멘터리 1건이 유일하게 확인되

었다. 3기에서는 특수대상(12건, 75.0%)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반인 중심(3건, 18.8%), 영웅 중심(1건, 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기에서는 일반인 중심(9건, 50.0%)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특수대상(6건, 33.3%), 영웅 중심(2건, 11.1%), 휴먼종합(1건, 5.6%)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5기에서는 특수대상(8건, 72.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인 중심(3건, 27.3%)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웅 중심 다큐멘터리와 휴먼종합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휴먼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주제 측면에서는 다소 다양해지다 후기로 올수록 다소 편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시대별 휴먼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구분	2기	3기	4기	5기	전체
영웅 중심 (유명인)	1	1	2	0	4
	100.0%	6.3%	11.1%	.0%	8.7%
일반인 중심 (보통사람)	0	3	9	3	15
	.0%	18.8%	50.0%	27.3%	32.6%
휴먼종합 (유명인, 보통사람)	0	0	1	0	1
	.0%	.0%	5.6%	.0%	2.2%
특수대상 (장애인, 다문화,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0	12	6	8	26
	.0%	75.0%	33.3%	72.7%	56.5%
전체	1	16	18	11	46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으로 휴먼 다큐멘터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3기(1988~1997년) 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인간만세 어느 복역인의 영광>, <인간만세 백로들의 합창>와 같은 휴먼 다큐멘터리가 나타났지만 이는 국가적 근대화 프로젝트와 연관된 사회 발전의 차원으로 다뤄 한국방송대상 새마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다루었다. 3기 수상작으로는 <월요기획 엄마의 자리>, <인간시대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어린이날 특집 소년소녀가장 협동캠프. 날아라 새들아>, <6·25특집다큐멘터리 76인의 포로들>, <사랑의 징검다리 장애체험등반>, <늬기도 서러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눈먼 새의 노래>, <소록도의 봄>, <세상체험 아빠와 함께 시각장애를 딛고 꿈의 농구장으로>, <밀항탈출>, <높고 깊은 사랑> 등이 있으며, 장애인, 다문화, 소년소녀가장 등 주로 소외계층을 다루고 있다.

4기(1998~2008년)에는 <이용운 일가의 북한탈출>, <98 기아체험 24시간>, <체험 삶의 현장>, <압록강에서 만난 사람들>, <MBC다큐스페셜 구원이의 새해소원>,

<그것이 알고 싶다. 국군포로 장무환 50일간 기록>, <일요스페셜 교실이야기>, <그 오두막엔 여든 네 살 청년이 산다>, <MBC스페셜 어머니 그 위대한 이름으로>, <인간극장 친구와 하모니카>,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아 소록도>,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나는 세상을 노래했다 작곡가 박시춘 2부작>, <아흔넷 불효자의 사부곡>,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회아>, <행복한 작은 학교 365일의 기록 3부작> 등으로 인간애나 박애정신으로 사회적 공헌과 봉사를 한 사람이거나 북한 주민들의 삶,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일상적 개인의 삶을 드라마화한 이야기들이 보통사람들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5기(2009~2017년)에서는 <러브 인 아시아>, <다문화 희망프로젝트 무지개교실, 300일간의 행복실태>, <설날기획-지리산 와운골, 아버지의 유산>, <코피노 소년, 킹리>, <파노라마 가정의 달 특집 -보이지 않는 아이들>, <거위의 꿈, 날개>, <아버지의 일기장>,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9부작>, <그리운 이름 고향, 살암시냇>, <휴먼다큐 사랑>, <나의 이름은 신성혁>, <풍정 라디오>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다문화 가정, 장애인, 이주민, 그리고 해체되어가는 가족 간의 사랑을 강조하거나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는 극적인 삶이나 상황의 주인공, 평범한 보통사람의 일상사, 그리고 개인적 삶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방송대상에서는 1993년부터는 작품상으로 특수대상 부문을 신설하였고 2010년부터는 특수대상 부문을 사회 공익 부문으로 변경해서 시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작품상으로 어린이·청소년 부문을 신설해서 시상해오고 있다.

3) 시대별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자연 다큐멘터리의 수상작은 후기로 올수록 증가하다가 최근에 들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바다, 강, 산, 동식물의 일기 등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화면에 담아내는 자연 중심, 환경파괴로 인해 생태적 위기에 처한 지구의 실상과 황폐화되어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환경 중심, 그리고 자연을 위해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12>와 같이 전체적으로 환경 중심(29건, 53.7%)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자연 중심(21건, 38.9%), 인간 중심(4건, 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2. 시대별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구분	2기	3기	4기	5기	전체
인간 중심	0	1	2	1	4
	0%	6.7%	7.7%	11.1%	7.4%
자연 중심	4	7	7	3	21
	100.0%	46.7%	26.9%	33.3%	38.9%
환경 중심	0	7	17	5	29
	0%	46.7%	65.4%	55.6%	53.7%
전체	4	15	26	9	54
	100.0%	100.0%	100.0%	100.0%	100.0%

시대별로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확인한 결과, 1기에서는 단 한건의 수상작도 확인되지 않았다. 2기에서는 <기획다큐멘터리 한국야생화의 4단계>, <기획다큐멘터리 한국의 나비>, <자연 다큐멘터리 지리산의 4계>, <자연 다큐멘터리 풀벌의 세계>로 자연 중심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4건이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인간 중심, 환경 중심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등장하지 않았다. 3기에서는 <자연 다큐멘터리 천적의 세계>, <특집다큐멘터리 갈대>, <영남시대 독도는 살아있다>, <모래톱에 새겨진 충혼>, <일요리포트 제주바다 백색공포>, <소백산의 야생식물>, <운명의 산 낭가파르밧>, <갯벌은 살아있다>, <낙동강1300리>, <철원 민통선 철재의 비상>, <버섯, 그 천의 얼굴>, <생명체의 요람 제주바다 조간대>, <생태보고 팽이갈매기>, <체험 세계의 오지 탐탐, 그 영혼의 소리>, <어미새의 사랑> 등으로 자연중심, 환경 중심(각각 7건, 46.7%)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였고, 이어 인간 중심(1건, 6.7%) 주제 순으로 나타났다. 4기에서는 <황소개구리>, <해양생물의 보고 바위해안>, <바다의 무법자 불가사리>, <황사>, <우포늪을 지킵시다. 21세기 자연사박물관>, <KBS환경스페셜 생명탐험 모래>, <신두리 사구>, <지리산이 죽어간다>, <해풍>, <2004 신년대기획 환경의 역습>, <바다의 날 특집다큐멘터리 해안 2부작>, <한반도 환경대재앙 산샤댐>, <SBS스페셜 환경호르몬의 습격> 등으로 환경 중심(17건, 65.4%)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자연 중심(7건, 26.9%), 인간 중심(2건, 7.7%)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5기에서도 <북극의 눈물>,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끝나지 않은 재앙>, <아마존의 눈물>, <잊혀진 재앙>, <4부작 모래의 역습> 등으로 환경 중심(5건, 55.6%) 주제의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연 중심(3건, 33.3%), 인간 중심(1건, 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대별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초기에는 등장하지 않다 후기로 올수록 다양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시대별 시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시사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후기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다양한 주제가 혼합된 시사종합, 해외, 북한 등 국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시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30건, 39.0%)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었다. 이어 시사종합(18건, 23.4%), 국제(16건, 20.8%), 경제(7건, 9.1%), 정치(3건, 3.9%), 교육(2건, 2.6%), 문화(1건, 1.3%) 순으로 <표 12>와 같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 시대별 시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전체
정치	0	0	0	1	2	3
	0%	0%	0%	5.6%	7.4%	3.8%
경제	0	2	3	0	3	8
	0%	33.3%	11.5%	0%	11.1%	10.3%
사회	0	1	8	4	17	30
	0%	16.7%	30.8%	22.2%	63.0%	38.5%
문화	0	0	0	1	0	1
	0%	0%	0%	5.6%	0%	1.3%
교육	0	0	1	0	1	2
	0%	0%	3.8%	0%	3.7%	2.6%
시사종합	0	2	4	9	3	18
	0%	33.3%	15.4%	50.0%	11.1%	23.1%
국제 (해외, 북한 등)	1	1	10	3	1	16
	100.0%	16.7%	38.5%	16.7%	3.7%	20.5%
전체	1	6	26	18	27	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대별로 살펴보면, 1기에서는 <보도특집 북극을 가다>로 국제 주제를 다룬 수상작 한 건이 유일했다. 2기에서는 <특별기획 5부작 한국의 국제경쟁력>, <다큐멘터리 2부작 한국탐구> 등 경제, 시사종합(각각 2건, 33.3%)을 다룬 주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이어 사회, 국제(각각 1건, 16.7%) 주제가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 문화, 교육을 다룬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기에서는 <연속해외기획 세계의 민주주의 5부작>, <해외취재 농업이 가는 길> 등 국제

(10건, 38.5%)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수상작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회(8건, 30.8%), 시사종합(4건, 15.4%), 경제(3건, 11.5%), 교육(1건, 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 주제를 다룬 수상작은 없었다. 4기에서는 <2000년 한민족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7부작> 등으로 시사종합(9건, 50.0%)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수상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뒤를 이어 사회(4건, 22.2%), 국제(3건, 38.5%), 정치, 문화(1건, 5.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와 교육을 다룬 수상작은 없었다. 5기에서는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1편>, <시사매거진 2580 믿기지 않은 구타사건>, <시사매거진 2580 의문의 형집행정지> 등으로 사회(17건, 65.4%)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한국방송대상을 가장 많이 수상하였으며, 이어 시사종합(3건, 11.5%), 정치, 경제(각각 2건, 7.7%), 교육, 국제(각각 1건, 3.8%) 순서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문화를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시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초기에 비해 후기로 올수록 보다 그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시대별 역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역사 다큐멘터리의 수상작은 후기로 올수록 증가하다가 최근에 들어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 다큐멘터리의 세부 주제는 유명인이나 영웅 중심, 보통 사람들로 일반인 중심, 유물이나 유적 중심, 역사적 사건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역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유물/유적 중심(10건, 45.5%), 사건 중심(9건, 40.9%) 주제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영웅 중심(2건, 9.1%), 일반인 중심(1건, 4.5%) 순으로 <표 14>와 같이 높게 나타났다.

시대별로 역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살펴본 결과, 1기에는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수상작이 단 한건도 없었다. 2기에서는 <역사 다큐멘터리 가야>로 유물/유적 중심 다큐멘터리 수상작 1건이 유일하게 확인되었다. 3기에서는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다큐멘터리 동학농민전쟁>, <역사에의 초대 임진왜란>, <왕도의 비밀> 등으로 사건 중심(4건, 50.0%) 주제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신라>, <잃어버린 탐라천년>으로 유물/유적 중심(2건, 25.0%), <충청 오늘과 내일 백야 김좌진>, <한민족 러시아 유민사>로 영웅 중심, 일반인 중심(각각 1건, 1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기에서는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마한>, <금

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특별기획 위대한 여정 한국어> 등 유물/유적 중심(5건, 62.5%) 역사 다큐멘터리 수상작이 가장 많았고, 이어 <탐라몽골 백년비사 바다를 건넌 제국>, <4·3특별다큐멘터리 섬을 떠난 사람들>, <KBS·NHK 공동기획2부작 조선통신사>로 사건 중심(3건, 37.5%) 다큐멘터리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영웅 중심, 일반인 중심 역사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5기에서는 <국치100+1, 해방되지 못한 영혼 조선여자근로정신대>, <4·3특별기획 산, 들, 바다의 노래> 등 사건 중심(2건, 40.0%) 역사 다큐멘터리 수상작과 <의례 8일간의 축제>, <구텐베르그 고려를 훔치다> 등 유물/유적 중심(2건, 40.0%), <시대의 벽을 넘은 여성>을 다룬 영웅 중심(1건, 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후기로 올수록 그 주제의 다양성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물/유적과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일반인 중심의 역사 다큐멘터리는 단 1편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후기로 올수록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시대별 역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구분	2기	3기	4기	5기	전체
영웅 중심 (유명인)	0 0%	1 12.5%	0 0%	1 20.0%	2 9.1%
일반인 중심 (보통사람)	0 0%	1 12.5%	0 0%	0 0%	1 4.5%
유물/유적 중심	1 100.0%	2 25.0%	5 62.5%	2 40.0%	10 45.5%
사건 중심	0 0%	4 50.0%	3 37.5%	2 40.0%	9 40.9%
전체	1 100.0%	8 100.0%	8 100.0%	5 100.0%	22 100.0%

6) 시대별 문화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문화 다큐멘터리의 수상작은 후기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문화 다큐멘터리의 세부 주제는 음악, 미술, 문학, 전통문화, 대중문화, 기행, 종교 등으로 나눠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문화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통문화(23건, 53.5%)를 다룬 문화 다큐멘터리 수상작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행(7건, 16.3%), 음악(5건, 11.6%), 대중문화(4건, 9.3%), 미술(2건, 4.7%), 종교(1건, 2.3%) 순으로 <표 15>와 같이 높게 확인되었다.

표 15. 시대별 문화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전체
음악	0	1	1	1	2	5
	0%	25.0%	10.0%	10.0%	12.5%	11.6%
미술	0	0	0	2	0	2
	0%	0%	0%	20.0%	0%	4.7%
문학	0	0	1	0	0	1
	0%	0%	10.0%	0%	0%	2.3%
전통문화	3	3	5	4	8	23
	100.0%	75.0%	50.0%	40.0%	50.0%	53.5%
대중문화	0	0	1	0	3	4
	0%	0%	10.0%	0%	18.8%	9.3%
기행	0	0	2	3	2	7
	0%	0%	20.0%	30.0%	12.5%	16.3%
종교	0	0	0	0	1	1
	0%	0%	0%	0%	6.3%	2.3%
전체	3	4	10	10	16	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대별 문화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확인한 결과, 1기에서는 <한국의 미>, <한국의 재발견 초분>, <한국불교문화의 원류를 찾아서>로 전통문화를 다룬 문화 다큐멘터리 3작품이 유일하게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악, 미술, 문학, 대중문화, 기행, 종교 등 다른 작품을 다룬 수상작은 없었다. 2기에서는 <특집다큐멘터리 석남사>, <월요기획 신라의 신비>, <가야문화의 전수현장> 등으로 전통문화(3건, 75.0%)를 다룬 수상작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어린이 특별기획 우리 동요 60년 3부작>으로 음악(1건, 25.0%)을 다룬 문화 다큐멘터리 수상작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세부주제를 다룬 수상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기에서는 <팔만대장경>, <직지>, <혼의 소리 그 고향을 찾아서> 등으로 전통문화(5건, 50.0%)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사창립특집 양자강>, <문화대탐험 아시아4만Km>로 기행(2건, 20.0%), <러시아 동구의 문학과 예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계영화기행>으로 음악, 문학, 대중문화(각각 1건, 10.0%)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수상작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미술, 종교 관련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없었다. 4기에서도 <기둥에서 문살까지>, <세계문화유산 판소리 2부작>, <도자기>, <산조 2부작>으로 전통문화(4건, 40.0%)를 다룬 다큐멘터리 수상작이 가장 많았고, 이어 <몽골리안 루트>, <황하>, <차마고도>, <새천년의 빛 한국의 전통색>, <하늘의 열림, 땅의 울림 북 2부작>, <나는 가요 도쿄 제2학교의 여름>으로 기행(3건, 30.0%), 미술(2건, 20.0%), 음악(1건, 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중문화와 종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없었다. 5기에서는 <제주문화상징

100선>, <HD해양기획 5부작 배(船)>, <천년의 향, 우리 누룩 3부작>, <경술국치백 돌 특별기획 우리 이름 가는 길을 묻다>, <대장경 천년특집 4부작 다르마>, <한국의 유산>, <아름다운 음식 한과>로 전통문화(8건, 50.0%)를 다룬 수상작이 가장 많았고, 이어 <누들로드>, <문명다큐멘터리 페이퍼로드 6부작>, <다큐프라임 음악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가?>, <노래로 보는 한국근대사>, <무문관>, <넓은 집, 도시 근대건축물 생태보고서>, <환생 2부작> 등으로 대중문화(3건, 18.8%), 음악, 기행(각각 2건, 12.5%), 종교(1건, 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술과 문학을 다룬 수상작은 없었다.

시대별 문화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후기로 올수록 그 주제가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전통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수상작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대중문화, 기행, 종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수상작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7) 시대별 과학 다큐멘터리의 세부 주제

과학 다큐멘터리의 수상작은 후기로 올수록 증가하다가 다소 감소했으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과학 다큐멘터리의 세부 주제는 인간, 동식물, 첨단기술, 지구천문학, 의학 등으로 나뉘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과학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의학(6건, 37.5%)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인간(4건, 25.0%), 동식물, 첨단기술, 지구천문학(각각 2건, 12.5%) 순으로 <표 16>과 같이 높게 나타났다.

과학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1기에서는 과학 다큐멘터리 분야의 수상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기에서는 <월요기획 세계는 디자인혁명시대>, <신왕오천축국전 헤초의 발길 따라>로 첨단기술(2건, 66.7%)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이어 <특집기획 조국의 산하를 바로 잡는다>로 지구천문학(1건, 33.3%)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간, 동식물, 의학 주제의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없었다. 3기에서는 <오로라 탐험과정-여기는 북극점>, <영상기록병원24시>로 지구천문학, 의학 주제의 과학 다큐멘터리 각각 1편이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기에서는 <생명의 기적>, <잘 먹고 잘사는 법>, <아기 성장보고서 5부작>, <생로병사의 비밀>로 인간과 의학 주제의 다큐멘터리 각각 2편이 과학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으며, 동식물, 첨단기술, 지구천문학을 다룬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기에서는 <명의 병이 되는 잠-밤새 안녕하십니까>, <메디컬24시 닥터스>, <최후의 희망, 권역외상센터

편>으로 의학(3건, 42.9%)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TV메디컬 약손-대한민국 최초 두뇌음식프로젝트>, <사이언스대기획 인간탐구 3부작-지역>, <육식의 반란- 마블링의 음모, 분노사슬>, <다큐프라임 진화의 신비 독 4부작>으로 인간과 동식물(각각 2건, 28.6%)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큐프라임 넘버스>는 수학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표 16. 시대별 과학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구분	2기	3기	4기	5기	전체
인간	0	0	2	2	4
	0%	0%	50.0%	28.6%	25.0%
동식물	0	0	0	2	2
	0%	0%	0%	28.6%	12.5%
첨단기술	2	0	0	0	2
	66.7%	0%	0%	0%	12.5%
지구천문학	1	1	0	0	2
	33.3%	50.0%	0%	0%	12.5%
의학	0	1	2	3	6
	0%	50.0%	50.0%	42.9%	37.5%
전체	3	2	4	7	16
	100.0%	100.0%	100.0%	100.0%	100.0%

과학 다큐멘터리 세부주제는 초기에는 첨단기술, 지구천문학을 주로 다루어오다, 후기에 들어서면서 인간, 동식물 등의 주제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학 주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기에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절 한국 다큐멘터리 수상작 제작 PD 심층 인터뷰 결과

다큐멘터리의 제작 전략은 얼마나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완성도는 아이템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또는 얼마나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지향하면서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그 욕구를 자극시키고 있는가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에 따라 재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를 위한 구성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사실(facts)을 바탕으로 하는 장르 특성으로 현장 촬영을 통한 영상 미학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큐

멘터리는 상상이 아닌 실재하는 사람, 행동, 장소 그리고 사건 속에 담겨진 가치를 탐구하여 영상언어로 전달하는 진실의 형상화 작업이기 때문에 영상과 언어적 사건의 유기적 구성을 추구하는 편집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다큐멘터리는 주제, 구성, 촬영, 편집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의 작품으로서 최종 완성도가 결정된다.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한국방송대상 수상작들은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게 평가되어 선정된 다큐멘터리들이다. 다큐멘터리는 같은 주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제작 PD의 제작 능력과 제작 전략에 따라 천차만별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을 제작한 PD들의 제작 전략을 장르별로 파악하였다.

1. 정책 및 역사 다큐멘터리의 태동과 제작 전략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제작한 것은 1967년부터이다. 그러나 좌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이에 필름을 삽입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게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 <잘살아보세>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1968년부터 선보인 <인간승리>는 나름 진일보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처음에는 좌담과 곁들여 방송했으나 회를 거듭하면서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 프로그램은 훗날 역경을 이겨내며 인간 승리의 절정에 도달하는 과정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노정팔, 1995).

“이게 1976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편성에 정부의 입김이 더 지금보다 강하고 직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시장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아예 자기네들이 8시대에다가 정책 프로들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당시 김성진 문공부장관이 월, 화, 수, 목, 금 8시 시간대에 편성을 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이죠. 그럼 월요일 첫 프로는 반공, 화요일은 새마을, 수요일은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KBS, MBC, TBC가 각 사별로 타이틀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승리, 인간만세 등등으로...” (장윤택 PD)

1972년 11월에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대 편성지침 등으로 편성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유신헌제의 방송정책은 결국 통제의 강화를 통해 방송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적극 동원하려는 의도였다. 방송 심의 기구 등의 체계적인 규제 기구를 통해 편성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법외적 개입도 정당화했다(최창봉·강현두, 2001).

1976년에는 당시 방송 3국(KBS, MBC, TBC²³)의 시청률 경쟁으로 심화된 저질

오락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문화공보부는 프로그램의 건전화를 기하고 교육적·계몽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방송 3국에 TV프로그램의 편성을 변경하도록 행정적 협조 요청을 하였다. 당시 주간편성표를 보면, 6시대 <어린이 프로>, 7시 <뉴스>, 7시 20분-8시 <가족시간대>, 8시-8시 20분 <정책 프로>, 8시 25분 <일일연속극>, 9시 <뉴스>, 9시 25분 <일일연속극>, 10시 <쇼, KBS는 연속극> 10시 30분 <심야프로> 형태로 방송사 3사 모두에서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1978년 한국방송대상 다큐멘터리 부문 새마을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TBC 인간만세 어느 복역인의 영광>도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탄생하였다.

“정부에서 교도행정을 하는 윤 계장이 사무실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있다는 겁니다. 일 다니던 곳에 돈 받으러 갔다가 싸움이 나서 살인죄로 복역 중인 애가 있는데 기능을 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다는 것이예요. 애를 주인공으로 해서 다큐멘터를 만들라는 겁니다. 재소자들의 재범 비율이 높는데 그걸 개선할 방법으로 기능 교육을 부각시켜야 한다면 서…” (장윤택 PD)

부르디외(Bourdieu)의 장(Field) 이론에 따르면, 매체생산자들은 사회적, 조직적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실천하는 능동적인 사회적 행위자라는 것을 제시한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도 제작자들의 주관성 속에 내재된 아비투스(habitus)를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한다. 국가의 정책 홍보 프로그램이지만 국가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매체 생산이 단순히 정치권력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장윤택 PD는 방송 이후 교도행정 측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당시 재소자 기능교육이 열배로 늘어났다면 어떤 기업에서는 재소자 몇 백 명을 아예 취업시켰다는 제작 후일담을 소개했다. 이렇듯 당시에는 문공부의 소관 아래 방송사의 편성 및 프로그램 제작이 철저하게 통제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정치적 통제 체제 아래서 방송 산업은 역설적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경제 성장에 따른 광고 시장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방송사의 수입은 날로 증대되었고, 이러한 광고 수입을 놓고 방송사간의 상업적 경쟁은 매우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다큐멘터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3) TBC : 동양방송, 1964년 서울에서 개국되었던 민영방송으로 중앙일보사가 경영. ‘보다 빨리, 보다 널리, 보다 풍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화·자유·번영을 구가하는 명량한 민주사회의 건설, 신속하고도 정확한 보도진달과 올바른 여론조성으로 민주언론창달, 건진하고 명량한 연예오락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활기를 주고, 상공업계와 국민간의 교량적 임무에 충실하여 산업경제 부흥과 소비대중의 복지향상을 추구한다.”는 방송목표로 설정. 1980년 12월 언론기관 통폐합조치로 KBS로 흡수 통합됨.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 JTBC로 부활함.

“당시에 교양 피디들은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어 했죠. 거기에 말하자면 역사 스페셜, 환경 스페셜, 그런 프로를 하고 싶어 했어요. 최근에 KBS에서 사장으로 추천 받아 공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다 무슨 스페셜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만큼 다큐멘터리 스페셜을 했다는 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페셜을 주말 8시 시간대에 편성해서 상대사 드라마를 이기는 걸 보면서, 당시에는 사회 공익에 노력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방송으로서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내세워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겼어요… 그 후 우리를 본 따 MBC스페셜, EBS스페셜들이 나오게 되었고…” (장유탉 PD)

교양 제작물이 드라마와 편성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정규편성물로 다큐멘터리가 드라마보다 높은 시청률을 점유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당시 KBS의 스페셜 시리즈는 편당 2,500만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자받고 PD들의 열정으로 다큐멘터리 전성기를 누리면서 한국방송대상을 휩쓸었다. <일요스페셜>, <환경스페셜>, <역사스페셜> 등이 대표작으로 정규 편성되고, 이러한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과 제작비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범위를 아시아로 확장하면서 대하 기획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큰 규모의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 시대에 K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가운데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다큐멘터리 주제는 6·25에 관한 것이다. 그간 KBS는 꾸준히 역사 다큐멘터리로서 6·25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으며, <우리는 증언한다. 6·25(1976)>, <특별기획 휴전선 155마일(1982)>, <다큐멘터리 비록 6·25(1982)>, <다큐멘터리 10부작 한국전쟁(1990)> 등은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하였다. KBS 6·25 시리즈 다큐멘터리는 주로 강대영 PD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른바 실록다큐멘터리로서 사건 당시의 영상을 활용한 구성과 편집으로 몰입도와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기록 자료로써 귀중한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강대영 PD는 미국 내셔널아카이브에 있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필름들을 구입해서 한국 방송 최초로 전쟁 당시의 실상과 기록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어쨌든 우리 의도는 정통 역사, 통사였어요. 우리 제작진에게는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떻게 끝났나 등을 밝히고자 하는 공동의 제작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느 한 시대에만 통용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시대나 관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과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대보다 미래의 세대를 위한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을 제작하자…” (강대영 PD)

<KBS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은 객관적인 통사를 지향했다. 관점이나 시각이 개입

하지 않고 매우 사실적인 편년체 기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KBS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은 한국전쟁 발발 40주년인 1990년 6월 18일 월요일 밤 10시 제1편 <분단>을 시작으로, 제2편 <남과 북>, 제3편 <전쟁의 시그널>, 제4편 <폭풍>, 제5편 <북진>이 금요일까지 매일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5일부터 제6편 <또 다른 전쟁>, 제7편 <협상의 비탈>, 제8편 <후방전쟁>, 제9편 <휴전>, 제10편 <에필로그-반성> 등 총 10부작이 매일 같은 시간대에 KBS 1TV에서 연속 방송되었다. 당시 한국갤럽 시청률 조사에 따르면, 평균 시청률은 14.7%, 시청점유율은 20.2%를 기록했다. 상대 방송사가 드라마 편성 시간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선전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 참혹한 전쟁을 세계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만큼 극동의 작은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덜했죠. 제가 1968년에 KBS,에 입사했는데, 그 무렵 KBS에서 <제2차 세계대전사>를 시리즈로 방송했어요. 영국의 템스사가 제작한 건데 26부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엄청난 감동을 하였습니다. 역사에 대한 진지한 접근, 담담한 톤의 내레이션, 충실한 자료와 증언이며 타이틀 애니메이션 그리고 시그널 뮤직에 이르기까지 완벽했어요. 그 당시에는 방송국이 남산에 있을 때인데, 저녁이면 총무로 대폿집에서 언제 우리가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술안주로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꿈이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을 잉태하지 않았나 생각해요.”(강대영 PD)

강대영 PD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서 ‘역사에 대한 진지한 접근’, ‘담담한 톤의 내레이션’, ‘충실한 자료와 증언’ 등 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했다고 밝혔다. 반세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탐색한 것이다. 한국전쟁을 주제로 만들어진 외국 영상물이나 책, 논문들을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특별제작반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²⁴⁾ 수집한 비디오 자료는 모두 450시간 분량으로 13개국 30여 개의 방송국과 공공 라이브러리 그리고 개인 소장 자료였다. 스틸 사진은 4,300장 수집되었으며, 증언 수록 인사는 모두 306명으로 내국인 156명에 118시간, 외국인인 14개국 150명에 104시간으로 함께 220시간 분량이었다.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물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태도는 시종,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식견을 갖춰야 한다고 봐요. 더군다나 한 번도 못 본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대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일이죠. 역사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는

24) <공영방송> 2013. 창간호, KBS방송문화연구소. 131-133.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0부작쯤으로 만들려면 거기 상응한 인력풀을 장기간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 적어도 10년 이상을 6·25와 씨름해 왔고 2년 이상 전담팀을 꾸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던 거죠.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장비가 발달하더라도 콘텐츠엔 결국 PD의 품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느질하듯 한 땀 한 땀 들어가야 하는데 실록 다큐멘터리에는 더욱 필요하죠” (강대영 PD)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의 여부인데 그는 제작팀 구성원 전부의 토론을 통해 균형을 맞추었다고 한다. 당시 제작팀으로는 1-3편은 금융명 PD, 4-6편은 이상엽 PD, 7-9편은 홍성주 PD, 그리고 마지막 편은 홍혜경 PD가 담당했다. 그는 한국전쟁 프로젝트의 태동에서 완결되는 데까지 다섯 명의 사장을 거쳤다고 한다. 이원홍, 박현태, 정구호, 서영훈, 그리고 서기원 사장까지 6년이 걸리는 과정에서 장기간 인력을 한 프로젝트에 묶어두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KBS 역사상 최초로 사내 프로덕션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국전쟁 특별제작반’을 탄생시켰다. 1988년 3월부터 특별제작반을 본부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2년 10개월 동안 장기적인 제작시스템을 운영하였다.

“1994년으로 기억하는데, 뉴욕에 가 있던 PD특파원으로부터 <KBS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이 세계 100대 다큐멘터리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어요. 알고 보니 미국 타임 워너사가 매주 발간하는 <엔터테인먼트 위클리(Entertainment Weekly)>에서 펴낸 특별판에 실렸더라고요. 드라마, 코미디, 다큐멘터리 등 열 개 장르별로 각 100편씩, 모두 1,000편의 작품을 선정, 소개하는데, 다큐멘터리의 고전이랄 수 있는 <북극의 나누크(Nanook of the North)>, 히틀러의 나치를 기록한 <의지의 승리(Triumph of the Will)>를 비롯해 <스탈린그라드전쟁>, <마더 테레사> 등 이름난 작품들과 함께 실렸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어요.” (강대영 PD)

하지만 강대영 PD는 한국전쟁의 전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20여 년 전 제작 당시에는 소련, 중국의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전에 비해 제작환경이 훨씬 나아진 만큼, 자료와 증언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쟁에 양측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 자료만으로는 완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과거사 문제, 여순 사건, 제주 4·3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야기된 민간인 학살은 물론 점령군이 바뀌면서 일어났던 마을주민 간 피의 보복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PD들의 재능과 창의성, 열정을 들면서 한국 다큐멘터리의 세계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림 7.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장면 캡처25)



2. 휴먼 다큐멘터리의 발전과 제작 전략

<MBC 인간시대>는 1985년부터 1993년까지 밤 10시대에 편성되어 오다 이후에 8시대에 정규 편성되면서 휴먼 다큐멘터리의 전성기를 열었다(자세한 작품명은 <부록 3> 참조). 이 프로그램들은 지극히 사적인 한 개인의 영역을 가장 내밀하게 그려내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밀접하게 형성되는 휴머니즘의 진수를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간시대>를 기획한 이금희 PD는 당시 휴먼 다큐멘터리가 크게 성행한 이유를 두고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송의 제일 큰 주제는 인간 아니에요. 그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도 관계가 있고, 특히 보통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ENG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오디오 픽업을 아주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 간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비입니다. 제작비도 많지 않아 PD들도 맘껏 써도 되고, 어쨌든 편리한 여건이 많았어요.” (이금희 PD)

휴먼 다큐멘터리는 인간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다이얼로그라든지 현장 소음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편하게 오디오 픽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바로 ENG(electronic news gathering) 카메라다. 1970년대 초 등장한 ENG 카메라는 도입 초기에는 뉴스취재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그 기동성과 편리성 때문에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큐멘터리 제작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필름으로 제작할 때에는 카메라맨이 16mm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가서 촬영한 후 필름을 현상하여 편집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ENG 카메라는 필름이 아닌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녹화 후 바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의 편리성과 신속성의 이점을 가진다. 기동성, 신속성, 편리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ENG 카메라의 등장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편수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휴먼

25) 출처 : culbay.tistory.com/47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최현주, 2013). 이러한 방송 기술적인 발전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아 떨어져서 프로그램의 성공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이다. 제작비 또한 매우 매력적이다. 방송사 CP급 이상에게 가장 큰 고민은 제작비인데, 인간시대는 출연료 약간과 스태프들 촬영 진행비만 책정시키면 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도 시청률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장점이 있었다.

“정부에서 상을 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그 사람을 우리 인간시대에 출연시켜달라고 부탁하는데, PD가 그거 도망 다니려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당시 인간시대 프로그램은 구둣방 사람, 지게꾼, 농부 그런 사람들이 PD들의 대상인데, 그거 안하려고 막 도망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 나갔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본 없는 촬영입니다… 전에는 다큐를 한다고 하면 콘티를 짜고 설 새도 없이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거의 대본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고에 따라서 맞는 그림을 찍어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절대 하지 말자. 그걸 무너뜨린 것이 우리 MBC입니다.” (은희현 PD)

그림 8. MBC <인간시대> 장면 캡처²⁶⁾



<1회 청계천에서 세계로> <2회 종소리가 들린다> <3회 신들린 사람>

휴먼 다큐멘터리는 인간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이다. 하지만 인간이 등장하는 모든 다큐멘터리가 휴먼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박덕춘(2005)이 지적하듯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왜 이 사람을 보여주는가? 그는 과연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난과 역경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며, 어떠한 목표에 도전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돕고 있는가?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큐멘터리가 대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시대>팀들은 가장 중요한 제작 전략으로 주인공을 선택하는 것이 작품의 성공을 가르는 열쇠로 보고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전 헌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제작일정을 짜기 시작한다. 휴먼 다큐멘터리는 가장 극적인 측면, 오락적 측면이 두드러진 장르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특이한 측면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의 삶을 진술하면서도 극적인 재미를 가미하여 꾸며낸 이야기이다(김균·전규찬, 2003). 이런 서사구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간시대>에서는 구성과 편집 전략으로 촬영 계획서인 콘티

26) 출처 : <인간시대 200회 편람> 1989, MBC

없이 대상 인물을 촬영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콘티 없이 촬영한다는 것은 PD는 물론 카메라 파트에서도 매우 힘든 작업이다. 대상 인물과 주변 인물을 상대로 상황이 벌어지면 계속 따라다니며 쉴 새 없이 촬영하기 때문이다. 당시 아날로그 시대에서 베타 테이프 한권이 20-30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20-30권의 테이프를 촬영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1주일 정도 촬영한 후 편집이 이루어지는데 이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당시 인간시대 프로그램은 매주 편성이기 때문에 많은 PD들이 제작진으로 포진되어 저마다 대상 인물을 맡아 제작했다.²⁷⁾ 촬영 이후 거의 한달 동안 편집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을 시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때때로 주인공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완성된 스토리로 구성해야 한다. 전날 편집했던 것을 완전히 싹 뒤집고 다음날 완전히 새롭게 편집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콘티 없는 촬영과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을 시도하면서 스토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당시 <인간시대> 다큐멘터리를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끈 전략이라는 평가다.

<인간시대> 초반의 이런 MBC 제작진들의 제작 노하우는 후배 제작진들에게 이어지면서 더욱 성장하였다.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인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는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뉴욕페스티벌 인간관계부문 금상을 수상했으며, <휴먼 다큐 사랑-돌시인과 어머니>로 ABU 다큐멘터리부문 대상을 수상한 윤미현 PD도 대상 인물을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작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연을 가진 보통 사람이예요. 주인공의 캐릭터가 얼마나 매력적인 가도 보고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스토리에 드라마틱한 위기의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예를 들면 ‘사랑-너는 내 운명’같은 경우에 영란이 간암에 걸렸는데 그 여자가 투병을 하잖아요. 과연 그 여자가 그 투병을 이길까 질까? 하는 그게 바로 위기의 구조거든요. 또 하나는 이 아이템이 현재 진행형인가를 잘 봐요. 다 지나간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경우, 찍으려고 하면 뭘 찍나?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많이 봐요. 마지막으로 인물을 볼 때 나만의 특별한 시각이 있는지를 꼭 생각해 봐요.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라고 보는데, 희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희아를 봤지만 저는 희아와 엄마와의 관계를 본 것이 다른 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미현 PD)

27) <인간시대> 200회 편람에 따르면, 이궁희, 은희연, 박홍영, 고장석, 김상욱, 강철용, 윤동혁, 황효선, 정수채, 박신서, 홍종선, 김윤영, 정문중, 이명기, 이석형, 신연훈, 홍성완, 최우철, 송일준 PD 등이 연출을 맡았다.

그림 9.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 장면 캡처²⁸⁾



이전까지 장애인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의 경우, 주로 그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다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희아>의 경우, 엄마와 딸의 관계에 주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작 전략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날’ 특집이 아닌 ‘가정의 달’ 특집으로 편성되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촬영되었고, MBC에서는 최초의 장기 제작 휴먼 다큐멘터리로 기록되었다. 또한 ‘자연 다큐는 대개 1년가량 찍는데, 휴먼 다큐라고 1년을 못 찍나’라는 생각을 실천에 옮겨 프로그램을 따뜻하면서 색다른 시선으로 구성한 제작진의 의도가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주면서 휴먼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3. 자연 다큐멘터리의 도전과 제작 전략

자연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자연과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자연과 동식물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주요 대상으로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계를 주로 다루거나 인간과 결부되어 자연의 생태를 다루면서 환경의 가치와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수 있다. 즉, 순수한 자연 다큐멘터리는 어떠한 소재를 대상으로 장기간 관찰하고 촬영함으로써 자연의 생태와 법칙 등을 드라마틱하게 엮어 보여주거나 바다, 강, 산, 동식물의 일기 등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화면에 담아내어 일반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환경 다큐멘터리는 환경파괴로 인해 생태적 위기에 처한 지구의 실상과 황폐화되어 가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보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선정하여 방송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제시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재영·나미수, 2011).

28) 출처 : http://content.mbc.co.kr/program/documentary/2596192_64343.html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으로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를 다룬 순수 자연 다큐멘터리로는 <한국 야생화의 사계, 1984>, <한국의 나비, 1985>, <지리산의 4계, 1986>, <꿀벌의 세계, 1987>, <천적의 세계, 1988>, <소백산의 야생식물, 1993>, <철원 민통선 철새의 비상, 1994>, <버섯, 그 천의 얼굴, 1995>, <한라산의 야생화, 1997>, <한국의 자연 오징어, 2001>, <독도 바다사자, 2007>, <뿌리공원, 그 곳에 남생이가 산다, 2011>, <위대한 비행, 2012> 등을 들 수 있다. 자연 다큐멘터리의 시작은 주로 MBC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기자 출신인 권재홍은 서울대 생물학과 출신으로 자연에 관한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

“지상파 3사 중에서 MBC에서 자연 다큐를 먼저 시작했어요, 당시 권재홍 기자가 나비, 꿀벌, 야생화 이 세 개를 가지고 자연 다큐를 만들었는데 전부 다 재미를 많이 봤어요. 이후 보도국 카메라 파트에서 제작을 했는데 전만큼 히트는 못했죠…그러다가 이걸 교양제작국에서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장덕수 PD)

자연 다큐멘터리는 방송사 내에서 선뜻 맡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만큼 선호하는 장르는 아니다. 전체 제작기간이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그야말로 땀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장르와 달리 운도 요구되는 작업이다 보니, 자연 다큐멘터리를 자발적으로 제작하려는 PD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MBC 교양제작국 최삼규 PD는 <곤충의 사랑>, <어미새의 사랑>, <야생의 초원, 세랭게티>, <라이온 퀸>, <DMZ는 살아 있다> 등 주로 자연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그의 경우, 데스크에게 영접결에 받은 기획안 한 장으로부터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고, 이내 그 매력에 빠졌다고 한다. 그의 두 번째 작품인 <어미새의 사랑>은 당시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시청자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자연 다큐에는 뭔가 특이한 영상과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정에서 남의 동지에 알을 낳는 빠꾸기의 착란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원앙이가 부화해서 깨어나는 첫 날 밤에 어미가 동지에서 새끼를 들어 올려서 번지 점프를 연습시킨 다음, 새벽에 동틀 무렵에 실제로 나무에서 번지 점프로 뛰어 내리는 모습, 마지막으로 물총새 있잖아요. 물총새가 화 대에 딱 앉았다가 뿔 잠수해 들어갔다 물고기 딱 사라져서 올라오고 그 1초의 순간 영상. 요것만 담으면 새로운 것을 추구할 것 같다. 이중에 하나만 건져도 원이 없을 것 같다…” (최삼규 PD)

그의 제작 전략은 당시까지 없었던 새로운 자연의 영상과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

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더라도 원하는 영상을 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강물에 빠진 젓가락 찾는’ 것이나 매한가지인 작업이 이어지다 우여곡절 끝에 파랑새가 번식하는 것을 찍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빼꾸기의 착란 과정을 찍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그는 다큐멘터리 제목을 <어미새의 사랑>으로 정하면서 벌레를 물어다 아기새의 입에 넣어 주는, 한마디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기르는 어미새의 영상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우리 기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PD 당신 여기 이거 빼꾸기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당신은 알아? 그러더니 그 사람이 운행일지를 다 자기가 더해봤대요. 어미새의 사랑 촬영하느라고 얼마나 돌아다녔냐고... 천만Km. 지구 둘레가 4만Km인데 적어도 지구 둘레의 1/4을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하여튼 별 데 다 돌아다녔지요. 정말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무인도 섬부터 강원도 고산 끝 엄청나게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결국 1995년 7월 14일.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그 집념과 집착으로 그걸 딱 찾아가지고 결국 그게 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져온 기회였던 거 같아요.” (최삼규 PD)

<어미새의 사랑>을 촬영하는 기간 동안 모든 스텝들과 함께 닭 한 마리도 안 먹었다’는 최삼규 PD는 자연 다큐의 성공 비결은 오로지 인내와 땀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집념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운도 따라온다면서 PD는 자신이 노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청자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림 10. <어미새의 사랑> 장면 캡처²⁹⁾



자연의 생태를 다루면서 환경의 가치와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자연 다큐멘터리로는 <다큐멘터리 갈대>, <제주바다 백색공포>, <갯벌은 살아있다>, <낙동강 1300리>, <생명체의 요람, 제주조간대>, <생태보고 팽이갈매기>, <적조, 죽음의 물결>, <해양생물의 보고 바위해안>, <바다의 무법자 불가사리>, <신두리 사구>, <지리산이 죽어간다>, <생명의 땅 삼각주>, <해풍>, <환경의 역습>, <다큐멘터리 해안>, <다큐멘터리 섬>, <환경호르몬의 역습>, <다큐멘터리 재앙>,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낙동강 지류 대탐사>, <잊혀진 재앙>,

29) 출처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5/1964803_19450.html

<모래의 역습>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을 주제로 하는 자연 다큐멘터리가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MBC 장덕수 PD의 <갯벌은 살아있다>부터다. 당시 MBC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비교적 먼저 자연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장덕수 PD에게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그는 방송사에서 원하는 ‘예쁘고 신비한’ 자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의 삶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전까지는 갯벌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 갯벌을 매립한다하면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죽는데 이게 값어치가 있는 자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없었어요. 쓸모없는 더럽고 칙칙한 진흙덩어리, 이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눈을 뜨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보자.” (장덕수 PD)

장덕수 PD는 ‘갯벌’이라는 장소를 해양 생태계와 육지 생태계의 만남의 광장으로 보았다. 이러한 만남의 광장의 파괴는 육지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그는 육지와 바다를 오가는 생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육지와 바다 생태계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였다. 수도권 가까워서 항상 보는 갯벌인데 강 하구에 있는 갯벌을 막아버리면 수많은 생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생태계의 구조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이 심각한 환경 파괴를 빗대어 ‘갯벌은 살아있다’는 역설적인 타이틀을 사용함으로써 환경 보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자연 다큐멘터리가 대개 주입식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자꾸 뭔가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루하기 십상입니다. 어쨌든 대중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낼만한 요소들을 앞에다 좀 배치해놓고, 저게 왜 그럴지? 라고 스스로 질문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도 해가는 구성이 좋습니다. 어떤 현상을 던져주고 그 현상으로서 사람들에게 진짜 호기심이나 궁금증이나 어떤 지적 욕구를 자극 하면서 스스로 알고 싶을 때 딱 던져주는 식의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도 요건 좀 미끼가 되겠다 싶으면 연관된 주변을 샅샅이 촬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미끼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걸 어차피 뭐 교재가 아니잖아요.” (장덕수 PD)

자연 다큐멘터리의 속성상 그 내용이 자칫 지루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연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위해 편집 단계에서 구성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편집 단계에서의 구성을 위해서도 이미 촬영 단계에서 ‘미끼’가 될 만한 소재나 스토리를 발견하면 그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까지 철저하게 담아내어야 한다. 즉, 어느 한 상황에 대한 스토리를 완성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궁

급증이나 지적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프로그램에 몰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칙칙하고 더러운 무채색인 갯벌에서 나뭇잎의 색깔을 드러내며 등장하는 컬러풀한 생명들의 클로즈업을 통해 PD는 색다른 눈과 구성 전략으로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할 귀중한 자연의 순리를 되새겨주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그림 11. <갯벌은 살아있다> 장면 캡처³⁰⁾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많은 역량과 경험을 축적한 MBC는 이후 이른바 ‘지구의 눈물 시리즈’로 대형 자연 다큐멘터리 시대를 열었다. <북극의 눈물>³¹⁾, <아마존의 눈물>³²⁾, <아프리카의 눈물>³³⁾, <남극의 눈물>³⁴⁾이 연이어 방송되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와 생태계의 위험, 그리고 지구의 원초적 에너지와 역동적인 생명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냈다. 당시 눈물시리즈는 매년 10% 이상의 평균 시청률과 최고 25%의 시청률을 기록한 명품 다큐멘터리로 인정받으면서 당당히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하였다.

자연 다큐멘터리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역에 소재한 방송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한국방송대상은 지역의 다큐멘터리 발전을 위해 1987년 지역 간 경쟁 부분인 ‘다큐멘터리 지역 부문’을 신설했고, 이는 현재까지도

30) 출처 : http://content.mbc.co.kr/program/documentary/2596522_64335.html

31) MBC 창사47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은 총 3부작으로 제1부<얼음왕국의 마지막 사냥꾼>, 제2부<얼음없는 북극>, 제3부<해빙, 사라지는 툰트라> 순으로 2008년 12월7일부터 12월21까지 방송되었다. 기획 윤미현 / 연출 허태정, 조준목.

32) MBC 창사 48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은 총 5부작으로 프롤로그<슬픈 열대 속으로>, 1부<마지막 원시의 땅>, 2부<사라지는 낙원>, 3부<불타는 아마존>, 에필로그<250일간의 여정> 순으로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0년 2월 5일까지 방송되었다. 기획 정성후 / 프로듀서 윤미현, 허태정 / 연출 김진만, 김현철

33) MBC 창사 49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아프리카의 눈물>은 총 5부작으로 프롤로그<뜨거운 격랑의 땅>, 1부<오모계곡의 붉은 바람>, 2부<사하라의 목시족>, 3부<킬리만자로의 눈물>, 에필로그<검은 눈물의 시간 307일> 순으로 2010년 12월 3일부터 2011년 1월21일까지 방송되었다. 기획 정성후/ 프로듀서 이정식/ 연출 장형원, 한학수.

34) MBC 창사 5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은 총 6부작으로 프롤로그<세상 끝과의 만남>, 1부<얼음 대륙의 황제>, 2부<바다의 노래를 들어라>, 3부<펭귄행성과 침입자들>, 4부<인간, 그리고 최후의 얼음대륙>, 에필로그<1000일의 남극> 순으로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8월 17일까지 방송되었다. 기획 전연식/ 연출 김진만, 김재영.

이어져오고 있다. 이른바 규모나 제작비에 있어서 메이저급인 수도권 방송사와 직접 경쟁하기 어려운 마이너급 지역 방송사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로 지역 방송 발전을 위한 차원으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독도는 살아 있다, 포항 MBC>, <제주바다 백색공포, 제주MBC>, <소백산의 야생식물, 충주 MBC>, <운명의 산 낭가파르밧, KBS창원>, <낙동강 1300리, KBS대구>, <철원 민통선 철새의 비상, 춘천MBC>, <제주바다 조간대, 제주MBC>, <생태보고 팽이갈매기, KBS차원>, <우체통 속의 새, KBS원주>, <한라산의 야생화, 제주MBC>, <해양생물의 보고 바위해안, KBS전주>, <바다의 무법자 불가사리, 제주MBC>, <황사, KBS광주>, <우포늪을 지키시다, KBS창원>, <생명탐험 모래, KBS부산>, <신두리 사구, 대전 MBC>, <지리산이 죽어 간다, KBS창원>, <한국의 자연 오징어, 삼척MBC>, <생명의 땅 삼각주, 부산방송>, <DMZ, 춘천 MBC>, <해풍, 부산MBC>, <남산 4부작, 포항MBC>, <최초보고 황우렁이 2부작, 대전방송>, <적조 황토가 대안인가, 울산MBC>, <다큐멘터리 해안 2부작, 마산 MBC>, <독도 바다사자, 대구방송>, <한반도 환경대재앙 산샤땀, KNN>, <끝나지 않은 재앙 2부작, 대전MBC>, <호모오일리쿠스 3부작, KBS대전>, <낙동강 지류대 탐사 10부작, KNN>, <잊혀진 재앙, 대전MBC>, <뿌리공원 그곳에 낚생이가 산다, KBS대전>, <모래의 역습 4부작, KBS창원>, <위대한 비행 4부작, KNN> 등 적지 않은 자연 다큐멘터리가 지역에서 제작되었다.

“지역 방송에 있어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다큐멘터리에요. 연말, 연초가 되면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PD들이 제출하는데, 창사특집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가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정규 편성 제작물은 메이저 방송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만, 다큐멘터리 부문만을 생각하면 지역도 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메이저 방송사처럼 큰 제작비도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메이저 방송사가 알지 못한 틈새 아이템을 찾아내서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7~8개월, PD를 정규 물에서 빼내어 특집 전담을 시킵니다.” (김귀진 PD)

<한라산의 야생화>, <바다의 무법자 불가사리>로 한국방송대상 다큐멘터리 지역 부문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김귀진 PD는 지역방송사의 입장에서 중앙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해 가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다큐멘터리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해서 한국방송대상과 같은 큰 상을 받게 될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사로서 회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사로서 자신 또한 나름의 명예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해에 창사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는 지역 방송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며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제작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방송은 지역민의 이해와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에 충실한 지역성 구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역방송이 자연과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 방송 스스로가 지역을 지키고 발전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시사 다큐멘터리의 제작 전략과 VJ의 탄생

1980년대에 들어 나타난 특징은 시사 다큐멘터리의 본격적인 등장과 함께 방송사마다 전문성과 공익성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방송 저널리즘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시사 다큐멘터리는 신문 저널리즘과의 경쟁에서 나름대로 그 위상과 특권을 높여주면서 방송사의 주요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1983년 KBS의 <추적 60분>이 등장한 이후, <KBS 스페셜>, <KBS 취재파일 4321>, <MBC PD수첩>,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SBS스페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시사 다큐멘터리들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시사 영역을 꾸준히 확장시켜 왔다. 이후 ‘PD저널리즘’이라는 신종 용어가 나타날 만큼 이러한 장르의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한 장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의 사회·정치적 상황이 낳은 부산물이라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사 다큐멘터리를 분석한 연구도 등장하였다. 민병헌(2007)에 따르면, <KBS 추적 60분>, <MBC PD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7년 방송분을 분석한 결과, 방송사마다 다루고 있는 주제에 차이가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추적 60분>의 경우, 건강/의료, 보건 분야를, <PD수첩>은 정치/외교, 국제문제, 정부정책 분야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회/ 복지/인권 영역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는 것이다.

한편, MBC가 ‘지구의 눈물 시리즈’로 자연 다큐멘터리 분야를 개척하는 동안, SBS는 ‘최후’라는 주제어를 앞세운 다큐 시리즈에 주목하였다. 2010년 <최후의 툰트라>, 2011년 <최후의 바다 태평양>, 2012년 <최후의 제국>을 방송함으로써 제목 자체를 하나의 ‘상징’으로 삼으면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냈다.

“KBS는 문명사를 다룬다. MBC는 자연사를 다룬다. SBS는 관심사를 다룬다. 당시 시사인

문화부기자가 평을 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들은 문명사, 자연 다큐보다는 실생활에 밀착된 다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EBS가 하나의 잘 구성된 책을 보는 느낌의 다큐멘터리를 한다면 SBS는 영상적인 측면과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에서 쉽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쪽으로 제작 방향을 정하는 편입니다.” (장경수 PD)

<최후의 툰트라>, <최후의 제국>을 연출한 장경수 PD는 다른 방송사와는 다른 SBS만의 ‘다큐멘터리 제작 문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도 피디가 세상에 던지는 화두’가 있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상을 있는 그대로 다큐멘터리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후의 제국>을 제작하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인류학적인 다큐멘터리이지만 전문가 인터뷰를 가급적 배제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내레이션을 통한 감성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또한 영화 같은 스토리 라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전개함으로써 묵직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자본주의의 최첨단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자본주의에 관한 문제제기가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들이 이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맹점이 있는 것이며, 그러면 이런 돈의 제국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제문제를 바라보자는 이런 시각으로 다뤘습니다.” (장경수 PD)

하지만 이런 기획의도에 대한 설득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장경수 PD는 밝혔다. ‘일단 너무 추상적이다. 경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과연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겠느냐. 경제를 다루는데 역사적인 과거와 우리 인류, 특히 뭐 미개한 문명에 가서 찍는 것이 현대의 경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기획의도에 대한 설득과정은 지난했으나 결국 다큐멘터리 제작은 허용되었다. 어려운 화두를 쉽게 풀어나가는 것, 사례를 중심으로 재미있고 쉽게 구성하는 것, 이러한 고민들은 다큐멘터리의 대중화에 대한 PD들의 고민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님을 보여준다.

“다큐멘터리 저변층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어떤 형태의 다큐멘터리를 해도 방향을 일으키기 힘든 단계까지 왔어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장르 속에 있는 피디들이 상당히 방향성에 대한 길을 찾지 못하

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요. 그런 측면에서 정권의 영향도 일정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공익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상당부분 정책과 정권이 관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경수 PD)

장경수 PD는 한국의 다큐멘터리가 점점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난 정권 10년 동안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보다는 산업적 기능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였고 그 결과, 좋은 품질의 공익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드라마나 예능과 같은 프로그램에 비해 시청률이 담보되기 어렵다보니 방송사가 선뜻 자본을 투자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큐멘터리 발전을 위한 정책적 다양한 방향 등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림 12. <최후의 제국> 포스터³⁵⁾



어려운 화두를 쉽게 풀어가야 한다는 고민은 박진홍 PD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특히 다큐멘터리에서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영상보다는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인문적 탐구를 담은 다큐멘터리보다 사회적 이슈를 정면으로 다룬 시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도 어려운 경제와 환경문제를 쉽게 풀어내어 2008년에 SBS 다큐멘터리 3부작 <재앙>을 통해 한국 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에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나 세계경제체제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중 일반에게 익숙하지 않았고, 그런 관점은 일부

35) 출처 : <http://tv.sbs.co.kr/capitalism/>

급진적인 학문적, 정치적 논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미시적 문제가 거시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게 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목표로…” (박진홍 PD)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구축된 소비 지향적 자본주의 시스템, 그 결과 나타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간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것을 프로그램 제작의 목표로 삼았다는 박진홍 PD는 시사프로그램 제작 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즉,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전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연출자가 확고한 신념과 통찰을 놓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구상하고 있던 영상의 피사체라거나 취재 대상이 온전히 생각대로 촬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야기의 전개방식이나 논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게 제작할 때 겪는 일이다. 하지만 연출자는 전체적인 통찰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해도 연출자의 구상안에서 이뤄져야 프로그램이 완성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13. <다큐멘터리 재앙> 장면 캡처36)



1991년 SBS가 개국하면서 MBC에서 활동하던 조한선 PD는 자리를 옮겨 송지나 작가와 함께 <SBS 개국기념 1991 생명전선>을 제작하였다. 그는 10개월 동안 설악산악구조대, 해운대 바다경찰서, 전남 해양구조대, 고속도로 순찰대, 교통사고 현장, 화재 현장, 응급실, 파출소 등을 다니면서 현장 사람들과 함께 출동, 사고 현장에서 긴박한 순간들을 기록한 영상들을 90분 다큐멘터리로 편집해서 방송하였다.

이후 조한선 PD는 현장성이 뛰어난 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리얼TV> 프로그램 제작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당시 기술 팀에서는 6mm, 8mm 소형 카메라의 화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결국 초창기 방송사의 기술 방침으로 ENG 사용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후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형 카메라로

36) 출처 : <http://tv.sbs.co.kr/disaster/>

찍은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95년 일본 연수 동안 그는 소형 카메라만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메트로폴리탄 TV개국과 8mm 소형카메라 전문의 독립 언론 아시아프레스³⁷⁾를 만난 이후 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에 보다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프레스에서 재일동포 비디오저널리스트 양영희 감독의 초기 다큐멘터리 <치마저고리> 시사토론회에 참여하여 강한 임팩트를 받았다고 밝혔다.³⁸⁾

이후 '비디오 저널리스트'라는 신종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는 VJ 프로그램으로 제일기획에서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 Q채널에서 <아시아 리포트>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 다큐멘터리는 6mm 디지털 카메라로 가까운 일본의 야구열기에서부터 억압받는 인도 여성, 호주의 백호주의 부활, 아시아철도 대기행 시리즈 등을 조명하는 등 기타 촬영 장비 없이 취재원에게 전혀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서 아시아인들의 내밀한 삶의 현장을 다룰 수 있었다. 한편, 일본 연수를 마친 이후 조한선 PD는 새로운 제작시스템을 위해 ITV³⁹⁾로 방송을 옮겼다. 특히 IMF가 일어나 방송계에서도 긴축재정으로 방송환경이 위축되었다. 그 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리얼TV> 일일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시작하여, 당시 인기였던 미국 메이저리그 박찬호 야구중계 시청률과 대등한 인기를 누렸다.

“나는 95년도에 일본에 있으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소형카메라로도 지상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하면서 신생방송사로서 시청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최고 35%도 기록해 봤지만, 축하한다고 전화 오면 그걸로 끝났었어요. 그런데 일본연수를 하면서 PD생활을 복기하면서 리뉴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목적이 자기 현시욕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제작진들은 프로그램 목적이 감동을 줘서 잘 전달하고 연관된 부가콘텐츠를 개발 판매하고 그거더라고요, 프로그램 하나가 콘텐츠 비즈니스고, 커뮤니티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한선 PD)

그는 ITV에서 소형 카메라로 제작한 본격적인 다큐 프로그램으로 <리얼 TV>를 줄때 편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30분물로 <생명전선>, <경찰24시>, <VJ리포트>, <차이나 스페셜>, <나쁜 아이들의 아시아횡단>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연속 편성하기로 하고 당시 <아시아 리포트>를 제작한 VJ들을 전격적으로 합류시켰다.⁴⁰⁾

37)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 : 1987년 설립. 일본에 본부를 둔 보도통신사.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의 네트워크로 비디오 저널리즘을 표현 방식으로 도입해서 다큐멘터리, 뉴스 등을 제작해서 보급함.

38) 양영희 감독은 그 후로 <디어평양>, <가족의 나라>를 소형카메라로 제작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극영화 <가족의 나라>를 제작함.

39) 인천방송 : 독립 지역민영 방송사. 1997년 10월 11일 개국. 2000년 경인방송으로 사명 변경. 2004년 12월 31일 폐국.

40) 1997년 VJ로 최병화를 필두로 백민섭, 정해상, 김인중, 장세종 등이 ITV로 입사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IMF 금융위기로 방송사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ITV도 예외는 아니었다. 300명 이상이었던 직원이 150명 정도로 축소되면서 ITV도 프로그램 제작 위기에 봉착하였다.

하지만 소형 카메라를 통한 다큐 제작에 대한 그의 시도는 긴축재정에서 빛을 발휘했다. 제작진은 외부 독립VJ, 지역 대학 방송국, 영상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과의 협업을 더욱 더 심화시켰다. 리얼드라마 <디비딤밴드>, <댄스블패> 등이 이 시기에 방송되었다. 그는 ‘리얼 드라마’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을 다룬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역을 새로운 장르로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밭 딛고 선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소형 카메라를 활용하는 VJ에 대한 제작 방식은 계속 이어져 KBS에서는 ITV <리얼TV-생명전선>팀을 확보하고 <병원 24시>와 <VJ특공대>를 시작하면서 VJ에 대한 인식은 더욱 대중화되고,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2000년 이후 6mm 디지털 소형 카메라를 통한 제작은 자연스럽게 방송사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 등에서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림 14. < 리얼TV > 관련 사진⁴¹⁾



(ITV 사옥)



(ITV 홈페이지)



(ITV 경찰24시)

“다큐멘터리 목적을 사회하고 연계해서, 또는 개인하고 연계해서 계약을 하고 그것을 협업을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공동 작업을 해서 산학연이 돼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송사나 사회에서는 영상은 제작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작비에 대한 영상의 퀄리티에 비해 제작비 수준이 너무 낮고 돈 안줘도 영상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로서 인정을 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조한선 PD)

최근 들어 VJ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의 활용과 제작시스템은 현재의 제작 환경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조한선 PD는 다큐를 ‘씨드 콘텐츠(seed content)’라 규정했다.

41) 출처 : <https://cafe.naver.com/tvradio/18811> , <https://www.google.co.kr/search>

그 씨앗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발에 심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리랜서들과 함께 키워 가꾸는 영상농장 커뮤니티를 꿈꾼다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 방송가에 부는 변화는 1인 제작시스템, 1인 미디어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역량과 위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방송사에서도 이들의 개별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다큐멘터리 제작 시스템 개발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문화 다큐멘터리의 대형화 및 제작 전략

1984년 4월 13일부터 12월 7일까지 편당 50분씩 30편 분량 NHK 제작물 <실크로드>⁴²⁾가 KBS 1TV를 통해 방송된 것은 다큐멘터리 방송 역사상 일대 사건으로 회자된다. <실크로드>는 동서양의 육로 교역로였던 비단길을 찾아 광활한 중국 대륙과 그 문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대작으로 당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들에게는 일종의 자극제가 되었다. 일본 내에서만 20%의 시청률을 기록한 대하 다큐멘터리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큐멘터리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나 깊이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큐멘터리의 진수를 보고난 PD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모델로 삼아 도전을 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NHK스페셜 같은데서 가끔씩 대형 기획 작품들은 내놓고, BBC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말만 세계3대 공영방송이지 언제 이런 걸 만드나, 좀 기가 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도 무언가 해 볼 수 있겠단 의지가 PD들 사이에 내재되어 응축된 에너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큐를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뭔가 플랫폼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노하우들이 쌓이고 뭔가 축적된 역량으로 계속해서 연작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결정된 것이 <인사이트 아시아> 라는 대형 프로젝트명이 나왔습니다.” (진기웅 PD)

42) NHK <실크로드>는 1980년 초부터 월 1회로 방송을 시작해서 1989년 3월까지 방송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중국의 장안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의 대장정을 일본 NHK와 중국의 CCTV가 공동으로 제작했는데 중국 내 취재 허가, 대상 섭외 등은 CCTV가 담당하고 취재와 촬영은 NHK가 수행했다. 그리고 자국 방송에서 양국의 시각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 방송했다. 총 30부작이 방송되었고 개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제1편 <비단의 고장-장안>, 제2편 <황하를 건너서>, 제3편 <사막의 미술관-돈황>, 제4편 <고비사막의 흑수성-카라코토>, 제5편 <누란 왕국을 찾아서>, 제6편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 제7편 <비단·비취의 오아시스-호탄>, 제8편 <불타는 사막의 오아시스-호탄>, 제9편 <천산 산맥을 뚫고>, 제10편 <음악과 함께 하는 여정>, 제11편 <천마의 옛 고향>, 제12편 <파미르로 가는 길>, 제13편 <간다라 평원으로>, 제14편 <제왕의 길을 따라>, 제15편 <불교왕국 라다크>, 제16편 <현장법사의 발자취>, 제17편 <페르시아의 고대도시>, 제18편 <코란과 페르시아의 용단>, 제19편 <천일야화의 고장-바그다드>, 제20편 <호수로 사라진 길>, 제21편 <초원의 길을 따라>, 제22편 <천마의 고장-다반>, 제23편 <사라진 낙타대상-소그드족>, 제24편 <초원의 지배자 타무르>, 제25편 <세계에서 가장 먼 땅>, 제26편 <비단과 십자가>, 제27편 <대상들과 함께 서쪽으로>, 제28편 <기마민족의 후예들>, 제29편 <터키의 비단 도시>, 제30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NHK의 <실크로드>를 계기로 KBS는 한국방송 역사상 가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BBC나 NHK에 못지않게 아시아는 문화적이나 역사적으로도 잘 아는 곳이니 그간 이 양대 방송사에서 건드리지 않은 아이템을 찾아서 시리즈물을 제작해보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당시 PD들은 ‘한 10년에 걸쳐서 100편의 작품을 한 100억 이상 투자해서 만들어보자’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

워터먼(Waterman,1993)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의 증가는 해당 프로그램이 후속 창구에 진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한다. 즉, 프로그램의 예산이 증가될수록 프로그램의 2차 시장 진입량이 증가되며, 이는 다시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자본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의 크기와 프로그램의 후속시장에 판매되는 프로그램의 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기배·권호영, 2005).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제작자들은 ‘자연이 됐든, 인간을 다루는 역사가 됐든, 문명사가 됐든 간에 아시아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면서 아시아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러던 중 진기웅 PD는 ‘양자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강으로 대륙의 문명 발상지로서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본 것이다. 이후 그는 KBS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대륙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젓줄 1만 6천리를 살살이 촬영하고 편집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1991년 3월 7일, KBS1에서 첫 방송이 송출되었다. 첫 장면은 그간 한국방송의 염원을 상징하듯, 대륙을 달리는 KBS 취재진의 차량을 바라보는 티베트 원주민의 시선에서부터 출발한다. 양자강의 발원지에서부터 중국을 관통하는 강 주변 55개 소수민족이 6천여 년 간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을 겪으며 문명복합체로 형성해온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것이다. 티베트, 사천성, 운남성, 호북성, 상해에 이르는 전지역을 8부로 나눠서, <제1부 끝과 시작>, <제2부 발원은 멀고 강은 길어>, <제3부 서역으로 가는 길목>, <제4부 운남 -소수민족의 땅>, <제5부 산맥은 지류를 낳고>, <제6부 열국은 쇠하고>, <제7부 청화는 미풍에 떨다>, <제8부 대륙을 여는 수로> 순으로 방송되었다.

당시 신문보도에 따르면, <양자강 8부작>이 심도 있는 취재와 촬영을 통해 막연하고 총체적인 중국 대륙의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고, 정밀한 카메라기법으로 영상의 질을 높여 NHK의 <실크로드>에 버금가는 완성도를 갖췄다는 호평을 받았다.⁴³⁾

43) 중앙일보 (1991.3.18). 단단한 연출, 독특한 접근 돋보여. 중앙경제 (1991.3.9). KBS다큐 양자강 보기 드문 수준작.

“중국의 문화를 우리 시각으로 보다가 우리 시각을 벗어나서 보자는 것이 목표였어요. 한 나라, 또는 어느 한 지역의 문화를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묘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콘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이나 인물들을 찍어서 전체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어요. 미·중 양자강 탐험대가 급류에 휩쓸리며 고군분투하는 장면이라든가 곤륜산맥 부근 컬무시 저작거리에서 한국반찬을 팔고 있는 조선족 여자 이야기도 여기저기 카메라를 팔로우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진기웅 PD)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주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어느 한 지역의 문화를 우리 시선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여주도록 설정했다. 촬영 콘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이나 인물들을 찍어서 전체의 흐름 속에 자연스러운 서사구조가 녹아나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림 15. <다큐멘터리 양자강> 촬영 현장44)



<양자강 8부작> 이후 진기웅 PD는 2001년 국내 다큐 사상 3년 6개월의 제작기간, 당시 10억원의 최대 제작비를 들여 <몽골리안 루트 8부작>을 우여곡절 끝에 방송하였다. 1994년에 기획된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제작비를 이유로 제작이 무산되자, 그는 KBS를 떠나 SBS 프로덕션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 3년 후 다시 KBS에서는 그에게 이 작품을 맡겼고, 7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세계 각국에 분포한 몽골리안의 생활상으로 시베리아의 사슴사냥, 알래스카의 해마사냥은 물론 말을 타고 절벽으로 질주하는 인디언들의 ‘자살질주’ 등 역동적인 화면이 많았다. 또 다큐멘터리 최초로 모션 캡처 CG 기법을 이용해서 몽골 유목민의 기마군단이 초원을 질주하는 장면 등이 재현되기도 했다. 유라시아 대륙과 북남미의 20개국을 훑으며 1만5000년 전부터 시작된 몽골리안의 이동경로와 그들이 남긴 문명의 흔적을 추적한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진기웅 PD는 ‘유럽·중국사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의 근원인 유목민의 시각에서 몽골리안의 발자취를 쫓았다는 게 가장 큰

44) 진기웅 PD가 소장한 촬영현장 사진

발상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그동안 우리 방송의 다큐멘터리가 한국적인 주제에 머물렀다면 이 다큐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주제로 지평을 넓혔다’면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실체를 역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림 16.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장면 캡처45)



이후 KBS는 2008년 <차마고도>, 2009년 <누들로드46>를 방송하면서 <인사이트 아시아>의 백미를 장식하였다. <차마고도>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수출을 고려하여 아이템, 제작 장비, 편집 기법 등에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 제작되었다. 차마고도는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 개통된 교역로로 중국과 티베트 네팔 인도를 잇는 육상 무역로이다. 이 길은 실크로드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 기원전 2세기 이전부터 존재한 고대의 무역로로 알려져 있다. 해발 4,000m가 넘는 험준한 길과 눈 덮인 5,000m 이상의 설산과 아찔한 협곡들이 계속 이어져 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험준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이다. 김무관 PD는 ‘우선 아시아에서 오지 중의 오지인 차마고도는 BBC가 전혀 건들지 않았으며, 말을 타고 차를 운반하는 이야기로 동서양 인류 모두에게 아우를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생생한 현장 음을 담아내기 위해 100% 동시녹음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편집, 음악, 자막, 내레이션 등 모든 요소들을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그만의 일정한 다큐멘터리 문법으로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일관성 있게 제작했다.

“PD들도 다 10년 이상 다큐를 제작했고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카메라 감독도 다 자기 스타일대로 찍어요. 그걸 강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해서 계속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내레이션을 최소화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좋다. 화면 자체가 이야기를 하게

45) 출처 : <https://mn.kbs.co.kr/news/view.do?ncd=158294>

46)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6부작 <누들로드 : 세상의 모든 국수> 2008년 12월 7일부터 2009년 3월 29일 까지 방송. 국수의 역사를 실크로드 대장정의 루트를 통해 소개함. 사람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린 다큐멘터리로서 세상에 있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 수만곱이나 다양한 국수요리의 세계를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의 앵글 속에 필요한 오브제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오브제들이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컷 수를 굉장히 과감하게 줄이고 한 컷으로 길게 편집하자면서… 100% 동시 녹음하고, 결론은 영상과 사운드를 유럽에 수출할 정도의 퀄리티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김무관 PD)

다큐멘터리의 소재와 시장성을 연구한 김미라(2007)는 국내에서 방송이 된 이후 후속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화적 할인이란 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 프로그램은 그 환경에서는 매력적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스타일, 가치, 신념 등에 따라 소구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과 달리, 다큐멘터리의 경우, 지역적·역사적·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소구력을 갖는 문화적 할인이 낮은 장르로, 그만큼 해외시장 진입장벽 또한 낮아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림 17.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장면 캡처47)



김무관 PD의 꿈은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BBC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었다.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유럽인에게 통할 수 있는 문법으로 다큐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러한 노력 끝에 <차마고도>는 2007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총 6부작으로 방송되었다. 1부 <마지막 마방>에서는 강 양쪽에 매달린 줄에 사람과 말이 매달리며 가는 장면과 마방이 지나다니는 험난한 길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 폭파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2부 <순례의 길>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성지 라싸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순례하는 여행자들을 담았다. 3부 <생명의 차>에서는 차마고도라는 길을 만들게 된 차의 탄생부터 흐름을 따라간다. 4부 <천년염정>은 내륙 지역인 티베트에 소금을 공급하는 소금 샘물이 있는 마을의 삶과 소금 교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된다. 5부 <히말리아 카라반>에서는 히말라야 산맥 중앙에 있는 소금호수에서 소금을 채취하여 네팔의 상인들과 교역이 전개되고, 6부 <신비의 구계왕국>에서 구계왕국의 변영과 몰락에 대한 이야

47) 출처 : <http://mn.kbs.co.kr/news/view.do?ncd=1415148>

기로 마무리된다.

이 프로그램은 제35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표재순⁴⁸⁾은 ‘고도 4Km 위에 올라앉은 5,000Km 거리에 달하는 가장 오랜 교역로의 험난함과 장엄함 그리고 온전한 인간미를 연출 없이 보여준 촬영, 연출진의 정돈된 내공은 이미 본 사람마다 찬탄을 아끼지 못했다’면서 작품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 ‘지난 날 NHK에서 <실크로드>를 터뜨릴 때, 우리도 한 귀퉁이라도 끼어보려고 선구매하면서 우린 언제면 저런 다큐를 기획 제작해보나?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NHK에서 선구매할 테니 엔딩 자막에 공동 제작이라고 한 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서 우리 제작진의 실력이 국력을 발판으로 딛고 일어난 쾌거라고 자축하였다.

이후 <차마고도>는 3~4년에 걸쳐 세계시장에 계속 출시하고 판매하면서 일본 NHK 등 세계 80여 국가에 프로그램을 수출하였다. 한국 다큐멘터리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을 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김무관 PD는 한국의 다큐멘터리 제작 환경은 BBC에 비교할 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BBC같은 경우에 프로듀서들과 딸린 카메라맨들도 40명 정도 되요. 이 사람들은 탐 오브 탐이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범고래만 찍어요. 이 사람은 범고래를 찍는 것이 직업이예요. 정확하게 범고래의 생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예요.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 가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범고래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카메라맨들 40여명과 날고 기는 PD들을 전부 동원해서 <Planet Earth, 살아있는 지구>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거죠. PD라는 건 말 그대로 조율하고 그런 역할이 있지 필드에 강할 순 없거든요. 필드에 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새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중만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피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역사 같은 경우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김무관 PD)

그는 PD들도 세부적인 아이템 관련 전공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동물생태학, 식물생태학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작품을 제작하는 것과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 처음으로 자연에 뛰어들어 공부하듯이 제작하는 것에는 응당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학부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PD들을 활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큐멘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PD들이 시스템화와 제도화된 틀 속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역량이 축적되어도 그런 것은 단발로 끝나기 때문에 조직 전반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무관 PD는 ‘다

48) 표재순 : 제35회 한국방송대상 본선 심사위원장. 출처: 제35회<한국방송대상 시상식> 리플렛

양한 것들이 한 바구니에 담겨야만 작품의 영향력도 커지고 피디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작품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작해야 한다. 그래서 뭔가 그런 그릇이 필요하며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각자 개별적으로 한 그릇 속에서 제작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지금은 그릇이 영향력이 없다보니 개별 피디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묻혀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릇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에 거기서 키워진 PD들이 다양하게 분화되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향후 한국 다큐멘터리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6. 과학 다큐멘터리의 성장과 제작 전략

EBS는 2010년 이후 <교육대기획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EBS 다큐프라임>을 통해 <자본주의>, <음악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가?>, <진화의 신비 4부작>, <가족 쇼크 9부작>, <넘버스>, <명의> 등으로 다큐멘터리 부문에 있어서 한국방송대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주목받으며 일약 성장하였다. 방송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콘텐츠를 다루면서 다양한 영역에 있는 교육의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내어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것이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 자연과 물리, 천체, 의학, 역사, 수학 등 상대적으로 일반 지상파방송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소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다큐의 영역을 개발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들의 다른 다큐멘터리들과는 문법이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EBS만의 독특한 문법을 만들어 낸 것 같고요. 어떤 교육적 아카데미즘을 기본에 두고 그것을 오늘날의 사회적인 요구상황과 재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결합이 중요합니다. 원래 문명에 발전을 기여한 모든 아카데미즘에 대해,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학문 자체는 예전으로부터 내려왔던 수학이라던가 물리학 이런 부분들이 기초로 하지만 너무 이론적으로 딱딱하죠. 그런 것들을 재연과 CG등을 통해 편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성욱 PD)

EBS는 고유한 편성이념에 입각해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품질평가 기준을 2001년에 한국방송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적으로 유익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고, 감동을 주며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EBS 교육방송의 설립목적에 맞춘 프로그램 제작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EBS에서는 딱딱한 교육 내용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제작 전략으로 삼았다. 이러한 전략 아래 지상파 방송사와 다른

그들만의 다큐멘터리 제작 문법을 개발한 것이다. 최근 EBS의 특성을 살려 본격적으로 교육 관련 다큐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학교란 무엇인가?>를 제작한 정성욱 PD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변화의 타이밍과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 선생님에 대한 어떤 실망과 그와 함께 커지는 기대, 교육에 대한 변화, 혁신학교 등이 당시 부각되었고, 두 번째는 다큐에 부정적인 얘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참 이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지식을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말고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풀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위주로 그 중심에 선생님이 있고, 그 중심에 학생이 있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스토리들을 풀어나갔던 것들이 공감을 좀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성욱 PD)

그림 18.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 장면 캡처49)



당시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에 포맷 수출을 기록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는 최초 해외 수출이었으며, 정성욱 PD는 베트남 현지 방송사 스템들에게 제작 노하우를 전수했다. 화면 구성과 컷트, 그리고 스토리 구성 등을 똑같은 방법으로 제작하되, 한국 교실이 아닌 베트남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의 기본 스토리는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신청을 받은 이후 교실을 관찰한 다음에 수업 중 선생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 스스로 파악하게 한 후, 문제를 깨달은 선생님이 스스로 변화해가는 모습 전 과정을 담아낸다. 교육의 본질을 수업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가 마음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한다’는 것을 교육의 본질이라 본 것이다. 그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다음날에는 아이들한테 가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업이 맞았는지, 혹시 잘못된 건 아니었는지 한 번 성찰해보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수업은 과연 무엇일까? 선생님이 달라질 수 있는 다큐멘터리로 기억되기

49) 출처 : <http://home.ebs.co.kr/docuprime>

를 바라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작 과정에서 다큐멘터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주제, 구성, 촬영, 편집 등 프로그램의 유기성을 최우선시 했음을 강조했다.

<학교란 무엇인가?>로 창사 이후 가장 큰 영예인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받은 EBS PD들은 축적된 역량과 자신감을 근간으로 본격적인 과학 다큐멘터리 영역으로 진출하였다. 김형준 PD는 2005년에 수리물리학과 관련되어 <생명의 디자인 3부작>, 2011년 <문명과 수학>, 2013년 상대성 이론 및 양자와 관련된 <빛의 물리학 6부작>, 2015년 <넘버스>를 제작하였다. 전공자들에게조차도 어려운 물리, 수리학을 소재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이다.

<빛의 물리학>은 국내에서 물리학을 정통으로 다룬 본격적인 과학 다큐로, 빛을 중심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설명한다. 4개월 동안 영국과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 11개국을 방문, 과학자 갈릴레오, 뉴턴, 맥스웰,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의 일화를 통해 어려운 물리학의 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넘버스>는 <제1부. 하늘의 수, π >, <제2부. 천국의 사다리, ∞ >, <제3부. 자유의 수, x >, <제4부. 신의 손짓, 0 >, <제 5부. 천공의 수, i > 5부작으로 2년이 넘는 제작 기간 동안 이란, 중국, 그리스, 독일, 튀니지 등 15개국의 나라에서 현지 촬영을 진행했다. 국내외의 수학자, 수학역사학자의 고증과 조언을 바탕으로 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과 천재 수학자들의 극적인 순간들을 중국, 튀니지 현지에서 200여명의 배우와 스태프를 참여시켜서 재연하기도 했다. 규모면에서 한국의 과학 다큐멘터리 제작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대작이었다.

“넘버스는 수에 관련된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학교 다닐 땐 잘 못 배워요.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 학문인데. 왜 중요한지 학생들을 포함해서 가르쳐주면 시청자들이 좀 더 뭐랄까? 사는 것이 더 풍요로워지고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나 갈증, 삶의 지식 등 알고 싶은 욕망 같은 것이 순간적으로 이런 작품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수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비밀을 드러낸다는 식으로...” (김형준 PD)

과학 다큐멘터리는 과학의 기본 원칙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질문에서 출발해 사회, 정치, 종교, 철학과 같은 사회 전반적 문화와 더불어 과학적 지식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수(1997)에 따르면, 과학은 본질적으로 재미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가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강점과 매력은 로고스적 욕망을 채워주는 즐거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즐거움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지식추구를 할 때, 교육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삶을 찾아가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인이 수학을 할 수도 있고 수학자가 시나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원래 한 몸인데 마치 다른 애처럼 이렇게 하고 하니깐. 수학자들도 그런 고민을 깊이 안 해요.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늘 생활에 있으니까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슈가 나왔고 철학적 바탕이 어딘가? 저도 전공은 자연과학 쪽이 아니고 인문계라서 수학을 잘 모르지만 그런걸 보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보다는 원래 있는 시각을 복원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프로그램을 조금 교육정책자들이 많이 보셔가지고 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김형준 PD)

다큐멘터리 PD에게 있어 가장 큰 바람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사회 변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이런 점에서 <넘버스>는 수학 분야에 있어서 교육의 본질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에 집중된 교육의 현실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에 철학의 영역을 가미함으로써 수학적 창의력의 중요성을 교육에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적 용도의 다큐멘터리를 교실 현장을 떠나 일반 대중에게까지 파고드는 EBS의 과학 다큐멘터리의 실험은 커다란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실험과 노력들은 한국 다큐멘터리의 장르를 보다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19. <다큐멘터리 넘버스> 장면 캡처50)



“EBS는 시청률이 1%가 나오면 성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EBS는 자기 장점을 살려서 잘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MBC 같은 경우는 1%가 나오면 이건 실패한 다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다큐를 보는 시청층을 넓혀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큐 매니아들이 볼 때는 부족한 면이 많구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EBS와

50) 출처 : <http://home.ebs.co.kr/docuprime>

MBC가 안고 있는 문제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자본의 원리로 간다면 드라마나 이런 쪽에는 통하지만 돈 안 되는 다큐는 죽어야 돼요. 상업적인 논리로 푼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교과서를 일반 웹툰 시장에 같이 내놓고 많이 팔려야지 교과서가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교과서나 교양서적은 다른 식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방송사에서는 시청률이나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편성을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김형준 PD)

김형준 PD는 다큐멘터리의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매우 강조했다. 이는 현재 갈수록 어려워지는 다큐멘터리의 제작 환경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들어오면서 지상파방송에 특권으로 제공되었던 채널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반면, 물가 인상에 따른 제작비 상승 등으로 공공 서비스를 실천하는 공적 의무비용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강형철, 2008). 특히 다큐멘터리는 다른 장르에 비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다는 점에서(원용진, 2000) 공공재로서의 특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장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의 경우, 다른 장르에 비해 시청률이 비교적 낮아 방송시장에서 자발적인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맡길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한국의 다큐멘터리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제5장 결론

제1절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1973년 이후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수상작 267편을 전수 조사하여 한국 다큐멘터리의 기능과 장르, 주제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당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담당 PD 15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어떤 기획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는지 장르별 제작 전략을 파악하였다.

1. 한국 다큐멘터리 내용분석 결과

한국 다큐멘터리의 시대별 분류를 위해 정치적 변화 시점을 중심으로 1기는 박정희 정권으로 1973년부터 1979년, 2기는 전두환 정권으로 1980년에서 1987년, 3기는 노태우, 김영삼 정권으로 1988년부터 1997년, 4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1998년부터 2008년, 그리고 마지막 5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로 설정했다.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을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1기 8편, 2기 23편, 3기 77편, 4기 84편, 5기 75편 등으로 후기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후기로 올수록 다양한 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장 최근인 5기에 들어 수상작의 상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방송대상은 초기에는 주로 수도권 지상파가 수상해 오다, 후기로 올수록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지역방송사들의 수상작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방송대상이 1987년부터 작품상 시상 부문을 확대, 지역 부문을 신설하고 다시 부문을 보도와 교양 부문으로 나눠 시상 제도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수도권 지상파 방송에 비해 인력, 예산 규모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방송사를 위한 일종의 배려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지역 다큐멘터리의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1) 한국 다큐멘터리 기능적 특성 내용분석 결과

한국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다큐멘터리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다큐멘터리의 기능은 정치적으로 대중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발시키기 위한 선

전적 기능, 사회정의를 위해 사회비리 및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탐사보도 기능, 특정 대상의 본질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관찰적 기능, 그리고 선전, 탐사보도, 관찰 기능에 속하지 않은 다른 기능으로 대안적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시대별 다큐멘터리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한국 다큐멘터리들은 전반적으로 탐사보도 기능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관찰기능, 선전기능, 대안적 기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한국방송대상 시상을 시작한 초기에는 다큐멘터리의 선전기능을 중시한 반면, 후기로 올수록 다큐멘터리의 대안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한국방송대상에서 반공, 새마을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우리는 증언한다 6·25>, <근대화100년>, <인간만세 어느 복역인의 영광>, <인간만세 백로들의 합창> 등과 같은 다큐멘터리들은 정책 홍보와 국민 계도를 위한 선전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5기에 들어오면서 대안적 기능이 증가한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다양한 장르의 다큐멘터리의 약진에서 비롯되었다. 부산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드라마 재연 방식을 도입하여 제작한 <부산 재발견>, 200년 전의 책, 의례에 기록된 8일간의 축제를 3D영상으로 복원한 <의례 8일간의 축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대중문화예술인을 음성복원 및 UHD 홀로그램 기술 등으로 되살려 제작한 <환생 2부작> 등과 같은 다큐멘터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다큐멘터리로서 대안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2) 한국 다큐멘터리 장르적 특성 내용분석 결과

한국 다큐멘터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큐멘터리의 장르를 살펴보았다. 한국 다큐멘터리의 장르는 각종 국가 홍보나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 정책 다큐멘터리, 인간들의 삶을 소재로 잔잔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휴먼 다큐멘터리,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이나 환경감시의 메시지를 담은 자연 다큐멘터리, 정치, 경제, 사회적인 사건이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시사 다큐멘터리,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문화현상들에 주목한 문화 다큐멘터리, 역사적인 사건들을 조명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역사 다큐멘터리, 일반적인 과학상식 혹은 최첨단 과학기술 등을 전달해 주는 과학 다큐멘터리로 분류하였다.

한국 다큐멘터리의 장르는 전체적으로 시사 장르가 78편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이어 자연 54편, 휴먼 46편, 문화 43편, 역사 22편, 과학 16편, 정책 8편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한국 다큐멘터리의 장르는 초기에 비해 그 장르가 다양해졌으며, 또한 전 시기에 비해 시사 다큐멘터리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후기에 들어오

면서 정책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사 장르가 비중이 높은 것은 <KBS일요스페셜>, <추적 60분>, <MBC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시사기획 창>,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시사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사회 비리 고발, 해외 경제 문제, 소비자 고발, 정치개혁 문제, 대형사건 추적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의 장르별 기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정책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모든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탐사보도기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의 공공저널리즘 실현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탐사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다큐멘터리는 주로 시사적인 이슈들을 다룬다. 이에 따라 시사적인 사건이나 현안의 원인과 배경, 사회적 의미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그 사안의 사회적 의미와 맥락을 밝히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공공저널리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 다큐멘터리 세부 주제적 특성 내용분석 결과

정책 다큐멘터리의 수상작은 전기에서만 등장했고, 후기에는 수상작이 없었다. 정책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반공 관련 주제가 3편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이어 새마을, 정책 홍보가 각각 2편, 정권 홍보가 1편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초기에는 주로 정권을 홍보하거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제를 다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다양한 주제가 혼합된 시사종합, 해외, 북한 등 국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대별로 장르에 따른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를 주제로 한 시사 다큐멘터리가 3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사종합 18편, 국제 16편, 경제 7편, 정치 3편, 교육 2편, 문화 1편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대별 시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초기에 비해 후기로 올수록 그 주제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먼 다큐멘터리의 수상작은 후기로 올수록 그 수가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주제들은 유명인이나 영웅, 보통 사람으로 일반인 중심, 유명인과 보통사람들이 함께 출연하는 휴먼 종합, 장애인이나 다문화,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다루는 특수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휴먼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특수대상 26편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이어 일반인 중심 15편, 영웅 중심 4편, 휴먼종합 1편 순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휴먼 다

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주제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다 최근에 들어 다소 편협해진 양상을 보여주었다.

자연 다큐멘터리의 수상작은 후기로 올수록 증가하다가 최근에 들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바다, 강, 산, 동식물의 일기 등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화면에 담아내는 자연 중심, 환경파괴로 인해 생태적 위기에 처한 지구의 실상과 황폐화되어가는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환경 중심, 그리고 자연을 위해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환경 소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29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자연 중심 21편, 인간 중심 4편 순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초기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후기로 올수록 다양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학 다큐멘터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의학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간, 동식물, 첨단기술, 지구천문학 순으로 높게 등장했다. 과학 다큐멘터리 세부주제는 초기에는 첨단기술, 지구천문학을 주로 다루어오다, 후기에 들어서면서 인간, 동식물 등의 주제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학 관련 주제는 대부분의 시기에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사 다큐멘터리의 수상작은 후기로 올수록 증가하다가 최근에 들어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 다큐멘터리의 세부 주제는 유명인이나 영웅 중심, 보통 사람들로 일반인 중심, 유물이나 유적 중심, 역사적 사건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역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유물/유적 중심 10편, 사건 중심 9편, 이어 영웅 중심으로 2편, 일반인 중심 1편 등으로 나타났다. 후기로 올수록 그 주제의 다양성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물/유적 중심, 사건 중심은 비교적 꾸준히 다루어져 왔으나, 일반인 중심의 역사 다큐멘터리는 단 1편에 그쳤으며, 후기로 올수록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다큐멘터리의 수상작은 후기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문화 다큐멘터리의 세부 주제는 음악, 미술, 문학, 전통문화, 대중문화, 기행, 종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문화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통문화 23편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행 7편, 음악 5편, 대중문화 4편, 미술 2편, 종교 1편 순으로 확인되었다. 문화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는 후기로 올수록 그 주제가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대중문화, 기행, 종교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들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 다큐멘터리의 질적 분석 결과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들이 어떠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떤 의도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대별, 방송사별, 연도별 등을 고려하여 담당PD 15명을 심층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층 인터뷰는 2018년 5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 방식은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개괄적인 흐름은 유지하되, 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이야기가가 흘러가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면접 안내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정책 및 역사 다큐멘터리의 태동과 제작 전략

초창기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주로 정부의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 제작되었다. 당시 한국의 방송사들은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1973년 한국방송대상이 시작된 이후, 당시 문화공보부는 프로그램의 건전화를 기하고 교육적·계몽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방송 3국에 TV프로그램의 편성을 변경하도록 행정적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저녁 8시 시간대에 정책 다큐멘터리들이 편성되었다. 정부의 홍보 차원의 아이템들인 반공, 새마을, 국가 정책 홍보에 관한 작품들이 제작되고 방송된 것이다. 장윤택 PD는 <인간만세>, <인간승리> 등 정책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초로 한국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틀과 구성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이후 정책 다큐멘터리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전쟁에 관한 대하 다큐멘터리이다. 강대영 PD는 미국 내셔널아카이브에 있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필름들을 구입, 한국 방송 최초로 전쟁 당시의 실상과 기록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과거의 세대보다 미래의 세대를 위한 작품을 제작하자며 PD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전의 정책 다큐멘터리와는 다른 작품성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는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전략에 있어서 ‘역사에 대한 진지한 접근’, ‘담담한 톤의 내레이션’, ‘충실한 자료와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적인 인력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될 때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휴먼 다큐멘터리의 발전과 제작 전략

휴먼 다큐멘터리의 전성기는 MBC에 의해 주도되었다. <인간시대>를 기획한 이궁희 PD에 의하면, 당시 보통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와 ENG 카메라의 등장으로 지극히 사적인 한 개인의 영역을 가장 내밀하게 그려내는 등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밀접하게 형성되는 휴머니즘의 진수를 표현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은희현 PD 또한 휴먼 다큐멘터리의 성공 비결의 핵심은 어떤 인물을 선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보통사람을 대상으로 촬영 계획서인 콘티 없이 대상 인물과 주변 인물들을 촬영하고 그 속에서 위기의 구조를 구성해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펼쳐내면서 따뜻하면서도 색다른 시선으로 구성하는 제작 전략이 휴먼 다큐멘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미현 PD는 일반적으로 휴먼 다큐멘터리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특별한 사연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야 스토리에 드라마틱한 위기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한 PD 자신만의 시각을 가질 때 완성도 높은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자연 다큐멘터리의 도전 및 제작 전략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계가 주는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다루는 자연 다큐멘터리도 주로 MBC에 의해 주도되었다. <어미새의 사랑>을 제작한 최삼규 PD는 빠꾸기의 착란 과정과 아기 원앙의 번지점프, 물총새의 먹이 포획 장면 등을 성공적으로 영상에 담아내어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제작 전략으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자연의 영상과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보고 인내와 땀으로 촬영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간과 결부되어 자연의 생태를 다루면서 환경의 가치와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연 다큐멘터리로 <갯벌은 살아있다>를 제작한 장덕수 PD는 자칫 지루하기 쉬운 자연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위해 편집 단계에서 구성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주입식 구성만으로는 실패하기 쉬우며,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궁금증이나 지적 호기심을 자아내도록 유도, 몰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촬영 단계에서 ‘미끼’가 될 만한 소재나 스토리를 발견하면 그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까지 철저하게 담아내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자연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는 지역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이 약진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김귀진 PD는 메이저 방송들이 공략하지 못하는 지역의 틈새 아이템을 찾아내어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함으로써 지역의 자연과 환경 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물론, 지역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지역성 구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 시사 다큐멘터리의 제작 전략과 VJ의 탄생

시사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KBS, MBC, SBS 등 방송사마다 차별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문명사, 인간사, 자연사를 주로 다루어온 타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SBS는 실생활과 밀착된 다큐멘터리에 주목했다. MBC의 지구의 눈물 시리즈에 맞서 ‘최후’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다큐 시리즈로 <최후의 제국>을 제작한 장경수 PD는 시사 다큐멘터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PD가 세상에 던지는 화두가 뚜렷한 아이템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아이템을 쉽고 감성적이며 사례 중심으로 풀어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하고 편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구축된 소비 지향적 자본주의 시스템, 그 결과 나타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간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것을 프로그램 제작의 목표로 삼아 <다큐멘터리 재앙>을 제작한 박진홍 PD는 제작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전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연출자가 확고한 신념과 통찰을 유지해야 부분적인 수정이 이뤄지더라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사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소형 카메라의 등장과 함께 VJ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한 조한선 PD는 일본 연수를 통해 배운 VJ시스템을 방송사에 접목시켜 소형 카메라의 장점을 활용한 <리얼TV>를 대중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이는 최근에 들어 ‘1인 제작 시스템’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사에서도 이들의 개별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다큐멘터리 제작 시스템 개발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문화 다큐멘터리의 대형화 및 제작 전략

문화 다큐멘터리의 대형화는 KBS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 NHK의 <실크로드>가 KBS 1TV를 통해 방송된 이후, 이에 자극을 받은 KBS PD들이 <인사이트 아시아>를 기획, 아시아를 통찰하는 대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진기웅 PD는 그 신호탄으로 <양자강 8부작>을 통해 양자강의 발원지에서부터 중국을 관통하는 강 주변 55개 소수민족이 6천여 년 간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을 겪으며 문명복합체로 형성해온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내어 <실크로드>에 버금가는 완성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주제적

인 측면에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어느 한 지역의 문화를 우리 시선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여주도록 설정했다. 특히 전체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서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촬영 콘티를 따라가되,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이나 인물들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이후 그는 당시 다큐멘터리 최초로 모션 캡처 CG 기법을 이용해서 몽골 유목민의 기마군단이 초원을 질주하는 장면 등을 재현한 <몽골리안 루트 8부작>을 통해 KBS 대하 문화 다큐멘터리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인사이트 아시아>는 계속 이어져 김무관 PD는 <차마고도>를 제작하였다. 그는 유럽 진출을 목표로 아이템, 구성, 편집, 음악, 자막, 내레이션 등 모든 제작 방식을 유럽인에게 맞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그 결과 유럽 등 세계 80여 국가에 다큐멘터리를 수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그는 BBC처럼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의 세부 관련 전공자들을 PD로 채용하여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개인의 개별적 역량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제작 역량이 발휘될 때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6) 과학 다큐멘터리의 성장과 제작 전략

2010년 이후 한국방송대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EBS의 과학 다큐멘터리이다. EBS는 고유한 편성이념에 입각해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적 유익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고, 감동을 주며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목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즉, EBS 교육방송의 설립목적에 맞춘 프로그램 제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EBS는 다소 딱딱한 교육 내용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제작 전략으로 삼는다.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을 제작한 정성욱 PD는 EBS 다큐멘터리의 특성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자연과 물리, 천체, 의학, 역사, 수학 등 상대적으로 지상파 방송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소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다큐의 영역을 개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넘버스>를 제작한 김형준 PD 또한 과학 다큐멘터리는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이나 갈증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로고스적 욕망을 채워주는 즐거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즐거움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지식추구를 할 때, 교육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삶을 찾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물리 수학의 영역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교육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다큐멘터리는 산업화의 논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한국 다큐멘터리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2000년 이후에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7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5년 동안 한국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다큐멘터리의 특성과 제작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어떤 기능과 장르, 세부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 양적, 질적 분석에 기반을 둔 통시적인 심층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 다큐멘터리 완성도 고양을 위해 PD들이 어떤 제작전략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을 제작한 PD들과의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국방송대상을 시상하기 시작한 이래 한국 다큐멘터리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방송사마다 많은 교양오락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 기법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큐멘터리의 영역을 구분한다는 것은 학자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장르의 구분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구자에 따라 다소 자의적이고 편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도 장르의 분류를 자의적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4·3특별기획 음악다큐멘터리 산, 들, 바다의 노래>의 경우, 주제는 4·3이라는 역사에 근거하고 있지만, 소재는 음악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일부 다큐멘터리에서 다수의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주제에 근거하여 장르를 분류하였다. 또한 최근에 들어 다양한 장르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포맷을 시도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중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제작자의 상상력이 더해진 창의적인 방법으로 장르의 융합을 시도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다큐멘터리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심층 인터뷰는 양적연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보완되었지만 대상자들의 인터뷰 내용으로 한국 다큐멘터리의 제작 전략으로 일반화시킨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초창기의 다큐

멘터리 제작자들의 증언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많은 PD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역사 다큐멘터리에 대한 다양한 PD의 제작 전략을 폭넓게 살펴보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향후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하여 PD들의 연령대, 지역, 분야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폭넓게 인터뷰가 이뤄진다면 보다 일반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앞으로 미디어 생산자 연구를 위해서 보다 많은 PD들이 다큐멘터리의 이해와 발전을 위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별 다큐멘터리 텍스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현직 PD로서 30여년 간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축적된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이 연구결과에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특성과 제작 전략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가급적 배제하고 이를 객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 다큐멘터리 텍스트 분석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생산자 연구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품질 평가와 융합한 연구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창의성이라 할 수 있는 ‘끼’가 프로그램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대인 (1993). <한국 텔레비전 편성의 특성과 전략에 관한 연구: 방송운행표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9-30.
- 강대인 (2007). 한국 방송 80년의 회고와 전망. <방송과 콘텐츠>, 4호, 16-50.
- 강승목 (2002). <텔레비전 휴먼 다큐멘터리의 서사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인간시대와 인간극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승엽 (2002). TV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서 연출성에 관한 연구: 국내 TV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5권, 71-82.
- 강승엽 (2005).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영상표현에 관한 연구: TV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영상표현을 중심으로.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8권, 7-21.
- 강승엽 (2008). HDTV 방송제작시스템 도입에 따른 TV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영산논총>, 제18집, 39-62.
- 강진숙·이광우 (2012). 문화예술 프로그램 생산자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EBS <문화공감> 제작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4호, 340-478.
- 강현두·김우룡 (1989). <한국방송편성론>. 서울:나남, 178-179
- 김균·전규찬 (2003). <다큐멘터리와 역사-한국 TV 다큐멘터리의 형성>. 서울: 도서출판 한울. 145-146.
- 김기배·권호영(2005). TV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과 성과 간의 관계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36-56.
- 김동규 (1992). 방송상품생산에 관한 조직경제론적 접근: 조직의 이원성과 생산 메커니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8권, 69-103.
- 김미라 (2007). 다큐멘터리 소재와 시장 성과 간의 관계 연구. <한국방송학보>, 21권 5호, 7-37.
- 김민하 (2008). 한국 언론의 탐사보도와 시민공동체 형성의 전망.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105-128.
- 김선진 (2013).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의 매체 확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아마존의 눈물’ TV판, 영화판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3권 2호, 473-484.
- 김우룡 (1989). <방송학 강의>. 서울: 나남. 172-173.

- 김예란 (2003). 텔레비전 이야기하기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31-87.
- 김택환 (2005.12.7). 실종된 저널리즘. <중앙일보>, 5.
- 김희경 (2004). TV 다큐멘터리의 상업성과 공익성 절충 모델로서의 장르 확장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5권 1호, 149-190.
- 나미수 (2005). 민속지학적 수용자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국내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2호, 68-105.
- 나미수·전오열 (2006). TV시사 다큐멘터리의 서사 비교연구: ‘트랜스젠더’ 주제 ‘추적60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권 4호, 89-132.
- 남성우 (1992). TV다큐멘터리와 그 논의를 위한 사적 고찰. <방송시대>, 가을호, 351-368.
- 노동열 (2009). 창의적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드라마 생산조직의 특성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0권 2호, 66-107.
- 노정팔 (1995). <한국방송과 50년>. 서울: 나남출판. 480-488.
- 류철균·문아름 (2014). 국내 TV 자연 다큐멘터리 에필로그 시스템에 나타난 서사 전략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권 4호, 67-77.
- 문성철 (2006). 프로그램 제작 창의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직문화, 조직지원, 제작환경요소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진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125-165.
- 문원립 (2010).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영화연구>, 43호, 115-140.
- 민병헌 (2007). TV 시사 다큐멘터리 영상구성의 사실성 구현에 관한 연구: 그때 그 순간 1987년 6월의 기록에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10호, 7-31.
- 민병헌·백선기 (2009). TV 시사 다큐멘터리 영상구성방식과 사실성 구현에 관한 연구; KBS, MBC, SBS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267-295.
- 박덕춘 (2005).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촬영기법의 특성 연구: 대구 MBC ‘휴먼 스토리-나의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5권 1호, 169-194.
- 박성일 (2002). <90년대 이후 한국 다큐멘터리의 지식생산에 관한 연구: 다큐멘터리 ‘미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29.
- 박지훈·류경화 (2010). 국제시사 프로그램의 생산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MBC<W>의 서구와 제3세계 재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8권 2호, 2-39.

- 방송문화진흥회 (1997). <방송문화사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백완기 (1981). 정책결정에 있어서 공익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15집, 144-149.
- 신철하 (2011). TV다큐멘터리와 화법 -‘누들로드: 세상의 모든 국수’편. <한민족 문화연구>, 37집, 315-342.
- 심홍진·김세은 (2009). “PD는 무엇으로 사는가?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예능PD의 인식.” <한국방송학보>, 23권 6호, 168-208.
- 안병규 (2009). TV 다큐멘터리 장르 차이가 빚어내는 ‘이주여성’의 현실재현 비교. <언론학연구>, 13권 2호, 121-168.
- 양원홍·박경숙 (2011). 방송PD의 프로그램 제작 능력 습득과정에 관한 연구: 제주 지역지상파 PD들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권 3호, 69-109.
- 양원홍·박경숙 (2017). 지역문화예술 TV 프로그램 PD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 지역 지상파PD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권 2호, 173-204.
- 오수진 (1993) <보도다큐멘터리의 형식 비교 연구: ‘PD 수첩’과 ‘그것이 알고 싶다’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용진 (1999). 담론적 접근으로 풀어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황인성 (편), <텔레비전 문화연구>. 서울: 한나래, 135-168.
- 원용진 (2000). <텔레비전 비평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77-79.
- 연정모·김영찬 (2008). 텔레비전 연예정보 프로그램이 생산자문화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KBS 2TV <연예가 정보>의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권 2호, 82-122.
- 유현석 (2007). 다큐멘터리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3권 1호, 101-118.
- 유현석 (2009). 다큐멘터리를 이해하는 방법: 진실과 리얼리티. <사회과학연구>, 15권 1호, 83-101.
- 이규정 (2009). <TV다큐멘터리의 한국 현대사 재현과 사회적 함의: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24.
- 이기형 (2009). <돌발영상>의 풍자정신 그리고 정치현실에 대한 환기효과를 맥락화하기: 생산자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 <방송문화연구>, 21권 2호, 81-115.
- 이오현 (2005).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생산과정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

- 구: KBS ‘인물현대사’의 인물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3권 2호, 117-156.
- 이오현 (2007). KBS ‘인물현대사’의 출현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30-53.
- 이종수 (1999). 뉴스 다큐멘터리의 서사미학과 영상미학: 베트남전쟁에 관한 CBS 뉴스 다큐멘터리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3호, 70-98, 4권 3호, 5-37
- 이종수 (2000). 영상 다큐멘터리 역사재현의 현실성과 표현성. <한국언론학보>, 44권3호, 301-341.
- 이종수 (2002). 한국 휴먼 다큐멘터리의 시대성과 사회성-다큐멘터리 내용, 형식의 변화와 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0권 2호, 35-72.
- 이종수 (2010). 자연/ 환경 다큐멘터리의 서사 전략. <한국언론연구>, 54권 3호, 374 -398.
- 이종탁 (2010). VJ방송프로그램의 수용자 평가척도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권 10호, 135-143.
- 전평국 (1995). <영상 다큐멘터리>. 서울 나남. 19-20.
- 전혜선 (2009). 방송프로그램 품질평가지수에 관한 비교연구; KBS의 품질평가지수, MBC의 QI, SBS의 ASI를 중심으로. 고려대 <사회과학연구>, 15권 2호, 369-395.
- 조재홍 (1996). 잃어버린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현대 다큐멘터리의 경향에 비추어 본 개념과 오해. <방송시대>, 봄호, 52-68.
- 최선열·유세경 (1999). 텔레비전 드라마의 역사성 연구: 정치적·경제적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3권, 7-46.
- 최세경·양선희·김재경 (2006). 방송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방송연구>, 여름호, 171-199.
- 최양묵 (2003).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2-34.
- 최창봉·강현두 (2001). <우리 방송 100년>. 서울: 현암사. 207-210.
- 최현주 (2006). 다큐멘터리 장르에 따른 서사구조 비교분석: ‘새만금 감척사업’에 대한 KBS의 ‘환경스페셜’과 ‘추적60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권 2호, 415-441.
- 최현주 (2013).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방식의 변화. <언론과학연구>, 13권 2호, 397-432

- 한국방송협회 (2008). <제35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리플렛.
- 한국방송협회 (2011). <제38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통권1호.
- 한국방송협회 (2012). <제39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통권2호.
- 한국방송협회 (2013). <제40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통권3호.
- 한국방송협회 (2014). <제41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통권4호.
- 한국방송협회 (2015).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통권5호.
- 한진만 (1995). <한국 텔레비전 방송연구>. 서울 : 나남.
- 허은광 (2005). The Genre of Committed Documentary : Political Documentary in South Korea, 1988-2003. <한국영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8.
- 홍지아 (2002). 디지털 기술이 다큐멘터리 제작의 방식과 내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0-153.
- KBS 문화사업단 (1991).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상,하> 서울: 유진특수인쇄.
-
- Berger, A. (1982). *Media Analysis Techiques*. 한국사회언론학회 역(1990). <대중매체비평의 기초>. 서울: 이론과 실천.
- Bluem, A. W. (1952). *Documentary in American Television*. NewYork : Hastings House Publishers.
- Bourdieu, P. (1993).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Ed by R. Johnson. Cambridge: Polity.
- Cantor, M. (1971). *The Hollywood TV Producer*, New York: Basic Books.
- Corner, J. (2002). 'Performing the Real: Documentary Diversions', *Television and New Media* 3(3), 255-69.
- Crane, D. (1992). *The Production of Culture: Media and the Urban Arts*. Newbury Park: Sage.
- Dimaggio, P. & Hirsch, P. (1976). *Production organizations in the arts*. In R. Peterson (ed.), *the Production of Culture*. Berverly Hills, CA: Sage, 73-90
- Dornfeld, B. (1998). *Producing public television, producing public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laherty, F. (1958). *Robert Flaherty: Explorer and Film Maker* Mimegraphed. New York: Hasting House

- Gitlin, T. (1981). *Inside Prime Time*. New York: Pantheon Books
- Grierson, J. (1966). *Grierson on Documentary London* : Faber, (First Published: in 1946). 159-165.
- Henderson, L. (1999). <Storyline> and the multicultural middlebrow: Reading women's culture on national public radio.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6(3), 329-349.
- Henderson, R. M. & Clark, K. B. (1990). Architectural Innovation: The Reconfiguration of Existing Product Technologies and the Failure of Established Fir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 : 9-35.
- Jensen, J. (1984). An interpretive approach to cultural production. W. D. Rowland & B. Watkins (eds), *Interpreting Television: Current Research Perspectives* Bererly Hills: Sage, 172-194.
- Johnson, R. (1986). What is cultural studies anyway? *Cultural Text*, 16, 38-80.
- Kilborn, R. (1992). *How Are Television Soaps Produced? in Television Soaps*, London Batsford, 305-319.
- Lutz, C. & Collins, J. (1993). *Reading <national Geographic>*.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chael Renov. (ed.) (1993). *Theorizing Documentary*, Routledge, 76-77.
- Newcomb, H & Lotz, A. (2002). The production of media fiction in Klaus Bruhn Jensen. *A Handbook of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London : Routledge. 62-73.
- Nichols, B. (2001). *Introduction to Document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이선화 역(2005). <다큐멘터리 입문>. 서울 : 한올아카데미. 167-220.
- Peterson, R.(ed.) (1976). Production of culture: A prolegomenon. In *The Production of Culture*. Berverly Hills, CA: Sage. 7-22.
- Plantiga, C. (1997). *Rhetoric And Representation In Nonfiction Film*. Cambridge University Press. 307-324.
- Rabiger, M. (1992). *Directing the Documentary*. 조재홍·홍형숙 역(1997). <다큐멘터리>. 서울: 지호, 46-48.
- Rosenthal, A. (1996). *Writing, Directing, and Producing Documentary Film and Videos*. 안정임 역(2002). <다큐멘터리 제작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Rosenthal, A. & J. Corner (eds) (2005). *New Challenges for Documenta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Ryan, J. and Peterson R. A. (1982). “The product image : the fate of
creativity in country music song writing”, in J. S. Ettema and D. C.
Whitney(eds.), *Individuals in Mass Media Organization* , Beverly Hills,
CA: Sage. . 11-32.
- Schudson, Michael. (1991). *The sociology of news production revisited*. In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London:
Edward Arnold,149-169.
- Schudson, Michael. (2001). The objectivity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2(2), 149~170.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London: The Tree Press.
- Turrow, J. (1991). *Playing Doct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CA: SAGE

2. 홈페이지

한국방송협회 <http://www.kba.or.kr>
KBS한국방송공사 <http://www.kbs.co.kr>
MBC문화방송 <http://www.imbc.com>
SBS민영방송 <http://www.sbs.co.kr>
EBS교육방송 <http://www.ebs.co.kr>
BBC영국국영방송 <http://www.bbc.com>

Abstract

Documentary has been produced as an important program for every broadcasting company, offering a message for the quality of human life and social change. Korean Broadcasting Awards will be awarded to selected documentaries that have been produced annually since 1973.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documentary 's function, genre, and theme were analyzed by period, focusing on the 267 award winners. In addition, we interviewed 15 PDs who won the Korean Broadcasting Grand Prix and deeply interviewed them to understand the program making process and the production strategy for improving the program comple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of documentary, Korean documentary has main function of exploration function and observation function through early propagandistic function. Recently, alternative function has been emphasiz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time. In documentary function according to genre, overall documentary genre except policy document has the highest exploration report function, while documentary genre has no alternative function except for current documentar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documentary. In the case of policy documentaries, only promotional functions were confirmed. In the subject of current affairs documentary, social issues were treated most, followed by current affairs, international, economics, politics, education and cultu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tails of the human documentary, documentaries covering special subjects such as disabled people, multicultural families, and boys and girls were the most popular, followed by the public, the hero, and the human. In the subject of the natural documentary, the theme of the environment was the most, followed by the nature center and the human center. In the science documentary, documentaries covering medical topics were the most common, followed by humans, plants and animals, advanced technology, and earth astronomy. In the case of historical documentaries, it was mostly related to relics / historical sites, event-oriented themes, followed by heroic and general people. In the cultural documentary, the most award-winning works dealing with traditional culture were followed by travel, music, pop culture, art and religion. In the policy documentary, anti-communism topics were treated the most, followed by Saemaul, policy promotion, and government promotion.

As a result of the in - depth interviews with 15 PDs, documentaries

started from the 1960s mainly consisted of works on anti - communism, The human documentary was evaluated to be able to express the essence of humanism in the most intimate personal area with the social atmosphere and ENG camera that showed high interest in ordinary people at the time. In the case of a natural documentary, it was emphasized that the composition strategy of the editing stage is very important for the completeness of the work. In other words, because of the high possibility of failure in the injection type configuration, people should be able to induce their curiosity and intellectual curiosity and provide a device that can immerse themselves. The current documentary has shown that PD should be produced on the basis of a clear subject matter that will be given to the world as a practical help to people. He emphasized that a strategy to solve difficult topics easily, emotionally and case-centrally and to organize and edit them so that people can easily understand them is required. In the case of cultural documentaries, it was emphasized that the need to reinforce the directors and staff with strong experts in the field, and the production environment that can export the documentary to the world was remarkable. The science documentary emphasized the pleasure of fulfilling the logistic desire by eliminating people's intellectual curiosity and thirst for science. Overall, broadcasters are fiercely competing with their own strategies in terms of thematic and constructive aspects, and this has been confirm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ocumentaries.

In general, we analyzed the content of the Korean Broadcasting Grand Prize and deeply interviewed the producers who won the Grand Prize for Korean Broadcasting by documentary genre, and were a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ocumentary and to examine the production strategies for each genre.

Key words: Korean documentary, function, genre, theme, production strategy

부록 1.

한국 다큐멘터리 특성 연구 코딩시트

[기본정보]

V01. 코더번호(한 자리)

V02. 일련번호(네 자리, 첫 자리는 할당된 코더번호 기입)

V03. 수상일시(예: 1973년 -> 1973)

V04. 수상 구분

1. 최우수작품상(대통령상) 2. 대상 3. 최우수작품상(국무총리상)
4. 최우수작품상 5. 작품상(문공부장관상) 6. 작품상 7. 우수작품상
8. 우수작품상(국무총리상) 9. 작품상(국무총리상) 10. 특별상
11. 외부제작상 12. 해외방송 13. 기타

V05. 방송사 구분

1. KBS 2. MBC 3. SBS 4. 동양방송 5. EBS 6. KBS지역총국
7. MBC지역계열사 8. 지역민방 9. 외부독립제작사 10. 기타

[다큐멘터리 기능]

V06. 기능별 분류

1. 선전 기능 2. 탐사보도 기능 3. 관찰 기능
4. 대안적 기능(혼재되어 있을 경우, 수상 이유를 참조해서 분류함) 5. 기타

[다큐멘터리 장르]

V07. 장르별 분류

1. 시사 2. 휴먼 3. 자연 4. 과학 5. 역사 6. 문화
7. 정책(혼재되어 있을 경우, 수상 이유를 참조해서 분류함) 8. 기타

[장르별 세부주제]

V08. 시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1. 정치 2. 경제 3. 사회 4. 문화 5. 교육 6. 시사종합
7. 국제(해외, 북한 등) 8. 기타

V09. 휴먼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1. 영웅 중심(유명인) 2. 일반인 중심(보통사람)
3. 휴먼 종합(유명인, 보통사람)
4. 특수대상(장애인, 다문화,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5. 기타

V10.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1. 인간중심 2. 자연중심 3. 환경중심 4. 기타

V11. 과학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1. 인간 2. 동식물 3. 첨단기술 4. 지구천문학 5. 의학 6. 기타

V12. 역사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1. 영웅 중심(유명인) 2. 일반인 중심(보통사람) 3. 유물, 유적중심
4. 사건중심 5. 기타

V13. 문화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1. 음악 2. 미술 3. 문학 4. 전통문화 5. 스포츠 6. 대중문화
7. 기행 8. 종교 9. 기타

V14. 정책 다큐멘터리의 세부주제

1. 반공 2. 새마을 3. 정권 홍보 4. 정책 홍보 5. 기타

부록 2.

한국방송대상 다큐멘터리 수상작 현황(1973-2017)

구분	제목	방송사	분류	비고
제1회 (1973)				해당작 없음
제2회 (1974)				해당작 없음
제3회 (1975)	한국의 미	KBS	문화	작품상(문공부장 관상), 교양
제4회 (1976)	우리는 증언한다 6·25	KBS	정책	최우수작품상 (대통령상), 반공
	근대화 100년	MBC	정책	작품상(문공부장 관상), 보도
제5회 (1978)	한국의 재발견 초분	KBS	문화	최우수작품상 (대통령상), 교양
	인간만세 어느 복역인의 영광	TBC	정책	작품상, 새마을
제6회 (1979)	인간만세 백로들의 합창	동양방송	정책	우수작품상(국무 총리상), 새마을
	한국불교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KBS	문화	작품상, 교양
	보도특집 북극을 가다	동양방송	시사	작품상, 보도
제7회 (1980)	특집다큐멘터리 석남사	KBS	문화	작품상, 교양
	보도특집 석유 더 아낄 수 없나	동양방송	정책	작품상, 보도
제8회 (1981)	월요기획 신라의 신비	KBS	문화	최우수작품상(대 통령상)
	어느 재일동포의 죽음	KBS	시사	작품상(국무총리 상), 보도
	가야문화의 전수 현장	대전 MBC	문화	지역사회개발상
제9회 (1982)	특별기획 휴전선 155마일	KBS	정책	최우수작품상(대 통령상)
	다큐멘터리 비록 6·25	KBS	정책	작품상(국무총리 상), 교양
제10회 (1983)	815특집다큐멘터리 단재 신채호	MBC	역사	우수작품상(국무 총리상)
	월요기획 세계는 디자인 혁명시대	KBS	과학	작품상(국무총리 상), 보도
	다큐멘터리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MBC	시사	작품상(국무총리 상), 교양
제11회 (1984)	월요특별기획 신왕오천축국전, 혜초의 발길따라	KBS	역사	최우수작품상(대 통령상)
	어린이 특별기획 우리 동요 60년 3부작	MBC	문화	우수작품상(국무 총리상)
	월요기획 세계는 무역전쟁	KBS	시사	작품상(문공부장 관상), 보도
	기획다큐멘터리 한국 야생화의 4단계	MBC	자연	작품상(문공부장

				관상), 보도
제12회 (1985)	기획다큐멘터리 한국의 나비	MBC	자연	최우수작품상(대통령상)
	특별기획 5부작 한국의 국제경쟁력	KBS	시사	우수작품상(국무총리상)
	다큐멘터리 2부작 한국탐구	KBS	시사	작품상(문공부장관상), 보도
제13회 (1986)	연중기획 노벨상에 도전한다(14부작)	KBS	시사	최우수작품상(대통령상), 특별
	자연 다큐멘터리 지리산의 4계	MBC	자연	작품상(문공부장관상), 교양
	월요기획 신한강의 기적	KBS	시사	작품상(문공부장관상), 보도
제14회 (1987)	역사 다큐멘터리 가야	부산, 대구, 마산MBC	역사	최우수작품상(대통령상), 지역
	특집기획 조국의 산하를 바로 잡는다	KBS	과학	작품상(문공부장관상), 보도
	자연 다큐멘터리 꿀벌의 세계	MBC	자연	작품상(문공부장관상), 교양
제15회 (1988)	연속해외기획 세계의 민주주의 5부작	KBS	시사	우수작품상, 보도
	월요기획 엄마의 자리	청주MBC	휴먼	우수작품상, 지역
	자연 다큐멘터리 천적의 세계	MBC	자연	특별상, 보도
제16회 (1989)	대하기획 중국대륙	KBS	시사	대상, 보도
	창사30주년특집다큐멘터리 갈대	부산MBC	자연	최우수작품상, 교양
	전북의 재발견 명필 창암 이삼만	전주MBC	역사	우수작품상, 지역
제17회 (1990)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KBS	역사	대상, 다큐
	다큐멘터리 진도	KBS	문화	우수작품상, 교양
	창사특집 웨스트피아	부산MBC	시사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충청 오늘과 내일 백야 김좌진	대전MBC	역사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인간시대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MBC	휴먼	특별상
	해외취재 농업이 가는 길	KBS	시사	대상, 보도
제18회 (1991)	러시아 동구의 문학과 예술	MBC	문화	최우수작품상, 교양
	오로라 탐험과정-여기는 북극점	MBC	과학	특별상
	공사창립특집 양자강	KBS	시사	우수작품상, 다큐
	영남시대 독도는 살아있다 모래톱에 새겨진 충혼	포항MBC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다큐
	창사26주년 다큐멘터리 동학농민전쟁	전주MBC	역사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파나비전	휴먼	외부제작상

		외부제작)		
제19회 (1992)	자본주의 100년, 한국의 선택	KBS	시사	대상, 다큐
	6·25특집 내가 겪은 공화국	KBS	시사	우수작품상, 보도
	한민족 러시아유민사	MBC	역사	우수작품상, 교양
	어린이날 특집 소년소녀가장 협동캠프 날아라 새들아	MBC	휴먼	우수작품상, 어린이
	푸른일기	SBS	시사	우수작품상, 청소년
	향토기획 이 땅 사람들	KBS대구 방송총국	시사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창사33주년 기념특집 팔만대장경	부산MBC	문화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제20회 (1993)	6.25 특집다큐멘터리 76인의 포로들	MBC	휴먼	대상, 다큐
	사랑의 징검다리 장애체험등반	SBS	휴먼	최우수작품상, 특수대상
	역사애의 초대 임진왜란	KBS	역사	우수작품상
	어린이날 특집다큐멘터리 요즘 아이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MBC	시사	우수작품상, 청소년
	일요리포트 제주바다 백색공포	제주MBC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지역개발방송 내일을 연다	KBS부산	시사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소백산의 야생식물	충주MBC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운명의 산 낭가파르밧	KBS창원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베트남전쟁 그 후 17년	인디컴, 동양영상 공동제작	시사	외부제작상
제21회 (1994)	갯벌은 살아있다	MBC	자연	최우수작품상, 다큐
	시사매거진 2580	MBC	시사	우수작품상, 보도
	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XX9716 그랜저	SBS	시사	우수작품상, 교양
	늪기도 서러운데	포항MBC	휴먼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낙동강1300리	KBS대구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철원 민통선 철재의 비상	춘천MBC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신라	대구MBC	역사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카리브해의 고도 쿠바	KBS(인디 컴)	시사	외부제작상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MBC	휴먼	우수작품상,

				특수대상
제22회 (1995)	버섯, 그 천의 얼굴	SBS	자연	최우수작품상, 다큐
	문화대탐험 아시아 4만Km	SBS	문화	우수작품상, 보도
	대전환 21	MBC	시사	우수작품상, 교양
	생명체의 요람 제주바다 조간대	제주MBC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보도
	선진교통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빨간불 파란불	광주MBC	시사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쌀	전주MBC	시사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생태보고 뽕이갈매기	KBS창원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혼의 소리 그 고향을 찾아서	KBS전주	문화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체험 세계의 오지 탐탐, 그 영혼의 소리	SBS(한맥 유니온)	자연	우수작품상, 외부제작
	눈먼 새의 노래	MBC	휴먼	우수작품상, 특수대상
제23회 (1996)	어미새의 사랑	MBC	자연	최우수작품상, 다큐
	세계는 지금	KBS	시사	우수작품상, 보도
	1318 힘을 내	MBC	시사	우수작품상, 청소년
	PSB 해양특집 다큐멘터리	부산방송	시사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마약, 그 시작과 끝	부산MBC	시사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잃어버린 탐라천년	제주MBC	역사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세계영화기행	KBS(인디 킵)	문화	우수작품상, 외부제작
	직지	청주MBC	문화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소록도의 봄	SBS	휴먼	우수작품상, 특수대상
제24회 (1997)	KBS일요스페셜 지금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KBS	시사	대상, 보도
	음주문화, 이대로는 안된다	SBS	시사	우수작품상, 보도
	PD수첩 사기피해로 쓰러지는 조선족사회	MBC	시사	우수작품상, 교양
	왕도의 비밀	SBS	역사	우수작품상, 다큐
	세상체험 아빠와 함께 시각장애를 딛고 꿈의 농구장으로	SBS	휴먼	우수작품상, 어린이
	원양개척 40년 오대양에 타오르는	부산MBC	시사	우수작품상,

	불꽃			지역보도
	밀항탈출	광주MBC	휴먼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우체통 속의 새	KBS원주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한라산의 야생화	제주MBC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KBS대구	문화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두만강 따라 백삼십리, 아 나의 동포여 우리 산하여	FEBC	시사	우수작품상, 외부제작
	KBS일요스페셜 731부대는 살아있다	서울국제 위성뉴스	시사	우수작품상, 해외방송
	높고 깊은 사랑	MBC	휴먼	우수작품상, 특수대상
	적조, 죽음의 물결	PSB	자연	
	비브리오 패혈증	목포MBC	시사	특별상
제25회 (1998)	이용운 일가의 북한탈출	SBS	휴먼	최우수작품상, 보도
	시사매거진 2580	MBC	시사	우수작품상, 보도
	체험 삶의 현장	KBS	휴먼	우수작품상, 교양
	황소개구리	PSB	자연	우수작품상, 다큐
	98 기아체험 24시간	SBS	휴먼	우수작품상, 청소년
	영광굴비	광주MBC	시사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1997 한국 농촌 어린왕자	KBS전주	시사	우수작품상, 지역사회
	해양생물의 보고 바위해안	마산MBC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문화
	압록강에서 만난 사람들	다큐서울	휴먼	우수작품상, 외부제작
	MBC다큐스페셜 구원이의 새해소원	MBC	휴먼	우수작품상, 특수대상
제26회 (1999)	시사매거진 2580 사상누각 신공항/고발 후	MBC	시사	우수작품상, 보도
	시베리아 잃어버린 한국의 야생동물을 찾아서	EBS	자연	우수작품상, 교양
	바다의 무법자 불가사리	제주MBC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교양
	기둥에서 문살까지	TBC	문화	우수작품상, 지역교양
	황사	KBS광주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교양
	우포늪을 지키시다 21세기 자연사박물관	KBS창원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교양
	영상기록병원24시	KBS(J프로)	과학	우수작품상, 외부제작
	그것이 알고 싶다 국군포로 장무환 50일간 기록	SBS	휴먼	특별상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대전MBC	역사	특별상
제27회 (2000)	생명의 기적	SBS	과학	대상
	역사스페셜 풍납토성 지하 4미터의 비밀	KBS	역사	우수작품상, 교양
	일요스페셜 교실이야기	KBS	휴먼	우수작품상, 다큐
	2000 기아체험 24시간	SBS	휴먼	우수작품상, 어린이 청소년
	지구촌 자전거시대	전주MBC	시사	우수작품상, 지역보도
	새천년의 빛 한국의 전통색	광주MBC	문화	우수작품상, 지역교양
	탐라몽골 백년비사 바다를 건넌 제국	제주MBC	역사	우수작품상, 지역교양
	그 오두막엔 여든 네 살 청년이 산다	KBS전주	휴먼	우수작품상, 지역교양
	KBS환경스페셜 생명탐험 모래	KBS부산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교양
	MBC스페셜 어머니 그 위대한 이름으로	MBC	휴먼	특별상
	신두리 사구	대전MBC	자연	특별상
제28회 (2001)	2000년 한민족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KBS	시사	작품상 교양
	이제는 말할 수 있다	MBC	시사	작품상, 다큐
	지리산이 죽어간다	KBS창원	자연	작품상, 지역보도
	마한	광주MBC	역사	작품상, 지역교양
	한국의 자연 오징어	삼척MBC	자연	작품상, 지역교양
	생명의 땅 삼각주	부산방송	자연	작품상, 지역교양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청주MBC	역사	작품상, 지역교양
	인간극장 친구와 하모니카	KBS	휴먼	작품상, 외부제작
몽골리안 루트	KBS	문화	작품상, 심사위원장상	
제29회 (2002)	잘먹고 잘사는 법	SBS	과학	작품상, 다큐
	아 소록도	광주MBC	휴먼	작품상, 지역교양
	천왕봉 나린 물은	마산MBC	문화	작품상, 지역교양
	DMZ	춘천MBC	자연	작품상, 지역교양
	해풍	부산MBC	자연	작품상, 지역교양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PBS	휴먼	작품상, 특별

제30회 (2003)	미국 10부작	MBC	시사	작품상, 교양
	아기성장 보고서 5부작	EBS	과학	작품상, 다큐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7부작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시사	작품상, 지역보도
	남산 4부작	포항MBC	자연	작품상, 지역교양
	산조 2부작	전주MBC	문화	작품상, 지역교양
	나는 세상을 노래했다 작곡가 박시춘 2부작	마산MBC	휴먼	작품상, 지역교양
	아흔넷 불효자의 사부곡	KBS청주	휴먼	작품상, 지역교양
	최초보고 왕우령이 2부작	대전방송	자연	작품상, 지역교양
수요기획 정신질환자 8%시대 행복공동체로 가는 길	KBS	시사	작품상, 외부제작	
제31회 (2004)	4·3특별다큐멘터리 섬을 떠난 사람들	제주MBC	역사	최우수작품상, 저널리즘
	적조 황토가 대안인가	울산MBC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보도
	2004 신년대기획 환경의 역습	SBS	자연	우수작품상, 다큐
	바다의 날 특집다큐멘터리 해안 2부작	마산MBC	자연	우수작품상, 지역다큐
	세계문화유산 판소리 2부작	전주MBC	문화	우수작품상, 지역다큐
생로병사의 비밀	KBS	과학	최우수작품상, 정보공익	
제32회 (2005)	특별기획 위대한 여정 한국어	KBS	역사	학술예술 TV
	도자기	KBS	문화	최우수작품상,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3부작 섬	목포MBC	자연	작품상, 지역다큐
	하늘의 열림, 땅의 울림 북 2부작	전주MBC	문화	작품상, 지역다큐
	신어부사시사 30부작	부산방송	자연	작품상, 지역다큐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MBC	휴먼	작품상, 다큐
제33회 (2006)	KBS스페셜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	KBS	시사	최우수작품상 저널리즘
	PD수첩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	MBC	시사	작품상, 보도
	SBS스페셜 나는 가요 도쿄 제2학교의 여름	SBS	문화	작품상, 다큐
	떠날 수 없는 섬	여수MBC	시사	작품상, 지역다큐
	한반도 환경대재앙 산사담	KNN	자연	작품상, 지역다큐
제34회 (2007)	황하	MBC	문화	방송예술, 문화예술
	시사기획 씬 김앤장을 말한다	KBS	시사	대상, 저널리즘
	SBS스페셜 환경호르몬의 습격	SBS	자연	작품상, 다큐
	독도바다사자	대구방송	자연	작품상, 지역다큐

제35회 (2008)	우리 시대의 기록 0번 버스 이야기	대구MBC	시사	작품상, 지역다큐
	차마고도	KBS	문화	대상
	행복한 작은 학교 365일의 기록 3부작	대구MBC	휴먼	작품상, 어린이청소년
	추적60분 특별기획 스쿨존이 위험하다	KBS	시사	작품상, 심층보도
	위험한 질주 전남F1	광주MBC	시사	작품상, 지역심층보도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3부장 재앙	SBS	자연	작품상, 다큐
	KBS, NHK 공동기획2부작 조선통신사	KBS부산	역사	작품상, 지역다큐
	문자예술 서예 2부작	전주MBC	문화	작품상, 지역다큐
제36회 (2009)	힘내라 한국농업	목포MBC		지역생활정보
	누들로드	KBS	문화	대상
	제주문화상징 100선	제주MBC	문화	작품상, 문화예술
	소비자고발 90회 충격 베이비과우더에서 석면 검출	KBS	시사	작품상, 심층보도
	북극의 눈물	MBC	자연	작품상, 다큐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끝나지 않은 재앙	대전MBC	자연	작품상, 지역심층보도
	HD해양기획 5부작 배(船)	KBS부산	문화	작품상, 지역다큐
	지구의 해 특별기획 호모오일리쿠스 3부작	KBS대전	시사	작품상, 지역다큐
제37회 (2010)	러브 인 아시아	KBS	휴먼	작품상, 특수대상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1편	MBC	시사	작품상, 심층보도
	아마존의 눈물	MBC	자연	작품상, 다큐
	<시사인사이드> 특집4부작 2010 지방자치 보고서	OBS	시사	작품상, 지역심층보도
	천년의 향, 우리 누룩 3부작	대구MBC	문화	작품상, 지역다큐
	낙동강 지류대탐사10부작 강을 만드는 강	KNN	자연	작품상, 지역다큐
	설날특집 新부자학	OBS	시사	작품상, 지역생활정보
	문명다큐멘터리<페이퍼로드>6부작	MBC플러 스	문화	작품상, 뉴미디어
제38회 (2011)	교육대기획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	EBS	시사	대상
	시사매거진 2580 믿기지 않은 구타사건	MBC	시사	작품상, 시사보도
	SBS뉴스추적 충격실태 국가 시험이 샌다	SBS	시사	작품상, 시사보도
	사이언스 대기획 인간탐구 3부작-기억	KBS	과학	작품상, 교양정보
	잊혀진 재앙	대전MBC	자연	작품상, 지역시사보도
	뿌리공원 그곳엔 남생이가 산다	KBS대전	자연	작품상, 지역다큐
	무연고사회	부산MBC	시사	작품상, 지역다큐

	경술국치백돌 특별기획 우리 이름 가는 길을 묻다	대구MBC	문화	작품상, 지역교양정보
제39회 (2012)	한국의 유산	KBS	문화	작품상, 문화예술
	특별기획 김정일 3부작	KBS	시사	작품상, 시사보도제작
	대장경 천년특집 4부작-다르마	KBS	문화	작품상, 다큐
	<시사포커스> 바닷가 암마을의 진실은?	대전MBC	시사	작품상, 지역시사보도제작
	글로벌대기획 4부작 위대한 비행	KNN	자연	작품상, 지역다큐
	4부작 모래의 역습	KBS창원	자연	작품상, 지역다큐
	국치100+ 1, 해방되지 못한 영혼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광주방송	역사	작품상, 지역다큐
	TV메디컬 약손-대한민국 최초 두뇌음식프로젝트	대구MBC	과학	작품상, 지역교양정보
	다문화 희망프로젝트 무지개교실, 300일간의 행복실태	대전방송	휴먼	작품상, 사회공익
	아름다운 음식 한과	남인천방송	문화	작품상, 뉴미디어
제40회 (2013)	<시사매거진2580> 의문의 형집행정지	MBC	시사	작품상, 시사보도
	EBS다큐프라임-자본주의	EBS	시사	대상
	대기획 최후의 제국	SBS	시사	작품상, 다큐
	<시사파일제주> 2013차이나라포트	KBS제주	시사	작품상, 지역시사보도
	육식의 반란- 마블링의 음모	전주MBC	과학	작품상, 지역다큐
	설기획-지리산와운골, 아버지의 유산	KBS전주	휴먼	작품상, 지역다큐
	부산재발견	KBS부산	시사	작품상, 지역교양
	창사특집다큐멘터리 -코피노 소년, 킹리	충주MBC	휴먼	작품상, 사회공익
	<파노라마>가정의 달 특집 -보이지 않는 아이들	KBS	휴먼	작품상, 사회공익
	<다큐프라임> 음악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가?	EBS	문화	작품상, 문화예술
제41회 (2014)	<시사기획 창>고위공직자 재취업 보고서, 공생의 세계	KBS	시사	작품상, 시사보도
	시사플러스 어느 AS기사의 죽음	대전MBC	시사	작품상, 지역시사보도
	거위의 꿈, 날개	TJB	휴먼	작품상, 사회공익
	한영수교130주년기념특집 코리안푸드 메이드 심플	목포MBC	문화	작품상, 지역교양
	의례 8일간의 축제	KBS	역사	작품상, 다큐
	육식의 반란2 분노사슬	전주MBC	과학	작품상, 지역다큐
	43특별기획음악다큐멘터리 산, 들, 바다의 노래	제주MBC	역사	작품상, 지역다큐
	아버지의 일기장	대전MBC	휴먼	작품상, 지역다큐

제42회 (2015)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9부작	EBS	휴먼	작품상, 사회공익
	<시사기획 창> 해외부동산 추적보고서	KBS	시사	작품상, 시사보도
	<다큐프라임> 진화의 신비 독 4부작	EBS	자연	작품상, 다큐
	구텐베르그 고려를 훔치다	대구MBC	역사	작품상, 지역다큐
	노래로 보는 한국근대사	KNN	문화	작품상, 지역다큐
	시대의 벽을 넘은 여성	광주, 대전, 춘천MBC	역사	작품상, 지역다큐
	농촌탐구생활 뭘니까?	KBS대구	시사	작품상, 지역교양
	<시사기획 창> 중국, 동해를 삼키다	KBS강릉	시사	작품상, 지역시사보도
제43회 (2016)	<시사기획 창> 2016 정치개혁	KBS	시사	작품상, 시사보도
	세월호 참사 2주기 특집다큐-아버지의 목소리	OBS	시사	작품상, 지역시사보도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가슴기 살균제	KBS	시사	작품상, 생활정보
	그리운 이름 고향, 살암시난	제주MBC	휴먼	작품상, 사회공익
	<메디컬24시 닥터스> 최후의 희망, 권역외상센터편	KNN	과학	작품상, 지역교양
	<다큐프라임> 넘버스	EBS	과학	작품상, 다큐
	무문관	TBC	문화	작품상, 지역다큐
	낯은 집, 도시 근대건축물 생태보고서	MBC경남	문화	작품상, 지역다큐
제44회 (2017)	<휴먼다큐 사랑> 나의 이름은 신성혁	MBC	휴먼	작품상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진실	SBS	시사	작품상
	풍정 라디오	TBC	휴먼	작품상, 지역다큐
	독도DNA	포항MBC	과학	작품상, 지역다큐
	<시사진단 퀘> 잠입취재,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TBC	시사	작품상
	<명의> 병이 되는 잠-밤새 안녕하십니까	EBS	과학	작품상
	환생 2부작	KBS	문화	작품상
	<맛깔세상> 100회 특집 '강원도 막'	울산 MBC	문화	작품상, 지역교양

부록 3.

MBC 휴먼 다큐멘터리 <인간시대> 200회 편람

순서	프로그램명	연출	방송일자
인간시대 1회	청계천에서 세계로	김운영	1985년 5월 9일
인간시대 2회	소리, 종소리가 들린다	홍성완	1985년 5월 23일
인간시대 3회	신들린 사람	신언훈	1985년 5월 30일
인간시대 4회	이것 보여요 ?	이궁희	1985년 7월 11일
인간시대 5회	날개달린 쇠지팡이	윤동혁	1985년 7월 18일
인간시대 6회	법화골 진영이엄마	윤동혁	1985년 8월 22일
인간시대 7회	장생포의 마지막 포수	이궁희	1985년 8월 29일
인간시대 8회	고운꿈 나빌레라	윤동혁	1985년 9월 5일
인간시대 9회	청계천 철사장	은희현	1985년 9월 12일
인간시대 10회	고독한 여로	박홍영	1985년 9월 19일
인간시대 11회	소리를 보여 드립니다	강철용	1985년 10월 3일
인간시대 12회	레이스 뒤의 승부사	이궁희	1985년 10월 10일
인간시대 13회	달밭골 박노인	윤동혁	1985년 10월 17일
인간시대 14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강철용	1985년 10월 30일
인간시대 15회	섬마을 정선생님	은희현	1985년 11월 6일
인간시대 16회	뿌리내린 곡마인생	윤동혁	1985년 11월 13일
인간시대 17회	둘이서 걷는 한마음	이궁희	1985년 11월 20일
인간시대 18회	땅을 지키는 사람	강철용	1985년 11월 27일
인간시대 19회	부부 버스기사	은희현	1985년 12월 11일
인간시대 20회	떡메신부 하안토니오	윤동혁	1985년 12월 18일
인간시대 21회	조원일씨의 겨울나는 두가지 방법	이궁희	1986년 1월 6일
인간시대 22회	수의사 염명렬씨 부부	강철용	1986년 1월 22일
인간시대 23회	붙잡는 귀신 김진호	은희현	1986년 1월 29일
인간시대 24회	뒤로 걷는 사람	윤동혁	1986년 2월 5일
인간시대 25회	방영치씨 부부의 숨은그림 찾기	이궁희	1986년 2월 12일

순서	프로그램명	연출	방송일자
인간시대 26회	우옥환씨의 웃음뒤에 심은 꿈	강철용	1986년 2월 19일
인간시대 27회	천사님 우리들의 천사님	은희현	1986년 2월 26일
인간시대 28회	마음은 푸른바다	윤동혁	1986년 3월 5일
인간시대 29회	금학연씨 고향에 가다	이궁희	1986년 3월 12일
인간시대 30회	미락골 개구쟁이 훈이	강철용	1986년 3월 19일
인간시대 31회	월산리 아줌마의 1.4톤짜리 꿈	은희현	1986년 3월 26일
인간시대 32회	땀방울속에 빛나는 햇살	윤동혁	1986년 4월 2일
인간시대 33회	집배원 알리 아저씨	이궁희	1986년 4월 9일
인간시대 34회	우리가 만드는 작은 나라	황효선	1986년 4월 23일
인간시대 35회	파도와 30년 계잡이 어부	은희현	1986년 4월 28일
인간시대 36회	1학년 2반 박영훈입니다	황효선	1986년 5월 5일
인간시대 37회	어느 봄날 이계장	윤동혁	1986년 5월 12일
인간시대 38회	정진이 엄마의 자라지 않는 아이	이궁희	1986년 5월 19일
인간시대 39회	통발 문어잡이 현씨네 식구들	고장석	1986년 5월 26일
인간시대 40회	미쓰서의 신입신고	황효선	1986년 6월 2일
인간시대 41회	광주공원 김주사의 모범답안	윤동혁	1986년 6월 9일
인간시대 42회	장돌림 김삼진씨의 휘파람 불던 날	이궁희	1986년 6월 16일
인간시대 43회	주머니 속의 왼손	고장석	1986년 6월 23일
인간시대 44회	기차길옆 아이	황효선	1986년 6월 30일
인간시대 45회	김용남씨의 암호 만들기	윤동혁	1986년 7월 7일
인간시대 46회	무명가수의 노래	이궁희	1986년 7월 14일
인간시대 47회	조종언씨의 즐겁게 사는 비결	고장석	1986년 7월 21일
인간시대 48회	섬마을 처녀 소장님	황효선	1986년 7월 28일
인간시대 49회	아스팔트 위의 야생화	윤동혁	1986년 8월 4일
인간시대 50회	이장 사모님, 어디 계시나요	이궁희	1986년 8월 18일

순서	프로그램명	연출	방송일자
인간시대 51회	은발의 수녀 하이디	신언훈	1986년 8월 25일
인간시대 52회	빼에로의 꿈	고장석	1986년 9월 1일
인간시대 53회	신들린 여인, 무녀 이춘자	황효선	1986년 9월 8일
인간시대 54회	홍씨남매의 나비꿈	윤동혁	1986년 9월 22일
인간시대 55회	어머니의 기도	이궁희	1986년 10월 6일
인간시대 56회	사장님의 첫걸음	고장석	1986년 10월 13일
인간시대 57회	작은 마을 큰 선생님	황효선	1986년 10월 20일
인간시대 58회	오늘의 옛사람	윤동혁	1986년 10월 27일
인간시대 59회	잠수어부 임규환씨의 흐린날 갯날	이궁희	1986년 11월 3일
인간시대 60회	시골의사 박용열씨의 손익계산서	정문중	1986년 11월 10일
인간시대 61회	고향의 땅	고장석	1986년 11월 17일
인간시대 62회	할아버지의 유산	황효선	1986년 11월 24일
인간시대 63회	어느 시인에게 드리는 편지	윤동혁	1986년 12월 1일
인간시대 64회	이영호씨가 사는 서울의 지붕밑	정문중	1986년 12월 8일
인간시대 65회	박성기씨의 생명선언	이궁희	1986년 12월 15일
인간시대 66회	헌번에 두걸음씩	고장석	1986년 12월 22일
인간시대 67회	주왕산 사슴 아저씨	황효선	1986년 12월 29일
인간시대 68회	빛을 수선하는 사람	윤동혁	1987년 1월 5일
인간시대 69회	고독한 여로	정문중	1987년 1월 12일
인간시대 70회	심석일씨의 특종	이궁희	1987년 1월 19일
인간시대 71회	김상화씨의 낙동강에 띄우는 노래	고장석	1987년 1월 26일
인간시대 72회	김을생씨의 명심보감	황효선	1987년 2월 2일
인간시대 73회	담장안의 양지	윤동혁	1987년 2월 9일
인간시대 74회	풍도 사람들	홍중선	1987년 2월 16일
인간시대 75회	산관 사람들	이궁희	1987년 2월 23일

순서	프로그램명	연출	방송일자
인간시대 76회	당산8통 경사났네	고장석	1987년 3월 2일
인간시대 77회	겨울 끝에 피는 이 봄꽃	은희현	1987년 3월 9일
인간시대 78회	터미널 삼총사	정문중	1987년 3월 16일
인간시대 79회	조태수씨의 행복처방전	윤동혁	1987년 3월 23일
인간시대 80회	구두닦기 백씨의 닦기와 찍기	고장석	1987년 3월 30일
인간시대 81회	중환자실의 천사들	김상옥	1987년 4월 6일
인간시대 82회	엑스트라 김씨의 직업유전	정문중	1987년 4월 13일
인간시대 83회	보이니, 보여 ?	은희현	1987년 4월 20일
인간시대 84회	오토바이 사줘유 !	윤동혁	1987년 4월 27일
인간시대 85회	마라도아이, 진아의 눈물	고장석	1987년 5월 4일
인간시대 86회	버스차장 양재기씨의 완행인생	김상옥	1987년 5월 11일
인간시대 87회	거제도 윤노인의 선소리	정문중	1987년 5월 18일
인간시대 88회	지계 선생님, 정덕영	은희현	1987년 5월 25일
인간시대 89회	복희씨 사랑해 !	윤동혁	1987년 6월 1일
인간시대 90회	4대독자 백영규씨의 꽃피우기	고장석	1987년 6월 8일
인간시대 91회	대장과 다섯아이들	김상옥	1987년 6월 15일
인간시대 92회	큰엄마의 유월	정문중	1987년 6월 22일
인간시대 93회	목장집 경은이 엄마	은희현	1987년 6월 29일
인간시대 94회	당신의 빈자리	윤동혁	1987년 7월 6일
인간시대 95회	스타지망생 순화양의 상경기	고장석	1987년 7월 13일
인간시대 96회	신인가수 수와진의 여름나기	정문중	1987년 7월 20일
인간시대 97회	햇집아줌마의 여름이야기	은희현	1987년 8월 3일
인간시대 98회	이의한씨의 늦바람	윤동혁	1987년 8월 10일
인간시대 99회	김성표씨의 또다른 출발	고장석	1987년 8월 17일
인간시대 100회	홈런호, 존나선장	김상옥	1987년 8월 24일

순서	프로그램명	연출	방송일자
인간시대 101회	저스틴의 잃어버린 시간	정문중	1987년 8월 31일
인간시대 102회	달리는 시인, 김필곤	은희현	1987년 9월 7일
인간시대 103회	인간시대, 그후	윤동혁	1987년 9월 14일
인간시대 104회	총각아범 정은섭	고장석	1987년 9월 21일
인간시대 105회	소양원의 밀알 지형식씨	김상옥	1987년 9월 28일
인간시대 106회	지연이의 긴여행	정문중	1987년 10월 5일
인간시대 107회	물가의 집에서 김규현 부부	황효선	1987년 10월 12일
인간시대 108회	왜 사냐건 웃지요	윤동혁	1987년 10월 19일
인간시대 109회	일하는 여자 박단장의 선택	홍중선	1987년 10월 26일
인간시대 110회	내장산 산신령	김상옥	1987년 11월 2일
인간시대 111회	울궁이의 비닐악보	윤동혁	1987년 11월 9일
인간시대 112회	할머니의 연설	황효선	1987년 11월 16일
인간시대 113회	황순녀씨의 열손가락	정문중	1987년 11월 23일
인간시대 114회	스님, 머리 안 깎을래	홍중선	1987년 12월 7일
인간시대 115회	리어카 끄는 사또	김상옥	1987년 12월 14일
인간시대 116회	목발의 골목대장, 베로니카	황효선	1987년 12월 28일
인간시대 117회	교오또의 뽕과리소리	윤동혁	1988년 1월 4일
인간시대 118회	수녀님과 50인의 기숙생	정문중	1988년 1월 11일
인간시대 119회	스물아홉살의 겨울신부	박신서	1988년 1월 25일
인간시대 120회	내아들 쌍둥이 철도원	황효선	1988년 2월 1일
인간시대 121회	크리스 상병의 시간여행	홍중선	1988년 2월 8일
인간시대 122회	정아의 겨울일기	정문중	1988년 2월 15일
인간시대 123회	행정이의 두가지 꿈	박신서	1988년 2월 22일
인간시대 124회	어머니의 바다	홍중선	1988년 2월 29일
인간시대 125회	필동씨네 가족사진	황효선	1988년 3월 7일

순서	프로그램명	연출	방송일자
인간시대 126회	고향유정	윤동혁	1988년 3월 14일
인간시대 127회	부르는 소리	정문중	1988년 3월 21일
인간시대 128회	3온스에 건 꿈	박신서	1988년 3월 28일
인간시대 129회	박명임씨의 추운 봄날	홍종선	1988년 4월 4일
인간시대 130회	내가 할머니 기생이여	정수채	1988년 4월 11일
인간시대 131회	칠성씨가 웃는 뜻	윤동혁	1988년 4월 18일
인간시대 132회,133회	파리유학생 레오와 로사 제1부 : 걸어서 하늘까지 제2부 : 다시 땅을 딛고	정문중	1988년 4월 25일, 5월 2일
인간시대 134회	경아의 화려한 외출	박신서	1988년 5월 9일
인간시대 135회	용춘목장의 아버지	홍종선	1988년 5월 16일
인간시대 136회	스님의 아이들	윤동혁	1988년 5월 23일
인간시대 137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수채	1988년 5월 30일
인간시대 138회	앵순아줌마의 권목소리	박신서	1988년 6월 6일
인간시대 139회	신입생들의 훈련일지	홍종선	1988년 6월 13일
인간시대 140회	섬처녀 영란이	정문중	1988년 6월 20일
인간시대 141회	병관씨, 행복하십니까 ?	윤동혁	1988년 6월 27일
인간시대 142회	각설이와 산타클로스	정수채	1988년 7월 4일
인간시대 143회	박사장과 김기사의 뜨거운 여름	박신서	1988년 7월 11일
인간시대 144회	열일곱살의 기로	홍종선	1988년 7월 18일
인간시대 145회	보이지 않는 길	정문중	1988년 7월 25일
인간시대 146회	쉬썌밍씨 장마도 견뎠습니다 그러	윤동혁	1988년 8월 1일
인간시대 147회	품, 품바 신혼여행	정수채	1988년 8월 8일
인간시대 148회	애들아 ! 세상 참 넓더구나	박신서	1988년 8월 15일
인간시대 149회,150회	한미 이산가족 김영만씨 부부	홍종선	1988년 8월 22일, 8월 29일
인간시대 151회	시작된 도전	정문중	1988년 9월 5일
인간시대 152회	조성기씨의 금요일	김상옥	1988년 9월 12일

순서	프로그램명	연출	방송일자
인간시대 153회	석운선생이 샷갓속에 감춘 눈물	윤동혁	1988년 10월 10일
인간시대 154회	곰사장이 사는 이태원 24시	정수채	1988년 10월 17일
인간시대 155회	애자씨의 창과 아니리	박신서	1988년 10월 24일
인간시대 156회	또 한번의 워킹	정문중	1988년 10월 31일
인간시대 157회	상해에서 온 김씨네	홍중선	1988년 11월 7일
인간시대 158회	유세차 선생의 합격비결	정수채	1988년 11월 14일
인간시대 159회	네온의 빛과 그림자	박신서	1988년 11월 21일
인간시대 160회	은경이의 현실참여	윤동혁	1988년 11월 28일
인간시대 161회	넓고 넓은 바닷가에	정문중	1988년 12월 5일
인간시대 162회	사령관의 나들이	홍중선	1988년 12월 12일
인간시대 163회	강필국과 알렉스	정수채	1988년 12월 19일
인간시대 164회	김시인네 가족의 거듭나기	박신서	1988년 12월 26일
인간시대 165회	박성기씨의 생명선언, 그후	윤동혁	1989년 1월 2일
인간시대 166회	17년만의 귀휴	정문중	1989년 1월 9일
인간시대 167회	선녀골 박씨네의 겨울사냥	홍중선	1989년 1월 16일
인간시대 168회	우리엄마, 새엄마	정수채	1989년 1월 23일
인간시대 169회	양씨 가문 사람들	박신서	1989년 1월 30일
인간시대 170회,171회	대니의 한국탐험 I, II	윤동혁	1989년 2월 6일, 13일
인간시대 172회	도를 찾아서	정문중	1989년 2월 20일
인간시대 173회	88신병 전선에 가다	윤동혁	1989년 2월 27일
인간시대 174회	환절기	홍중선	1989년 3월 6일
인간시대 175회	사무엘, 미안해	정수채	1989년 3월 13일
인간시대 176회	달동네 파수꾼	박신서	1989년 3월 20일
인간시대 177회	대장간 할아버지네	정문중	1989년 3월 27일
인간시대 178회,179회	어떤 귀향 I, II	윤동혁	1989년 4월 3일, 4월 10일

순서	프로그램명	연출	방송일자
인간시대 180회	양영중 기자의 창간일기	홍종선	1989년 4월 17일
인간시대 181회	고교5년생 차기삼	고장석·이석형	1989년 4월 24일
인간시대 182회	현은희의 감수광	김윤영·최우철	1989년 5월 1일
인간시대 183회	외인구단의 떠돌이	이명기	1989년 5월 8일
인간시대 184회	내아들 경식아	송열준	1989년 5월 15일
인간시대 185회	신입 서울특별시민	홍종선	1989년 5월 22일
인간시대 186회,187회	어느 무기수의 꿈 전·후	이석형	1989년 5월 29일, 6월 12일
인간시대 188회	아론이의 죽음	최우철	1989년 6월 19일
인간시대 189회	까만 보따리	이명기	1989년 7월 3일
인간시대 190회	서울특파원 오오지	송일준	1989년 7월 10일
인간시대 191회	구카노의 노년	홍종선	1989년 7월 17일
인간시대 192회	춤추는 도너츠	이석형	1989년 7월 24일
인간시대 193회	진태 삼촌의 일곱손가락	최우철	1989년 7월 31일
인간시대 194회	최홍윤,최중의 부부의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명기	1989년 8월 7일
인간시대 195회	쿄노부코와 강신자	송일준	1989년 8월 14일
인간시대 196회	작은 누이의 잠과 꿈	홍종선	1989년 8월 21일
인간시대 197회	박장길씨의 바위굴리기	이석형	1989년 8월 28일
인간시대 198회	풀빵장수와 선생님	최우철	1989년 9월 4일
인간시대 199회	양통장의 여름	이명기	1989년 9월 18일
인간시대 200회	한나의 일기	송일준	1989년 10월 23일